



11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11호

(루계 제 745 호)

## 차 례

그이 오신 날 .....	3
우리 공장 청춘원 .....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4
후치령에서 .....	4
주체문학의 대강 .....	5
장군님 새겨주신 철의 진리 .....	5
꼭 들어맞은 예언 .....	6
7 월 30 일 .....	7
경구, 격언 .....	8
작가 석운기의 창작기풍 몇가지 .....	9
나는 불보라를 뿌린다 .....	12
행복 .....	12
무지개 비껴간 땅에서 .....	13
생활의 먼길에 끝이 있는가 .....	15

《형제계》 .....	16
피젖은 당원증 .....	27
청춘과 랑만 .....	28
병사와 소녀 .....	29
무엇때문인가, 지난날의 성과작들이 문득 떠오르는것은...	30
동창 .....	31
별들이 빛난다 .....	32
신천의 사계절 .....	42
도리 .....	43
조선로동당창건 65 뉘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	49
세부묘사와 작가의 탐구정신 .....	50
보증서 .....	54
조선속담 .....	54
피의 용암 .....	55
그 한자리만은 .....	56
다시 찾은 사랑 .....	57
시다운 시세계에 대한 탐구 .....	65
교정의 종소리 .....	69
첫 생활비 .....	70
세계유모아 .....	78
셀리와 그의 창작 .....	79
내각지시문 제 183 호 .....	80

# 그 이 오 신 날

차 명 속

그이 오신 날

분명

그날엔 승리산의 하늘도 밝게

웃었소

별들도

기쁨의 그 사연

더운 눈빛들로 전하며 더 많이도 돈았댔소

그날엔 차공장구내길에 더 높이 올린

기계소리… 기대소리…

집집마다 더 많이 흘러나온

가슴 뜨거운 속삭임

장군님께선 어느 사이

승리산사람들 마음속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를 쥐여주셨소

현대화의 물결우에 새땃을 올리라고

위훈의 나래를 달아주셨소

행복의 만년터전, 강성대국의 지름길을

펼쳐주셨소

가 사

그이의 뜻으로

승리산은 숨쉬고

심장과 심장은 박동을 합치고

발걸음 발걸음이

폭풍치며 내달리오

그립던 장군님앞에

우리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사무쳐 깨달으며

승리의 목메인 만세를

높이 부를 그날만이 있어

오 장군님 언제나 웃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에 우리 사오

창조의 새땃을 높이 올리며

승리산사람들은 그 하루에

위훈의 삶, 보답의 패일을 안고

날 지새는줄 몰랐소

아, 그이 오신 날

# 우 리 공 장 청 춘 원

한 광 우

묘향산의 비선폭포 그대로 옮겨왔나

송도원의 해수욕장 그대로 옮겨왔나

장군님 다녀가신 우리 공장 청춘원

들어서면 피로가 저절로 풀린다오

실내에선 통구경기 응원소리 드높다오

장기놀이 윗놀이에 어깨가 들썩이오

장군님 다녀가신 우리 공장 청춘원

나설 때면 새힘이 온몸에 솟는다오

여기선 누구나 젊어만 진다오

모두다 혁신자로 새롭게 태어나오

장군님 다녀가신 우리 공장 청춘원

온 나라의 모범으로 소문이 크게 났소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형권삼촌은 체포된후 얼마동안 홍원경찰서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후 함흥감옥에 다시 이송되어 거기서 또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았다.

함흥지방법원에서의 법정투쟁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때 형권삼촌은 법정에서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였다고 한다.》

《형권삼촌은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에야 수감자들에게 숨기고있던 이야기를 하였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 후 치 평 에 서

곽 명 철

문득 뵈울것만 같아라  
후치령 아득한 이 령을 오르니  
금시 굽이 저쪽에서  
싸창을 틀어쥐고 웃음 만면하신  
그날의 김형권선생님을

귀기울이면 들려올것만 같아라  
인민들의 피에 맺힌  
원췌 왜놈 《오빠시》를 단호히 처단하시고  
승리의 개가 높이 승합차를 몰아  
유유히 이 령을 날아넘으며 날리던  
선생님과 무장소조원들의 통쾌한 그 웃음소리가

내 지금 머물러선 이 언덕은 아닌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는  
풍산경찰서 사법계 주임놈에게  
조선사람의 넋을 팔지 말라  
준절히 꾸짖으시던 그곳은

그날에 선생님은  
탈아래 끝없이 펼쳐진  
조국의 저 푸른 대지를 바라보시며  
마음 다지셨으리  
손에서 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  
원췌 왜놈들을 기어이 멸망시키리라고

이 령을 내리시어 헤치신 피의 준령은  
얼마나 처절하였던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백절불굴의 신념으로 새기신  
선생님의 그 자욱자욱이  
오늘도 이 가슴에 사무쳐와라

좌-좌-  
끝없이 설레이는 후치령은  
그날의 선생님 뜨거운 숨결 전하여주며  
대를 이어 선군의 총대를 더 억세게 틀어쥐라  
쉽없이 속삭여주네

아직은 한뼘  
피의 대가를 결산 못한 우리 인민  
바다너머에  
지금도 옛 망상에서 깨지 못하고  
재침의 칼을 가는 백년숙적이 있음을  
순간도 잊은적 없거니

나는 령을 내린다  
그날의 선생님의  
복수의 조문을 가슴에 안고  
《오빠시》의 무리들과 기어이 끝장을 보고야말  
결사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평론은 문학예술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여야 한다. 평론에서 잘되었다고 하는 작품이 인민들속에서 불만을 자아내는 경우도 있고 인민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 평론에서 잘되지 못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평론은 레외없이 인민대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썼거나 외면하고 쓴것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평론가는 작품이 잘 되었다거나 잘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들을줄 알아야 한다. 인민대중은 가장 현명한 평론가이다. 인민대중이 평가하지 않는 작품은 좋은 작품으로 될수 없다. 평론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인민의 목소리가 울려나와야 한다.》

### 혁명일화

## 장군님 새겨주신 철의 진리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은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불굴의 정신력으로 완강히 뚫고나가시는 신념과 의지의 최강자이시다.

주체91(2002)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기록영화 《조국광복을 위하여》 제17부를 보시였다.

이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몽강현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64돛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화를 보시며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그려보시는듯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담대한 배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억천만번 다시 일어나 기어이 원썬을 치고 조국을 해방하고야말겠다는 강毅한 의지로 몸소 대오의 앞장에 서시여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활한 전법, 뜨거운 동지애로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자욱을 더듬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커다란 감동의 빛이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일군들에게 오늘 기록영화를 보면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승리에 대한 드물지 않는 신념과 배짱, 불굴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신념과 의지, 배짱에서 우리 수령님을 따를만 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년대들에 보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신념과 의지, 배짱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회고하시는것이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백철불굴의 신념과 의지, 담대한 배짱의 력사라고 할수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혁명은 신념이고 배짱이다, 신념과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배짱이 없으면 온갖 풍파를 헤치며 나가야 하는 혁명을 할수 없다, 이것은 내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피눈물의 언덕을 넘으며 가슴에 새긴 철의 진리이다, 억센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지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으며 못해낼 일이 없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수령님께서 지니시였고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는 이런 신념과 배짱을 그대로 닮는다면 우리는 적들의 그 어떤 도전도 짓부시며 반드시 이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수 있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철의 의지의 선언으로 력사의 갈피에 깊이 새겨졌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위대한 선언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조선혁명의 년대기들에 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우리 수령님의 무비의 신념과 배짱으로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기어이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안아오실 천출명장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리 금 분



## 꼭 들어맞은 예언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은 닥쳐올 앞일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력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끝없이 경탄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7(1968)년 8월 어느날 중화군의 한 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날 농장의 파일저장고를 돌아보시며 저장고를 움식으로 하니 좋다고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농장일군에게 파일저장고가 작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농장일군은 그이를 우러르며 작지 않다고 말씀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께서 보기에는 작은것 같다고, 크기를 옳게 정하지 못한것이 파일저장고의 결함이라고 지적하시였다.

농장일군은 그이의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릴수가 없었다.

사실 농장의 파일생산량을 놓고볼 때 파일저장고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이런 생각으로 하여 농장일군의 얼굴에는 의아한 빛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러한 농장일군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깊이 생각하시는지 한동안 아무말씀이 없으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일곱해후에는 농장에서 1 000t의 파일을 생산하게 될것이라고, 그때에 가서는 먹고 남은 760t의 파일은 다 저장하지 못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일곱해후에 지금의 저장고를 가지고서는 파일을 모두 저장하지 못하기때문에 파일저장고건설을 지금부터 대대적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앞날의 파일생산량을 내다보신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예언은 일곱해가 흐를 때까지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을 다녀가신 후 이곳 농장원들은 종시 의문을 풀지 못한채 새로운 형식의 파일저장고건설에 달라붙었다.

그해 11월 어느날 농장을 다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야산기슭에 건설된 새로운

파일저장고를 돌아보시며 농장원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1 000t의 파일을 생산하게 되면 소비량을 제외하고도 다 저장할수 없기때문에 다음해에도 파일저장고를 더 건설해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몇해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다시 농장을 찾으시여 확실히 이곳에서 만든 파일저장고가 좋고, 저장고를 이 고장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이런 파일저장고를 많이 건설하라고 이르시였다.

이런 나날속에 일곱해가 흘렀다.

주체64(1975)년 가을 이곳 농장에서 그해 파일생산량을 총화짓는 마감날이 다가왔다.

그날 모두의 시선은 통계표에 집중되였다.

통계표에 마지막생산량이 기입되고 한해 파일생산량이 확정되던 순간 사람들속에서는 경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해 파일생산량이 큰 오차가 없이 1 000t이었던것이다. 이미 농장원세대에 공급한 량과 소비한 량을 모두 합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언하신대로 240t이였다. 그리고보면 760t저장량도 꼭 들어맞은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예언은 참으로 신비할 정도였다.

돌이켜보면 이곳 농장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파일저장고를 계획적으로, 전망적으로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파일이 허실될번 하였는가.

그때에 알게 된 일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곱해전에 그 당시 파일을 파들이던 면적과 일곱해후에 팔수 있는 면적을 타산해보시고 것처럼 꼭 들어맞는 예언을 하시였던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후 널리 퍼지면서 우리 수령님은 천기도 내다보시지만 앞날의 일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전설적위인이시라는 혁명전설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였다.

김 동 철

## 7 월 30 일

리 명 순

그날은 7월 30일이였다.

...새벽에 일어나 쌀을 일던 나는 방안에서 울리는 아들에의 목소리에 귀를 강구였다.

《아버지, 일어나나라요, 빨리요!》

《응?》

벌떡 일어났던 남편이 시계를 보고는 안심하며 다시 자리에 누우려는데 팔을 뻗친 아들이 아버지 잔등을 떠밀며 소리치는것이였다.

《선생님이 오늘은 아버지가 밥하는 날이랬어.》

《그래? 헌데 벌써 어머니가 부엌을 차지했구나. 어떻게 할가?》

《그래두 아버지가 하면 되지 않나요.》

《막 빼앗아서?》

《응.》

정말 남편과 아들이 부엌으로 나와서 쌀함박을 빼앗는다, 걸레를 친다 하며 야단이였다.

나는 웃음이 터져나와서 견딜수가 없었다. 부엌에만 들어서면 온몸이 굳어지고 팔다리가 뻗뻗해진다던 남편이였던것이다.

《난 세면할래.》 하며 아들이 세면장으로 뚝뚝 달려갔다.

《선생님이 오늘은 엄마 말 더잘 들어야 한됐어.》

《거 선생님이 정말 고맙구나.》

우리 부부는 동시에 그 말을 하였다. 아침마다 늦잠꾸러기 그 애를 깨우고 준비를 시켜서 함께 데리고 공장유치원까지 가는것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가를 생각하였기때문이었다.

그날은 여느날보다 15분이나 앞당겨 출근길에 나설수 있었다. 나는 발걸음에 날개라도 돋친듯 하였다. 얼마나 고마운 우리 사회인가, 《선생님이 고맙구나.》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공장정문에 들어서던 나는 놀라 굳어졌다.

출근시간마다 공장정문에서 기동예술선동대가 어깨춤이 절로 나게 흥겨운 음악을 울리는것은 평소로인 일이였지만 그날 아침은 류별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는것이였다. 아이들을 받으러 나온 공장탁아소의 유모차들에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던지 꽃바구니를 현상케 하였다.

《수고했소. 일찍 나오는구만.》

지배인동지가 나에게 다가와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나는 활짝 얼굴이 붉어져 어쩔줄 모르는데 아들은 짹짹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것이였다.

《야! 우리 엄마 참 곱네!》

정문에서 벗어나 넓은 구내길에 들어섰을 때 나는 유치원생인 아들에게 속삭였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건 말이야, 고운 천을 더 많이 짜라고 걸어 준거란다. 엄만 아직 150일전투계획을 다 못했단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그래두 직장장군어머닌 엄마가 앞장섰다고 했는데?》

《엄마보다 앞선 사람이 더 많단다.》

《준마치녀아지미들?》

《그래, 그 아지미들은 엄마보다 얼마나 많이 앞섰는지 모른단다.》

《엄마, 오늘은 아버지가 밥해줬으니깐 그 아지미들보다 1등 할수 있어. 그렇지? 내가 래일두 아버지 일찍 일어나게 할가?》

《아버진 엄마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신단다. 혁이가 엄마 말 잘 들으면 된단다.》

《정말?》

《그렇지 않구.》

《야! 그럼 우리 엄마 1등이다!》

혁이는 뚝뚝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

그날의 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소박하나 행복에 겨운 시작이였다고 할가. ...

온 나라 녀성들이 그날은 나처럼 하루를 시작했을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방직공장을 찾아주실줄이야!

꿈같은 소식에 접한 순간 나의 심장은 터져오르는 환희로 하여 금시 멎는것만 같았다.

《장군님께서 오셨다! 장군님께서 오셨다!》

왜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우는것일까! 그렇게도 바라고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어쩌서 눈물은 동을 터뜨린듯 쉽없이 흐르고흐르는것일까. 아마도 사람은 슬플 때보다 행복의 절정에 올라섰을 때 더 크게 울고싶어지는 모양이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을 주름잡으시며 빨찌산식현지도강행군을 하고계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들, 녀성들의 명절을 축하해주시려 우리 공장에 오시였구나!

우리들은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딸의 심정이런듯 기쁘고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공장이 옛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



시면서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높은 수준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한것은 경탄할만 한 성과라고 하시며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로력영웅들과 새 세대 로력혁신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역량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녀성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기쁨이면 이보다 더 큰 기쁨,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우리 일터,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뜨거운 축복을 안겨주신 아버지장군님.

돌아보면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그 시기 우리 공장이, 우리 녀성로동자들이 주저앉지 않고 곳곳이 일떠설수 있는것도, 가정보다 먼저 나라살림을 생각하며 생산을 다그치고 공장을 꾸려온것도 모두 아버지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나라사정이 그토록 어려웠지만 녀성로동자들이 온종일 순회길을 걸으며 일하느라 수고한다고 통근차도 보내주시고 작업복과 신발을 꼭꼭 보장해주도록 해주신 아버지장군님.

언제인가는 선군령도의 그 바쁜 나날에도 체대군인들과 방직공처녀들이 결혼식을 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고 하시며 친부모의 사랑을 담아 은정깊은 결혼식상을 보내주신 우리 어버이!

정녕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어 우리들은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주저앉지 않고 일떠설수 있었으며 자체의 힘으로 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백절불굴의 조선녀성들의 영웅적기개를 만천하에 떨칠수 있었다.

오늘은 뜻깊은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에 우리들을 찾으시어 뜨거운 축복을 안겨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니 정녕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녀성들을 어엿한 혁명가, 선군혁명투사로 키워주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어버이이다.

...그날 저녁 우리 집안은 아버지장군님의 현지지도이야기로 밤깊도록 잠들줄 몰랐다.

《혁이 아버지, 벌써부터 난 가슴이 막 울렁거려요. 이제 우리 공장에서는 아버지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한 대고조의 불바람이 더 세차게 일어날거예요. 나도 그 대오속에 부끄러움이 없이 들어서야겠는데...》

《나도 당신을 적극 돕겠소.》

갑자기 혁이가 아버지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살거렸다.

《뭘, 밥?!》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의 얼굴에 한가득 웃음이 피어올랐다.

《오나오나, 아버지가 밥만 하겠니? 빨래도 하구 청소도 하구... 네 엄마가 장군님께서 아시는 혁신자만 될수 있다면 이 아버지는 뭐든 다 할수 있단다. 참, 우리 혁이도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단다, 알겠니?》

《알았어요. 나 래일 아침두 오늘처럼 제일먼저 일찍 일어나겠어요.》

《그래그래, 우리 혁이가 정말 용쿠나. 하하하.》

《호호호.》

나는 남편과 아들에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생각에 잠기였다.

1년 365일 하많은 날중에서도 바로 오늘 역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에 우리들, 녀성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아버지장군님.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지지리 짓밟히우고 억눌리우며 눈물속에 살아오던 우리 녀성들을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 어엿하게 내세워주시고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다른 날도 아닌 바로 오늘에 우리들을 찾아주신것 아니라.

정녕 오늘은 우리 녀성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의 깊은 뜻을 가슴속에 더 뜨겁게, 더 깊이 새긴 날이며 내 한생토록 간직할 뜨거운 맹세를 심장에 새겨안은 뜻깊은 날이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 아버지장군님께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끝없이 깊어가고있었다.

...그날은 바로 7월 30일, 역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발포 63돐이 되는 날이었다.

## 경구, 격언

- 아름다운 얼굴은 결혼하기 전뿐이지만 재주는 한평생을 쓴다
- 행복을 남의 집 마당에서 찾지 말라
- 웃음꽃이 피는 집에 행복이 찾아온다
- 행복에는 법칙이 없다

- 훌륭한 남편은 처를 때리지 않고 좋은 게는 달보고 짓지 않는다
- 가난하고 어렵게 산 처를 버리지 말라
- 얼굴보다 지혜를 보고 안해를 택하라

# 작가 석윤기의 창작기풍 몇 가지

한 미 영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당의 정책적의도에 맞게 잘하면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아주고 문학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려나갈수 있을것이다.》

작가 석윤기에 대해서는 문단의 여러 지면들에서 이미 수차례 소개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반복을 피하고 어디까지나 새 이야기를 쓰려고 내뱉은 노력하였다.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선군시대의 우리 작가들에게 진정한 문학의 세계를 가르치는 석윤기선생을 생각하면서...

## 《생활의 목소리는 힘차다》

주체58(1969)년 11월호이니 벌써 40년전의 잡지이다. 수십년세월과 더불어 어쩔수없이 퇴색해버린 옛 《조선문학》잡지의 한 갈피에서 늘 존경해오는 석윤기의 단상을 보게 되니 솔직한 말로 무엇인가 찌르르 흐른다.

《생활의 목소리는 힘차다》

단상은 그 제목부터가 석윤기그대로이다. 짧고 예리하고 힘있고...

그 몇문장을 꼭 인용하고싶다.

《...그런데 매번 잘하자고 애를 쓰면서도 뜻과 같이 잘 안되는것의 하나가 바로 이 생활을 잘 그리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상을 주인공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토론을 하는 식으로 드러내도 안되며 더구나 작가가 체면없이 독자들의 면전에 직접 나타나서 그 누구를 훈계하는 식으로 해서도 안된다. ... 작가들은 무조건 생활을 통하여 그것을 구현하여야 한다. 주인공의 그 어떤 웅변도, 작가 자신의 그 어떤 화려한 연설도 생활처럼 그렇게 힘찰수 없으며 생활처럼 풍부할수 없으며 생활처럼 감동적일수 없으며 생활처럼 심각할수 없다. 생활이야말로 사람들을 혁명으로 부르는 가장 힘찬 선동가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작품들을 보면 실 생활은 보잘것없이 빈약하고 통탕통탕하는 전투나 눈보라 같은것이 가득하며 또한 어색한 연설이 많다. 왜 이렇게 되는가? 짐작컨대 우리의 일부 작가들이 아직도 자기의 가냘픈 목소리보다 생활자체의 목소리가 비할바없이 힘차다는것을 똑똑히 모르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있는듯 하다.》

혁명적주체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두

고 피력한 석윤기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또 석윤기자신을 본다.

그자신이 바로 그렇게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던가.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봄우뢰》를 창작할 때였다. 그때 작가는 소설의 마감을 이루는 우사령부대와의 담판장면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봉화리의 낡시터에 앉아있었다.

어떻게 쓸것인가?!

그때부터 그는 출장 보름동안을 그런 식으로 낡시대도 드리우고 흥성이는 장기판에도 마주앉으며 《휴식》에만 《전념》하였다.

소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가?!

결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나중에는 제편에서 도리어 안타까와하며 우사령부대와의 담판내용은 이미 잘 알려진 력사적사실로서 구태여 허구를 꾸밀 념려도 없고 펜을 들기만 하면 일필휘지할수 있겠는데 펜스레 시간을 끈다고 서로 하소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마지막 한개 절을 두고 작히 보름을 《허송세월》하는 작가의 궁리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것이다.

바로 그때 작가는 무엇을 무르익히고있었는가.

그는 사실자료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담판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그려본것이 아니라 우리 수령님께서 그 반일부대를 찾아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긴 담판의 서막을 열어놓겠는가 하는 적중한 생활을 찾아내려고 애쓰는중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담판장면에 직방 들어간것이 아니라 우사령부대의 보초막과 보초병, 그를 둘러싼 위대한 수령님과 우사령부대 병사들과의 사전통성장면을 끌어내었다. 평범한 병사들과 순간에 어울리는 친화력, 소탈하시면서도 때로 엄하고 은근히 저력있는 음성, 감시도 아니고 호위도 아닌, 아니 어찌 보면 분명 호위인듯 한 분위기속에서 반일부대병사들이 우리 수령님을 에워싸고 참모부로 가게 되는, 그야말로 참신하면서도 의미깊은 생활장면들의 연속이었다.

칼날같이 선득선득한 기운이 떠도는 담판장에서가 아니라 그 험잡한 초막길에서 반일부대 하층병사들과 자연스럽게 통성하시어 이긴 담판의 서막을 열어놓으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기품이 석윤기의 사색속에서 우뚝이 부각되고있었다.

꼭 보름이 되는 날 아침, 그는 기다림에 은근히 지친 사람들에게 빙긋 웃어보이고는 원고지를 청하였다. 그리고는 단 몇시간동안에 일필휘지로 87매를 넘기였다. 탈고된 원고는 한페지도

수정할 여지가 없이 완전무결한것으로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는 공인된 담판과정과 론쟁위주의 내용을 그대로 앙상하게 그리지 않고 생활로 감싸고 생활로 안반침하였던것이다.

서툰 작가라면 고민없이 직접 뛰어들었을 담판 장면이었다. 그러나 석윤기는 보름정도 침착하였다. 생활, 생활이 필요하였던것이다. 인민대중의 힘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지론에도 부합되고 수령님의 천품과도 련결되는 그러한 참신하고 진실한 생활이...

《생활의 목소리는 힘차다》, 실로 몇번이고 곱씹게 되는 사연깊은 말이다.

## 화를 복으로!

장편소설 《봄우뢰》를 창작할 때였다.

또 한차례 남다른 고심끝에 원고의 초본을 완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료독하던 사람들은 일정한 어느 한 장면을 놓고 론의를 벌리던 끝에 작가에게 의견을 주었다.

차광수의 애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좀 다르게 형상했으면 좋겠다는 비교적 가벼운 의견이었다.

의견을 받은 석윤기는 원고를 가지고 자기의 창작실로 들어갔다.

동무들은 손색없이 완성된 소설에 작은 점만큼 한 부족점이 제기되었으므로 석윤기의 필력이면 순간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들 보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창작실의 문은 점도룩 열리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형광불빛만 더더욱 환할뿐 인기척이 없었다.

(너무 가벼운 흠이어서 한권으로 마저 쓰던 다른 소설에서 펜을 떼지 못했나보군.)

제나름으로 여러 해석들이 말없이 서로 부딪치고있는데 새벽 두시가 되어 창작실의 문이 드디어 열리더니 단 몇시간사이에 지치고 피곤에 쫓긴듯한 석윤기가 걸어나왔다.

그의 한손에는 20~30매되는 원고지가 들려있었다.

동무들이 서둘러 원고지를 펼치니 놀랍게도 거기에는 이미 지적된 부분이 아니라 본래 없었던 새로운 장면이 기름지게 형상되어있었다.

알고본즉 석윤기는 간단히 제기된 한 장면에 대한 가벼운 수정을 한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더욱 두드러지게 훌륭히 내세울수 있는 다른 세부를 창작하여 화를 복으로 급전시켰던것이다. 그러고보니 흠처럼 보이던 장면이 이제는 언제 그랬던가 싶게 끼끗한 얼굴로 두드러져 살아났다.

그때그때 구멍을 메꾸는 식으로 부족점을 고치는것이 아니라 새것을 탄생시키는 창조자의 본분에 맞게 언제나 대범하게 사고하고 발달시키는 그

자세!

한번 마음먹고 형상한 장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보다 훌륭한 높이에서 완성시키는 의무감과 요구성!

이렇게 석윤기의 모든 사건, 모든 세부, 모든 성격들이 새롭고 뜻이 깊게, 알차고 기백있게 태어났다.

동료작가들은 그 허심하고도 요구성높은 대가의 자세에 말없는 경의를 뜨겁게 표시하였다.

## 재속에서도 기어이 불씨를

《대각편집》이라는 말의 속된 의미에 대하여 다들 아는지...

그것은 전혀 초면이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특히 신인들)의 작품을 대할 때 일부 작가들, 편집원들이 첫시작과 중간부분, 마지막부분을 선택하여 읽는다거나, 아니면 원고 한페지를 읽는데 대각선방향으로 《단번에》 읽어버리는 경우를 놓고 비판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렇듯 작품을 처음 보아줄 때 《주인》이 되는 문제가 늘 심각하게 제기된다.

작가 석윤기는 창작에서 대가였을뿐아니라 신인들의 작품을 대하는데서도 역시 대가였다.

어느날 그에게 원고 하나가 전달되었다. 꽤나 두툼한 원고로서 책 보기에다 3천매는 실히 되는 것이었다.

이미 일정한 작가들의 손에서 여러번 읽히운듯 싶었으나 기어코 석윤기에게까지 온것을 봐서는 원고의 주인이 작품의 실패를 두고 못내 가슴아파함을 알수 있었다.

방대한 창작전투속에서 사색의 여지가 없던 석윤기였으나 신인의 원고를 받은 즉시로 그는 자기 원고를 밀어놓고 소설원고의 첫 페이지를 펼치였다.

그때부터 줄곧 며칠간, 그는 자기 작품을 보듯 매 페이지를 자자구구 읽고 사색하고 또 되짚었다.

연필로 밑줄도 긋고 페이지페지를 접기도 하고 크고작은 의문부호, 또 크고작은 반점이나 줄임표들을 적기도 했다.

드디어 석윤기는 환성을 올렸다. 찾고 더듬고 파헤친 며칠간의 사색속에서 마침내 원고를 소생시킬수 있는 하나의 불씨를 찾아낸것이였다.

홍분한 석윤기는 원고의 주인을 찾아 또다시 장시간 마주앉았다. 그는 작품의 우결함을 신랄히 분석하였을뿐아니라 5~6매의 생활세부로 새로운 장편소설을 창작할수 있는 대안을 제기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출로를 찾은 신인작가는 새로운 창작적열정과 목표를 안고 돌아가 기어이 훌륭한 장편소설을 완성하였다.

고심어린 며칠밤!

재속에서도 기어이 불찌를!

석유키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는 원고의 갈피갈피에 살아숨쉬는 신인작가의 꿈과 열정에 대해 생각했을것이다. 원고지의 네모 칸마다에 찍여진 한글자한글자를 기대어린 눈빛으로 느꼈을것이다. 그리고 더우기는 당과 혁명의 요구, 문단의 요구, 후배작가들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할 선배작가의 무거운 의무에 대하여 생각했을것이다.

3천여매의 실패원고속에서 5~6매의 성공적 불찌를 찾아내는 석유키의 비상한 의지력과 재능, 인간적품모는 동료작가들 그리고 후배작가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대각편집》이란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 아닐수 없다.

작가들과 편집원 그리고 교단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나—우리들에게 석유키는 당부한다.

《재속에서도 불찌를 찾아내라》고. ...

## 한그루 나무와 소설가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단편소설 《소나무는 푸르다》.

제목에서부터 푸른 대지, 푸른 소나무와 필생의 연분을 맺은듯 한 작가 석유키의 고상한 취미가 느껴진다.

그리고보면 중편소설 《전사들》에서의 파리세부는 이미 문단이 공인한 성공적형상인것이고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의 서장을 펼쳐도 거기에 뿌리들린 한그루 백양나무에 기울이는 작가의 남다른 정성과 소리없는 눈물이 있다.

일제가 버려놓은 도로공사장에 끌려나와 길을 닦으면서 도끼날이며 삼날에 무참히 찍히고 뿌리들리운 나무들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는 억쇠와 갑수, 부질없는짓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다시 구멍이를 파고 뿌리들린 어린 백양나무를 정성스레 심는 억쇠의 모습은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숨가진 생명체로, 자기의 피와 살점처럼 여겨온 우리 인민의 남다른 애국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도끼날을 맞아 눈물같은 진이 배돌던 나무등결》이라는 생동한 표현은 중편소설 《전사들》에서의 피갈이 라는 파리세부와 함께 강한 정서와 깊은 인상을 가진다.

글끝에 작가의 말없는 초상이 있다.

대줄기같은 피줄이 툭툭 불거진 솔뚜껑만 한 손을 후들후들 떨며 나동그라진 어린 백양나무를 소중히 품어안던 거울진 사나이 억쇠, 불타는 고지에 전우의 넋이 깃든 파리를 옮겨심던 나 어린 전사 박홍규 그리고 박대우, 최두령, 김의식

이들모두가 다 하나의 《석유키》이다.

그렇듯 절절한 향토애, 조국애에 대한 묘사를 그저 간단히 대가로서의 석유키의 재능이 낳은것이라고만 할수 있겠는가.

작가 석유키가 창작활동을 벌리던 4.15문학창작단 구내에는 단뿔나무를 비롯하여 작가들이 심고 자라온 크고작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었다 할 정도로 흐뭇하게 자라고있었다.

그런데 석유키의 운전사에게는 하나의 작은 골치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승용차를 몰고 올라가야 할 구내언덕길에 그사이 우람해진 뽕나무 한그루가 약간 배를 내밀고 참견질하듯 삐죽이 나와있기때문이었다.

경쾌한 속도로 달려오다가도 그앞에서만은 어린애를 넘어뜨릴가 저어하듯 속도를 늦추고 약간이나마 주저하는것은 젊은 운전사에게서 은근히 짜증이 나는 일이었다.

(아예 썩둑 잘라버리는것이 어떻가.)

마침내 이런 생각에까지 다달은 운전사는 어느날 차를 몰고 들어오다가 그 뽕나무앞에서 슬며시 세워놓고 석유키에게 슬쩍 말을 비쳐보았다.

《이래저래 불편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자르는게 어떻습니까?》

《무엇을 자른다고?...》

《이 나무를 말입니다.》

생각없이 되받아넘기는 운전사의 얼굴을 처음보는 사람처럼 찬찬히 여겨보던 작가는 체소한 몸을 폭신한 등받이에 푹—묻으며 《안돼.》하고 잘라말했다. 그리고는 늘 상냥한 운전사에게 너무 못마땅한 대답을 주었음이 미안스러웠던지 인차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그의 어깨를 툭 치었다.

《친구, 말 못하는 나무도 밀등을 잘리우면 피를 토하며 운다네, 마치 두견새처럼 말이지. 자네의 아들애는 한밤 자고나면 한뼘이나 크는것 같다지. 하지만 나무는 몇십년을 자라야 지금처럼 무성해지거든. 자, 슬금슬금 가세나.》

석유키는 차에서 내려 창작단구내의 무성한 《숲》을 부감하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도 그는 푸른 대지, 푸른 소나무, 빨간 파리며 뿌리들리어 눈물흘리던 어린 백양나무를 생각했을것이다.

...

오늘도 그의 벗들은 누구나 다 석유키를 잊지 못해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를 잊지 못해하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우리 문단이 그를 잊지 않고있다. 창작단을 뒤덮은 빨간 단뿔향기속에, 질어가는 의리속에 석유키는 오늘도 창작단구내에서 생활의 교과서를 쓰고있는것이다.

# 나는 불보라를 뿌린다

박 상 민

낮이면 햇빛과 함께  
밤이면 별빛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쏟듯  
나는 불보라를 뿌린다

남흥—가스화공정건설장  
아득한 철탑우에서  
내 피우는 용접불꽃은  
이 땅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씨앗이던가

공장구내에 펼쳐진  
푸른 숲과 그리도 잘 어울려  
멀리서 보면 나의 불보라는  
푸른 아지마다에 뿌리는  
꽃보라같으리

그 씨앗 이 땅에 뿌려  
창조의 강철기둥이 자라고  
그 기둥에 떠받들려  
나의 공장은 또 얼마나 젊어질것인가

그 젊음속에  
대고조의 열풍을 안고  
나날이 새 모습 펼쳐가는  
사랑하는 나의 공장을 위해  
축복의 꽃보라인듯 불보라 뿌리는  
용접공, 내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것은

남흥—  
나의 공장 찾아 사랑의 먼길 오신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어버이모습!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 있어  
나래쳐오르는 열정의 분출인가  
하늘가에 수놓는 보답의 자욱인가

아 낮이면 햇빛과 함께  
밤이면 별빛과 함께  
나는 불보라를 뿌린다  
강성대국으로 가는 걸음걸음  
아름다운 불꽃으로 수놓으며

## 행 복

럼 형 미

행복은 나를 찾아오네  
새 꽃담요를 안고 찾아오는  
합숙관리원어머니  
정다운 그 부름으로

행복은 나를 찾아오네  
푸짐히 차린 생일식탁으로  
떠들썩 나를 이끄는  
식당어머니들  
축복의 그 손길로

행복은 때없이 나를 찾아오네  
땀흘리며 현장에서 째짤이 쓴 시  
신문에 났다고 이 가슴에 안겨주는  
합숙경비원아바이  
진정어린 그 기쁨으로

남흥의 평범한 처녀 나에게  
현대적인 노동자합숙을 안겨주고  
친부모도 따르지 못할 사랑  
날마다 아름답게 안겨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을 꿈에도 그리며

힘껏 일하고  
아낌없이 내 진정 바쳐가며  
강성대국의 비료산  
하늘높이 쌓아가는 나날에

아, 대고조로 내달리는 조국앞에  
남흥처녀 내 뒀을 내놓고싶어  
모대기며 재촉하며 안타까이 뛰는 나날에  
행복은 언제나 찾아오네  
나도 몰래 아름답게

# 무 지 개 비 껴 간 땅 에 서

김 은 희

내 조국땅 그 어디 가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자육이 어리어있는 오늘의 거창한 세월에 나도 취재의 붓을 들고 언제나 그이의 발자취따라 걷고걸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본래가 살아있는 공장, 량만적인 기업소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청천강을 건너 나는 이 기업소앞에 서있다.

과연 나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가, 무엇을 말하게 될가.

## 시대와 더불어 더욱 흥하여야

이 기업소를 찾으면서 나는 공장이름에 무척 신경을 썼다. 그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나를 안내하던 기업소의 한 일군이 단마디로 《원, 기자동무도. 그 의미야 간단하지요. 안주시 남평동에 위치한 흥하는 기업소란 뜻이지요.》 하고 대답해버리는통에 말문이 막혔다.

문제는 다소 익살기어린 그 말이 대번에 나의 마음에 들었다는것이다.

흥하는 기업소라!

정말 기업소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 대명사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생각은 가스화대상공사장을 돌아보면서 더욱 굳어졌다.

남흥,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라할것없이 가스화공정건설공사장을 먼저 떠올린다. 한것은 가스화공정건설공사장이야말로 남흥로동계급의 일본새와 기상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하는 곳이기때문이다.

공사장은 그대로 불도가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셨던 못 잇을 5월의 감격과 환희를 그대로 심장들마다에 간직하고 그이의 현지말씀판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공사장의 숨결도 맥박도 행동도 하나와 같다.

기업소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그대로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것의 하나가 바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가스화대상공사이다.

지난 세기의 70년대 우리 나라 서부지구에 대화학공업기지를 창설할때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몸소 공장터전을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은 기업소가 걸어온 수십년의 발전행정에 그대로 어려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일을 잘하는 좋은 공장이라고 내세워주시었다.

그 믿음, 그 기대에 보답하려는 로동계급의 애국열의가 바로 세대를 이어 오늘날 가스화대상공사장에 차넘치고있는것이다.

남흥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해도 남들에게 손을 내밀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남들이 뛰면 날고 남들이 열을 하면 스물, 백을 하는 사람들, 오직 자신의 힘만을 믿고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도 웃으며 락천적으로 뚫고 헤치는 사람들이며 오직 하나 자력갱생에 습관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남흥로동계급의 품모를 보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몸소 기업소의 터전을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부터 년에 년을 이어가며 흥하는 기업소로 그 이름 나라의 화학공업사에 뚜렷이 새겨왔듯이 오늘날에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락관의 정신 품고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무엇이든 두려울게 없고 어떤것이든 해낸다는 철석같은 각오밑에 더더욱 날을 따라 흥해지고있는것이다.

올해는 변이 나는 해이다.

남흥땅에서도 변이 나고있다.

꿈결에도 그리여마지 않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변이 시작됐고 공장자체의 힘으로 가스화대상공사를 판이 크게 벌리는 큰 변이 창조되고있으며 인민생활의 획기적전환이라는 큰 변을 태동하고있어 선군시대에 나날이 흥하는 기업소로 그 이름 우리 조국 력사의 한 갈피에 뚜렷이 새겨지고있는것이다.

나날이 흥해가는 기업소!

남흥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선군시대와 더불어 더더욱 흥하여야!

## 칠색무지개 령통한 곳

《로동은 노래라네 기쁨이라네》 이 말은 오래전에 나온 대중가요의 한 구절이지만 이곳 남흥청년

화학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하루일을 끝내고 청춘원을 찾으며 즐겨 외우는 낱말이기도 하다.

조국을 위해 흘리는 노동의 성스러운 땀방울의 가치를 폐부로 절감한 이곳 노동계급만이 진심으로 노동의 하루를 마감지으며 이렇게 노래부를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루를 강성대국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의 투쟁으로 빛내인 긍지높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만이 랑만과 희열에 넘쳐 찾는 청춘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흥의 노동계급이 조선식 문화의 본보기를 창조하였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청춘원은 이곳 노동계급의 문화정서생활에 단단히 이바지하고있다.

그 이름도 랑만적인 청춘원은 건물의형부러가 거창한 바다우에 두둥실 떠가는 배모양의 멋쟁이 건물이였다.

건물벽체를 흰눈 덮인 정일봉과 울울창창한 백두밀림을 비롯한 나라의 명산들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로 장식한 청춘원은 어느 모로 보나 손색이 없고 평양의 지하철도와도 짝지지 않을 훌륭한 모양새를 갖추고있었다.

모든것이 황홀경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못 잊을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기쁘시여 크게 만족을 표시하신 수영장으로 달리는 마음을 견잡을수가 없었다.

수영장에 들어서던 나는 그만에야 첫말을 《야!—》하는 탄성으로 떼었다. 무엇이 그토록 장관이었던가.

2층의 건물벽체에 설치된 분수에서 뿜어져나오는 물보라에 유리천정에서 쏟아져내리는 햇빛이 비치여 눈부신 칠색무지개가 수영장 허공에 아름답게 비낀것이다.

야! 멋이면 이런 장쾌한 멋이 어디 있고 풍경이면 이런 이채로운 풍경이 또 어디 있을가.

해썬은 동해가 그대로 옮겨왔는가 물이 어찌나 맑은지 참관 왔던 한 손님이 물면과 바닥을 헛갈려 수영장물에 침병 빠졌다는 재미나는 일화도 듣고 수영이라면 아예 침버덩거리지조차 못한다던 암모니아직장의 한 청년이 헤엄술을 착실히 배워 《잠수함》으로부터 두둥실 파도헤쳐 떠다니는 만능 《배》로 발전했다는 기쁜 이야기도 듣노라니 모든 애기들이 다 여기 노동계급이 자기들이 일떠세운 수영장을 자랑하고싶어하는 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이들이 바로 선군시대 조선식문화의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자기들이 창조한 문화를 자기들이 향유하는것, 이것이 바로 이곳 노동계급이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살며 투쟁하여온 긍지높은 추억인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로 그래서 그날에 훌륭한 건물을 보는것보다 노동자들이 리용하고있는 모습을 보는것이 더 좋다고 그토록 기쁘게 말씀하신것 아닌가.

사시장철 칠색무지개 찬란히 비껴있는 수영장. 나는 여기서 우리 노동계급의 투쟁하는 삶, 아름다운 행복을 보았다.

청춘원 책임자 차성철의 말이 지금도 그냥 잊혀지지 않는다.

《경애하는 장군님 모시고 창조해가는 우리 생활은 언제나 저 무지개처럼 아름다울겁니다.

자연의 무지개는 햇빛이 없으면 사라져버리지만 우리 청춘원의 무지개는 장군님의 사랑의 햇빛속에 영원토록 칠색령롱히 비껴있을것입니다.》

## 미래와 나누신 약속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가.

아니, 이곳 남흥의 노동계급은 자기들의 미래는 어떻게 하는 가정도 세우지 않는다. 그저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는 선군조선의 미래는, 강성대국의 앞날은 더없이 휘황찬란할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삶을 창조해가고있다.

나는 그 미래를 보았다. 여기 청춘원과 나란히 잇달려있는 체육관에서.

청춘원도 특색있었지만 체육관 또한 특이한 건축물이였다.

척 들어서노라니 밀림속에 들어선것처럼 온통 나무의 송진내가 확 풍겨와 숲의 싱그런 냄새를 떠올리게 하였다.

바닥은 참나무, 벽과 관람석은 소나무, 천정은 여러 나무들의 자연적인 색깔과 문양을 그대로 살려 이어붙인 이 나무집은 나무의 결이며 무늬가 얼마나 생동한지 꼭 자연의 드넓은 대지속에 싸여있는 느낌이였다.

이 집안에 흐르는 생활은 또 얼마나 랑만적인가.

한창 노소직장과 암모니아직장간의 배구경기가 고조를 이루고있었다.

《이겨라, 이겨라!》

《야!—》

열띤 부르짖음, 북소리, 팽파리소리... 경기도 경기지만 응원열기가 더 높아 체육경기는 응원에 많이 좌우된다는 말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5월의 그날 너무도 만족하시여 정말 랑만적이라고, 랑만적인 기업소라고 곱씹어 말씀하시였다는 이곳 일군의 말에 직장장도 옆에서 주를 달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우리들의 결승경기를 보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일을 끝내고는 훈련에 열중한답니다.



# 생활의 먼길에 끝이 있는가

김 석 주

생활의 먼길에 끝이 있는가  
사랑과 창조와 투쟁으로 아름다운 삶의 길  
생이 계속되면 그 길이 계속되고  
생이 끝나면 그 길도 끝나는것인가

인생의 먼길을 왔구나  
불같이 뜨겁고 총창처럼 끈게 살자고  
굳게 손잡고 흔들며 헤어진  
생활의 그 시작점으로부터

삶은 결코 짧지 않다  
누구는 선군시대의 병사영웅  
누구는 조국이 아는 돌격대영웅  
금별을 가슴에 안았더라 청춘을, 한생을 불태  
워서

조국에 성실하고 우정에 변함없었기에  
우리 땀땀하고 기쁘게 상봉할수 있었더라  
때로는 엇갈리는 생활의 길 교차점에서  
때로는 신문지면에서, 나라의 대회장들에서

전 장군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로동계급이 창조해가는 미래와 나누  
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군님 남흥의 로동계급과 하신 약속!  
미래와 나누신 약속!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숭엄한 격정  
을 느꼈다.

우리 장군님은 많은 길을 걷고걸으신다. 그 길  
우에서 만나시는 사람마다, 찾으시는 일터마다,  
가정마다 두고가시는 정 한량없이 뜨거웁고 남기  
시는 약속 또한 만사람의 가슴을 울린다.

북변의 공장에 가면 생산이 정상화되면 다시 오  
시겠다는 약속이 남아있고 평북의 전야에 가면 가  
을에 오시겠다는 약속이 못 잇을 그리움을 자아내  
고있다.

하다면 우리 장군님 여기 남흥의 로동계급과 하  
신 약속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할줄 모르는 청춘의 열정과 랑만을 안  
고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영예로운 참전자, 승리자가 되길 바라시는 믿음이  
고 《아버지, 어머니는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무  
엇을 기여했나요?》하는 순진한 눈동자의 아이

생이 끝났다고 끝나는 길이 아니더라  
생이 계속된다고 계속되는 길도 아니더라  
누구는 용사답게 나가 조국위해 생을 바쳤어도  
오늘도 그 길을 가고있다 우리의 추억과 함께

남들이 총진군길에서 헌신할 때  
누구는 저 하나의 안락과 치부를 위해  
오늘도 분주히 뛰며 살아 숨쉬고있다면  
이미 그 길이 끝났더라 비겁하게 산 그날에

어느날엔가 먼 그 시절처럼  
등근 식탁에 다시 모여설 그런 날이 와서  
먼저 간 동무를 못 잊어 추억의 술잔을 든다면  
그는 우리와 상봉의 자리를 함께 하는것

생의 길이와 같지 않은 생활의 길이어  
참답게 살면 죽었어도 계속되는 길  
비겁하게 살면 살았어도 끝나버리는 길  
남긴것이 크면 먼 후세와도 함께 가는 길

생활의 먼길이며, 그끝은 어디인가

들앞에 땀땀이 나서길 바라시는 기대이며 투쟁에  
못지 않게 로동계급의 생활도 훌륭히 향유하길 바  
라시는 따뜻한 사랑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변이  
나는 이해에 더 큰 변을 계속 창조해나가길 바라  
시는, 그래서 우리 조국의 미래가 더더욱 아름답  
고 휘황해지길 념원하시는 크나큰 약속을 이곳 남  
흥땅에 남기시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 이곳 로동계급의 심정도 다들바 없으리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 강성대국의 미  
래와 나누신 약속을 남흥의 로동계급이 꼭 지켜드  
릴 필승의 신심드높이 투쟁해가고있는 오늘이 있  
어 그 미래는 멀지 않았다.

×

나는 남흥땅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느꼈  
는가.

궁지높은 추억으로 가득찬 어제를 보았다.

투쟁으로 벅찬 오늘을 느꼈다.

청춘의 랑만속에 아름답게 밝아오는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였다.



라 광 철  
그 림 김정화

1

조선주둔 일제침략군 사령관이었던 육군대장 고이소 구니아키는 8대조선 《총독》으로 틀고 앉은 후 불원천리 조선의 북단 무산광산에 날아들었다.

고이소는 먼길에 한숨 돌리지도 않고 곧장 인차를 타고 거뭇거뭇한 쇠돌광맥이 웅건하게 펼쳐져 있는 채광장으로 올라갔다. 그는 거창한 쇠돌산악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고이소는 옆에 덩구는 주먹만 한 돌을 하나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해보았다. 비바람과 해별에 산화되어 불그스레해진 품위높은 쇠돌이었다.

《음, 대단하다.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가?》

고이소는 현장주임 우찌다를 돌아보며 물었다.

《현재 탐사된 광량만 해도 십억톤이 넘습니다. 매장량으로 보나 쇠돌품위로 보나 동양에서 이렇게 크고 전도유망한 광산은 없습니다.》

우찌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원숭이같은 고이소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어리었다.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한 〈성전〉을 벌리고있는 우리 대일본제국에 있어서 이런 노다지채광산을 가지고있는것은 큰 행운이다. 전쟁에서 이기자면 뭐니뭐니해도 철이 많아야 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철광석이 그대로 우리의 대포가 되고 군함이 된다는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우리 대일본제국은 전략적의의가 큰 이곳을 중시하고있는것이다.》

고이소는 동행한자들을 둘러보며 력설했다.

일제는 《대동아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

여가자 조선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깡그리 동원하기 위해 광분하고있었다. 놈들은 더 많은 철광석을 약탈해가기 위해서만도 내각에 《철강통제회 조선지부》와 《특수광물증산회》를 조작한데 뒤이어 군수부안에 《무산광산철강과》라는것까지 내오고 총칼을 휘두르며 생산을 다그쳐대고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끌려온 수많은 광부들이 수용소같은 광산에서 하루 12~18시간의 살인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었다.

《그런데 채굴장이 왜 이리 조용한가?》

고이소는 굴착기와 자동차, 채굴기계들이 숨을 죽이고있는 적막강산 같은 채굴장을 이상스럽게 둘러보며 말했다.

《각하, 죄송합니다. 파쇄기에 철물이 들어가는 통에 그만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고이소의 금시 짜늘해진 눈썹이 우찌다의 얼굴로 날아와 박혔다.

우찌다는 한동안 안절부절하다가 사실대로 이실직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각하, 아직 정확한 단서는 없지만 심증팔구 불온분자들의 책동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백두산과 가까운 곳이어서 김일성빨찌산의 공작원들이 제집 드나들듯 하고있습니다.》

《음!...》

고이소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백두산쪽으로 련련히 뻗어간 중중첩첩한 산발들을 킁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불온분자들을 잡아냈는가?》

《हां, 경찰과 〈헌병〉대에서 주목되는 놈들

을 잡아다 죽치고있습니다.》

우찌다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명심하라. 여기서 생산되는 철광생산에 따라 <대동아전쟁>의 운명이 좌우된다는것을 알고 대일본제국의 철광생산에 지장을 주거나 태공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처형하라! 조선놈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불온한 기미를 보이는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려라!》

고이소의 톱 불거진 눈에 살기가 번뜩이었다.

두볼에 털이 부시시 나고 검은 코털까지 항상 빼죽이 내밀려있어 성성이같이 보이는 고이소는 조선 《총독》으로 들어왔은 후 무고한 조선인민을 탄압학살하고 조선의 자원을 약탈하는데 야수처럼 날뛰고있었다. 이자는 담을 키운다고 하면서 조선 어린이의 심장과 간까지 빼내어 술안주로 삼아먹은것으로 하여 그 원성은 구천에 사무쳐있었다.

고이소의 행각이 있는지 얼마 안있어 광산으로는 술한 인부들이 또 《징용》과 《보국대》로 끌려왔다. 또한 기능공출신의 일본병졸들과 장교들까지 소환하여 광산으로 들이밀었다. 선광장 산봉우리우에는 고사총까지 설치하고 군대와 《헌병》, 경찰들이 증강되어 광산에는 그야말로 살벌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 2

광산의 반일지하조직책임자인 김창석은 지금 서곡계단의 조광구역의 고장난 굴착기를 수리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가고있었다. 그의 마음은 개운칠 못했다. 며칠전 누군가 구내식당에 《천황 폐하 빠가(바보)!》라는 글을 써놓은 사건이 일어나 놈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무리로 잡아가두고 모진 고문을 들이대고있었다.

창석은 놈들의 폭압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조직의 력량을 보호하고 투쟁을 벌려나가야 할것인가 생각하고있었다.

어느덧 현장에 이른 창석은 뜻밖의 광경에 부딪쳤다. 왜놈감독, 십장놈들이 모여들어 굴착기운전공을 끌어내려 피투성이가 되도록 못매질을 하고있었다.

《야 이 개자식, 비상시국에 사고를 일으키고 무사할줄 알았어? 죽어라, 죽어!》

감독과 십장놈들은 태반이 일본에서 살인과 깡패질로 살아가던 놈들을 광부들을 다스리기 위해 끌어온자들이었다.

이때 광석을 실으러 왔던 대형차운전사가 뛰어 내려 놈들에게 달려가더니 무작정 한놈을 보기 좋게 벽돌장같은 이마로 힘껏 받아넘겼다. 그놈은 비명소리를 지르며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그러자 놈들은 그 운전사에게로 왁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운전사는 주먹질에는 꽤 솜씨가 있다

고 자처하는 그놈들과 혼자서 여유작작하게 맞섰다. 그는 바람을 휘휘 일으키며 달려드는 놈들을 갈겨댔다.

놈들은 그제서야 그가 보통 싸움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상처입은 이리떼마냥 욱옥 이발만 갈며 서뿔리 덤벼들지는 못하고 그를 에워싸고 빙빙 돌기만 했다.

이때 싸움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은 광부들이 욱 밀려왔다. 놈들은 그들의 격한 기세에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개자식!》

놈들은 달아나면서도 살기찬 눈을 희번덕거리며 지껄었다.

김창석은 쓰러져있는 굴착기운전공 남차송을 안아 일으키고 목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남차송은 창석을 보자 피멍이 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창석은 순간 남차송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것을 직감했다. 남차송은 조직성원이었다. 그는 조직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투쟁열의가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창석은 지금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불만을 금할수 없었다. 조직성원으로서 조직의 지시도 없이 제 감정이나 생각대로 하는것은 조직규률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자그마한 일로 하여 조직을 로출시킬수 있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도 있었다.

《예익 개자식들,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다니!》

대형차운전사 박기만이 다가와 격분을 터쳤다.

《김형! 우리 조선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하오? 우리도 한번 본때있게 싸워보지요. <형제계>는 이런 때 도대체 뭘 하오?》

그는 주먹을 쥐어흔들며 열변을 토했다.

광산에서 창석은 합법적인 친목단체인 《형제계》 총수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형제계》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서 반일지하조직이었다.

창석은 한동안 박기만을 지켜보다가 덤덤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주먹질이나 한다고 왜놈들이 망할것 같소? 그러단 콩밥신세나 지게 될거요. 그리고 우리 <형제계>는 그 누구와 싸우자고 있는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자고 있는것이요.》

박기만은 순간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다시 열을 올리며 말했다.

《흥, 난 <형제계>의 총수인 김형을 조선사람의 열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는 보지 않소. 나를 믿지 못해 그러는것 같은데 섭섭하오. 나도 이 가슴에 왜놈에 대한 원한을 안고사는 사람일세!》

그는 김창석에게 날카로운 눈총을 겨누었다가 획 돌아서 가버렸다.

창석은 멀어져가는 기만의 뒤모습을 말없이 주시해보다가 담배를 붙여물었다.

남차송은 담배만 피우고있는 김창석을 야속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박기만이라든가 같은 저런 결핵있고 호절다운 사나이를 조직에 받아들이는다면 큰 일을 할수 있을것이 아닌가. ...

박기만이 광산에 온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그는 벌써 광부들속에서 《만주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만주에서 일제에게 가족을 다 잃고 어느 광산에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못되게 노는 왜놈감독놈을 때려눕히고 달아나왔다고 한다. 그러니 그에게는 일제에 대한 원한이 뼈속깊이 사무쳐있을것이였다.

남차송은 어느날 후야근때 기회를 보다가 박기만의 차적재함에 큰 거석덩이를 실어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히죽이 웃으며 안심하라는듯 손까지 내흔들었다. 그날 그것을 락광정에 쏟아넣은것으로 하여 급광기가 멎어서고 생산은 한나절이나 멎게 되었다. 박기만은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비밀로 지켜오고있었다.

남차송은 박기만이라든가 지내볼수록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 그를 조직에 받아들이자고 여러번 제기했으나 김창석은 좀더 두고보자고만 했다.

《형님, 우리가 아까운 사람을 외면하는게 아니요?》

사람들이 다 헤쳐가자 남차송이 이 기회에 다시 말했으나 창석은 여전히 아무말도 없었다.

싸움이 붙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던 조태봉이 남차송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한마디 했다.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구 조금해 말게. 물은 제값으로 흐르기 마련이지런.》

조태봉이도 《형제계》의 성원이였다. 채굴장에서 전공으로 일하고있는 그는 몸집이 체소하고 별로 말이 없는 내성적인 사람이였으나 이따금 한마디씩 씨가 박힌 말을 하곤 했다.

김창석은 사실 박기만의 일거일동을 그 누구보다 눈여겨 주시해보고있었다. 그의 행동이나 한마디한마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으나 어쨌든 그를 마주할 때면 이상한감이 들곤 했다. 방금전 그가 싸우는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는 분명 어디서 전문격술훈련을 받은 사람같이 보였다. 또한 그의 대담성과 배짱이 타고난 성격인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인지 잘 알수 없었다.

창석은 더우기 광산의 지하조직망을 들추어내기 위해 놈들이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 조건에서 신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빠-엑!》, 《빠-엑!》

정광을 실은 렬차가 짐승의 울부짖음같은 소리를 지르며 산기슭을 따라 뻗어나간 철길로 빠져나가고있었다.

김창석은 서늘한 눈길로 렬차를 쏘아보다가 걸음을 옮겨 쓰리골쪽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 그곳에서 한철수와 만나기로 약속되어있었던것이다. 한철수는 말파리를 끌고 무산지구와 두만강너머를 다니며 《장사》를 하고있었다. 《한말파리군》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가 배개통만 한 돈뭉치를 가지고있는 대단한 장사군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사실 한철수는 장사군이 아니라 무산지구의 반일지하조직들을 지도하고있는 유격대공작원이였다. 김창석이도 한철수의 영향하에 광산의 사지판에서 서로 마음을 의지하고 고락을 함께 하는 《형제계》사람들을 중심으로 조국광복회지하조직을 꾸리고 활동하고있었다.

그는 광산에 조성된 정세와 조직의 활동정형보고를 가지고 사령부를 찾아갔던 한철수를 한시바삐 만나고싶은 충동에 끌려 걸음을 다그쳤다.

쓰리골어구에 이른 창석은 뒤에 꼬리가 달리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비밀밀영이 자리잡고있는 산으로 접어들었다.

어느덧 어둠이 깃든 숲속길은 굴속같이 캄캄했다.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푸드득 깃을 치며 보급자리에 들었던 이름모를 산새가 꺽꺽 소리를 지르며 날아올랐다. 그러자 고요하던 숲속의 여기저기서 놀란 새들의 울음소리가 귀청을 멍멍하게 만들었다. 창석은 혼자 싱긋 웃으며 휘파람으로 《호르륵 쪽쪽》 하고 같이 새울음소리를 냈다.

그가 밀영에 도착하니 한철수가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창석은 한달음에 달려가 한철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한철수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 건강하십니다.》

창석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한동안 이윽히 서있었다.

《창석동무, 장군님께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무들은 우리의 귀중한 혁명동지들이라고 하시면서 전번에 철봉에 나갔을 때 만나보니 창석동무가 위병으로 고생을 하고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고 따뜻이 물어주시었소.》

《장군님께서요?!》

창석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몇해전 무산지구에 진출하시어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장군님께서는 무산지구의 조국광복회지하조직책

임자들을 만나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때 창석이 위병을 앓고있다는것을 아시고 혁명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던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마음쓰고계시는것이였다.

창석은 자기와 같은 이름없는 전사들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아껴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에 금시 뛴어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은 귀틀막에 광술불을 지펴놓고 마주앉았다.

《창석동무, 장군님께서서는 이곳 조직의 활동정형과 광산형편을 보고받으시고 지금 멸망에 직면한 일제는 더 많은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처날뛰고있다고 하시면서 무산광산과 같은 전략적의의가 큰 곳에서 생산을 저지파탄시키고 전민항쟁준비를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창석의 두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지금 일제가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미처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멸망을 앞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가 강화될수록 적극적인 공세로 맞서야 한다. 그러자면 광부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워 조직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일제의 군수생산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적극 벌리고 그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단련시켜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전민항쟁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의 야수적탄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주시었다.

창석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앞이 확 트이였다. 그는 적들의 발악적인 반혁명적공세앞에 전전긍긍하며 올바른 투쟁방도를 찾지 못하고있던 자신이 민망스럽게 그지없었다.

《이제 됐습니다. 적들의 폭압이 아무리 사나와도 우리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철수는 신심에 넘쳐있는 창석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걱정애 넘쳐 말했다.

《웁소, 우리는 그 어떤 난관이 막아서고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장군님만 굳게 믿고 따르면 그 어떤 간악한 원수도 쳐부시고 반드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오.》

광술불이 점점 세차게 타오르며 귀틀막안을 더한층 환히 밝혔다.

창석은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로 살며 싸우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그들은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 때까지 새로운

투쟁계획을 세워나갔다.

그날 창석은 한철수에게 조직선을 통해 박기만의 래력을 알아줄것을 부탁했다.

#### 4

북방의 봄은 계절을 늦잡다가도 급작스레 찾아들곤 했다. 춘분이 지난 엿그제까지만 해도 맵쌀날씨가 기승을 부리며 나무가지마다 서리꽃을 피워놓더니 어느새 산과 들에 파란 새싹들이 움터나고있었다.

광산과 마을사이로 흐르는 성천수기슭의 고리버들숲에는 벌써 버들개지가 통통 살이 올라 다래알만 해졌고 버들눈마다에 뽕족뽕족 내뿜은 반질반질한 파란 새싹들이 석양빛에 록보석처럼 반짝거렸다.

창석은 버들가지를 한가치 꺾어 솜털이 보르르한 버들개지를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싱그러운 향기가 가슴을 뭉클 적셨다.

봄, 봄이였다. 준수한 그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이해의 봄과 더불어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것이다.

창석은 한동안 광산구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서있었다. 광산구내로는 구내기관차들이 칙! 칙! 검은 석탄연기를 숨가쁘게 내뿜으며 분주히 오고갔고 선광장에서는 마광기소리가 꾸룽꾸룽 울려왔다.

그는 철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변전소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고압선들이 채굴장과 선광장을 비롯한 여러곳으로 혈맥처럼 뻗어나가있었다. 저 변전소만 날려버리면 광산의 숨통을 끊어놓는것이나 같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왜놈수비대원들이 철통같은 경비진을 치고 조선사람은 그 근방에 아예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다.

창석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조성된 정세에 맞게 광부들을 불러일으키고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모색하고있었다.

성천수다리를 건너 거리에 들어선 창석은 누군가 자기를 찾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김형, 무얼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기에 부르는 소리도 못 들소?》

캡을 눈썹까지 눌러쓴 박기만이 히죽이 웃으며 다가왔다.

《아, 박형이요.》

창석이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다.

《참 전번엔 안됐네. 격한김에 〈형제제〉의 총수인 자네에게 할 말 못할 말 다한것 같은데 랑해하게.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오늘 한잔 내렸으니 우리 저 〈춘망루〉에 들러 한대포 하세나.》

그는 창석의 팔을 잡아끌며 말했다.

《아니 이러지 말게. 내 그런 말마디나 물어두고 사는 그리 웅졸한 사내는 아닐세.》

창석이 웃으며 험거롭게 말했다.

《여하튼 우리 한대포 나누며 이야기나 좀 하세나.》

창석은 딱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늘 조직성원들과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기로 했던것이다. 그렇지만 않으면 이런 기회에 박기만을 좀더 깊이 알아보고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고맙네만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 그러니 후에 우리 한번 허리띠를 풀어놓고 마셔보세.》

그러자 박기만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 김형한테 꽃같이 고운 색시가 있다더니 폭 빠진 모양이구만. 하하, 그럼 어서 가보게. 나 같은 놈은 누가 반갑게 맞아줄 사람도 없으니 이 고독한 심신을 저 술집에나 가서 푸는수밖에 없지.》

그는 가느다란 한숨까지 내쉬었다. 애수에 잠긴듯 한 그를 보자 창석은 호방한 성격의 저 사람에게도 저럴 때가 있는가싶었다. 그는 요즘 창석이뿐아니라 《형제제》사람들과 무척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있었다.

일점혈육도 없이 타고장에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신세라 그럴수도 있었다. 친지가 없고 벗이 없는 인생만큼 쓸쓸한것은 없는것이다. 그가 실지 일제에게 처자를 다 잃고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이라면 조직에서도 웅당 관심을 돌려야 할 대상이었다. 일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조선사람 모두가 장군님을 따르는 하나의 형제가 되어 조국해방을 위해 싸워나가자는것이 《형제제》조직의 근본이 아닌가.

집에 오니 그의 처 강순금이 마당앞까지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형제제〉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는 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창석의 옆구리에 끼고있던 빈 밥곽을 받아들었다.

《그렇소?!》

창석이 미소하며 순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잔치를 치른지 한해가 되었는데도 순금은 여전히 숫저운 티를 가시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창석을 남편으로뿐아니라 은인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창석이와 순금은 한마을에서 살았지만 서로 남다른 관계가 없이 지내오고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이맘때였다. 동네 누구네 집에선가 울려나오는 곡성소리가 온 마을을 침울하게 만들었다.

《누가 또 죽었는가요?》

창석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광산마을에서는 불상사로 사람이 죽는것쯤은 보통일처럼 빈번했다.

《죽었으면 명복이라도 빌지 않겠니?!》

어머니의 한숨섞인 소리였다.

《그건 무슨 소리에요?》

창석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저 건너집 순금이가 〈정신대〉인지 〈위안부〉인지 하는데로 끌려가게 됐다누나. 애지중지 키운 딸을 죽기보다 못한 곳으로 보내야 하니 어휴,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니. 아까 순금이가 목숨을 끊겠다고 저 개바위에서 두만강물에 뛰어들것을 건져내왔다누나.》

어머니는 남의 일갈지 않은듯 눈굽에 저고리고름을 가져갔다.

순간 창석은 자신의 몸이 단근질을 당하는듯 했다. 그의 상혈된 얼굴에는 금시 그 무엇이라도 들부실듯 한 격노한 빛이 어렸다.

《왜놈의 새끼들! 조선의 자원을 략탈해가다 못해 이제는 처녀들까지... 에익!》

그는 돌덩이같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쿵 내리쳤다. 구름노전밑에서 흩먼지가 폴썩 일었다.

《어머니, 나 장가들겠어요!》

창석이 불이 이는듯 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창석의 말에 한순간 어정쩡해졌다.

《어머니만 허락하신다면 오늘중으로 순금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옵시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의 그 마음을 알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한동안 사려깊은 눈으로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건장한 체격에 이목구비가 준수하고 인정이 깊은 아들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눈길을 끌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딸자식을 가진 여러 집들에서 매파를 보내와도 왜놈들이 망하기 전에는 장가를 안 간다며 장가들 생각은 하지 않고있던 창석이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사나이다운 그 의로운 마음에 머리를 끄덕였다.

《애야,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남의 불행을 강건너 불보듯할수야 없지. 그럼 그 집 의향을 물어보고 왜놈들이 어찌지 못하게 보란듯이 잔치를 하자꾸나.》

이렇게 되어 그들은 결혼을 했던것이다.

순금이라도 후에는 창석의 영향하에 조직성원으로 되었다. ...

창석이 방에 들어서니 무슨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있든 얼굴마다에 웃음이 가득 어려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구만.》

창석이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태봉동무의 고향에서 처가 아들을 낳았다는 편지가 왔수다.》

조태봉의 옆에 앉아있던 굴진발파공인 김초성이 흥에 겨워 말했다.

《그렇소?! 정말 희소식이구만!》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은 하던 창석의 얼굴에도 대번에 미소가 피어났다.

희색이 만만해있던 조태봉이 창석에게 고향에서 온 편지를 보이었다.

《...이제 백날이 되면 어떻게 하나 사진이라도 한장 찍어보내겠어요. 마을사람들은 아기의 두드러진 이마며 눈, 코, 입까지 다 당신을 닮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빨리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곳에서 우리를 친혈육처럼 도와준 그 고마운분들과 함께 좋은 이름을 하나 지어보내주세요. 부모친척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분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나요. 마음같아서는 한달음에 달려가 인사를 올리고싶어요. 이제는 저도 밝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당신의 그 편지에서 힘을 얻고 힘겨워도 하루하루를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있어요. ...》

창석은 태봉이 안해의 편지에서 일제의 가혹한 폭압속에서도 **김일성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태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곳곳이 살아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보는듯 했다.

《창석동지, 어서 이름이나 하나 지어주시우.》

태봉이 창석을 보며 말했다.

《아니, 이름이야 아버지가 지어야지.》

창석은 태봉의 어깨를 정답게 툭 치며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귀인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 복을 받는다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던 저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참다운 인생길을 걷도록 이끌어준 창석동지를 친형님처럼 생각하고 하는 말이니 동지들과 함께 좋은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오. 나한테 〈형제계〉가 없었더라면 절망속에 몸부림치다가 죽고말았을겁니다.》

조태봉의 절절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르하게 했다.

창석은 문득 어느 비내리는 날 밤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있던 태봉을 집에 업어오던 일이 떠올랐다.

...한밤중에 창석의 집에서 깨어난 그는 흐리멍덩한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몹시 미안스러워했다.

《고맙수다. 아무 인연도 없는 이 주정뱅이같은 놈을 이렇게 살려주어서...》

그들은 광산에서 일하면서 그저 얼굴이나 알고 있는 사이였다.

《별소리를 다 하누만. 자네같으면 객지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겠나. 그런데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나. 예로부터 물에 빠져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데 주의해야겠네.》

창석이 아직 술에서 깨어나지 못한듯 머리를 찌르고있는 태봉의 정상을 보고 한마디 했다.

《나같은 놈 구점스럽게 오래 살아선 뭘 하겠소. 그러다 죽으면 더 편하우다.》

태봉은 그러면서도 버림받는 버럭돌같은 자기의 인생을 걱정해주는 창석의 그 인정에 그만 두눈을 습벅거렸다.

창석은 그를 이윽히 바라보다가 날이 시퍼렇게 선 사냥군칼 같은것을 내주었다.

《옛네. 자네 몸에서 떨어진것일세. 그런데 이런건 거리에서 왜 가지고 다니나?》

창석은 무슨 사연이 있는듯 하여 물었다.

태봉은 창석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두눈에 불씨를 튀기며 말했다.

《우찌다현장주임놈을 죽이려고 하우다.》

《우찌다를?!...》

창석은 저으기 놀라운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렇수다. 난 고향에 의지가할데 없는 것결혼한 처를 홀로 남겨두고 끌려온 놈이웨다. 그런데 며칠전 고향에서 소식이 왔는데 빗값에 집까지 빼앗기고 남의 집 결방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기막힌 소식이였수다.

내 그래서 우찌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밀린 임금이라도 좀 받아볼가 해서 찾아갔는데 그놈은 조선놈들은 게을러서 못산다고 하면서 어서 가서 일이나 하라고 개처럼 내쫓지 않겠소.

나는 너무 억울하고 앞이 캄캄하여 이렇게 노예처럼 살바엔 그 악독한 우찌다놈이라도 죽여버리고 나도 끝장을 보자고 오늘도 길목을 지키다가 헛물을 켜고 화술만 마셨수다.》

척 보기에는 온순하고 어질어보이지만 한 그의 가슴에 그런 울분과 비장한 마음이 끓고있을줄이야! 그러나 태봉은 자신의 운명을 구원할 길을 너무도 모르고있었다. 하여 그는 지금 자기의 목숨마저 바다물에 돌던지듯 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사실 김창석이 자신도 장군님의 투쟁로선을 받아안고 혁명에 나서기 전에는 바로 그랬었다. 창석은 울분에 싸여있는 태봉을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태봉이, 우찌다 한놈이나 죽인다고 해서 가슴에 쌓인 원한이 다 풀릴것 같나?》

그리구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값없이 내던지려 해서는 안되네. 살아서 싸워야 하네. 싸워서 왜놈들이 망할 날을 봐야 할게 아닌가.》

《싸운다구요?! 어떻게요?! 형님, 방도만 대주시우. 그럼 내 그놈들과 피를 물구 사생결단으로 해보지요.》

태봉은 주먹을 부르쥐며 창석이앞으로 다가왔다. 창석은 그러는 태봉을 웃음짓고 바라보았다.

《됐네, 진정하라구. 그 일은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구 당장은 자네 처를 살릴 방도를 찾아보자구. 〈형제계〉사람들이랑 함께...》

《〈형제계〉요?!...》



《다들 왜놈들과 싸우자면 서로 뭉쳐서 힘을 합쳐야 하네.》

태봉은 창석의 웃음어린 얼굴을 한동안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창석은 우선 《형제계》 조직성원들과 힘을 모아 얼마간의 돈을 마련하여 조태봉의 고향에 보내주었다. 그후 차츰 그를 《형제계》에 받아들여 혁명적으로 각성시켜 오늘과 같이 성스러운 길을 걷게 했던것이다. ...

창석은 그새 몰라보게 성장한 태봉을 가슴뜨겁게 바라보며 말했다.

《태봉동무, 우리모두가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암흑의 세상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말았을거요. 그럼 우리 장군님의 뜻을 더잘 받들어 조국해방의 성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밝은 세상에서 살아나가라는 의미에서 아기의 이름을 광명이라고 짓는것이 어떻소?》

《조광명! 거 참 이름이 좋구만!》

《해방된 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의 미래란 말이지. 정말 멋있소!》

《형제계》의 동지들이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강순금이 방 한가운데 술상을 차려놓았다. 그는 조직의 모임이 있을 때면 《형제계》 사람들이 술놀이를 하는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곤 했던것이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 망을 보았다.

모임이 시작되자 김창석은 승엄한 표정을 짓고 조직원들을 다시금 둘러보며 말했다.

《동무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활동을 보고받으시고 새로운 투쟁과업을 제시해주시었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조직원들은 뜨거운 격정에 가슴을 들먹이며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광부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놈들의 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벌리자고 합니다.》

김창석은 곳곳에 빼라살포투쟁과 정광렬차전복, 변전소를 비롯한 광산의 주요설비들에 대한 파괴를 동시에 일으켜 놈들의 전시철광석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기 위한 작전을 토론에 붙여었다.

김초성은 영치를 들썩거리며 흥분하여 말했다.

《이번에 우리가 이미 마련해놓은 폭약으로 아예 선광장까지 다 폭파해버리고갑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조태봉이 그를 힐끔 쳐다보며 마치 동생을 타이르듯 웃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야 있나. 이제 왜놈이 망하고 조국이 해방되면 그것이 다 우리의것으로 될텐데 아예 다 마사놓으면 그때 가서 무얼 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하겠나.》

김초성은 억실억실한 두눈을 껌벅거리며 태봉을 마주보더니 자기의 이마를 탁 치며 통쾌하게 웃었다.

《정말 그렇지. 역시 광명이 아버지가 다르구만, 하하.》

김초성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쳤다.

창석은 매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나서 말했다.

《설비들을 파손시키거나 철차를 전복시키는 일은 기본적으로 방도가 명백한데 문제는 변전소요. 그곳엔 경비가 심한데다 왜놈들만 근무하고있으니 접근하기가 매우 힘드요.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묘안들을 좀 생각해보오.》

침묵이 흘렀다. 신통한 방도가 잘 떠오르지 않는듯 서로 얼굴들만 마주 쳐다보았다. 속수무책으로 시간이 흐르자 김초성은 가슴이 답답해나는듯 웃기를 터쳐놓으며 비장한 결심을 터쳐놓았다.

《뭐 지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할 각오로 화약을 한배낭씩 지고 여럿이 불의에 육탄으로 뛰어들면 그까짓 변전소 하나 날려보내지 못하겠습니까?》

《웁소. 결사대를 조직하여 목숨을 내걸고 합시다.》

남차송이 주먹을 부르쥐고 호응해나섰다.

창석은 머리를 저었다.

《그건 모험이요. 희생만 낼수 있단 말이요. 우린 목숨을 바쳐도 값있게 바쳐야 하오.》

《그렇다고 무슨 방도가 없지 않습니다. 땅밑으로 굴진해들어갈수도 없고 하늘로 날아들어갈수도 없구 참.》

김초성은 난감한 기색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때 쌍까풀진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제 혼자 무슨 생각에 골몰해있던 조태봉이 갑자기 창석의 손을 잡아흔들며 소리치듯 말했다.

《창석동지, 변전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변전소를 파괴할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변전소에서 가까운 철탑우에 올라가 고압선을 합선시켜놓으면 변압기가 파괴될수 있습니다.》

조태봉은 그 가능성에 대해 흥분하여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의 기발한 생각에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창석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그는 동지들의 지혜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능히 수행할수 있다는 확신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 행동하겠는가 하는것이요.》

《뭐 시간을 끌게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래일이라도 당장 해야지요.》

성미급한 김초성이 또 엉치를 들썩이며 말했다. 김창석은 이미 생각하고있던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제 며칠 있으면 왜놈들이 큰 명절로 쇠고있는 악명높은 〈천황〉 히로히도의 생일인 〈천장절〉이요. 그날 놈들은 여러가지 〈기념〉 놀음들을 벌려놓을것이요. 그래서 우린 그날 침략전쟁의 피수인 히로히도에게 우리의 생일 〈선물〉을 마련해주자는거요.》

《아, 그게 참 좋겠습니다. 〈황국신민〉을 부르짖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도리〉를 응당 지켜줘야지요. 하하.》

창석은 그날 거리에 베라를 뿌리는 일까지 구체적으로 조직사업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직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사소한 자의적인 행동도 엄금할데 대해 강조했다. 만약 남차송이와 같이 조직의 지시도 없이 제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전반적인 행동에 예측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심각히 이야기했다.

## 5

《천장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었다.

창석은 매 조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대상들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여 빈틈없는 행동계획들을 세우도록 했다. 모든 대상들에 대한 행동계획이 면밀히 타산되고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창석은 마음의 탕개를 늦출수 없었다. 그는 있을수 있는 불의의 정황들을 타산해보며 행동방안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보곤 했다. 또한 놈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주시했다.

날과 날은 베사롭게 흘러가는데 했다. 산기슭에는 하루가 다르게 진달래가 불길처럼 타오르고있었고 하늘에서는 노고지리가 지저귀기 시작했다.

창석이도 어느날과 다름없이 집을 나서 채굴장으로 스택스적 걸어갔다. 채광장으로 올라가는 인차장입구에 이르자 인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채광말보따리》의 말을 재미있게 듣고있었다. 밥을 한끼 못 먹어도 말을 잠시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채광말보따리》라는 별명까지 붙었던것이다.

《어제 말일세. 현장감독놈이 점심을 먹으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밥곽을 쥘버리고 달아나질 않겠나. 염장조각에 목이 깔깔한 수수밥을 먹고있던 난 저놈들은 배때기에 기름이 지니 흰쌀밥도 먹기 싫은 모양이구나 하구 생각하다가 예라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가 했지. 그래서 그 흰쌀밥곽을 널름 집어들었는데 아 글썽 그 밤에서 구린내가 물씬 풍기질 않겠나. 그래서 그 영문을 알아보았더니 글썽 현장으로 밥곽을 나르는 그 꼬마가

감독놈의 밤에 방귀를 끼고 덮어놓은것이 그렇게 지독한 구린내가 배여있질 않았겠나. 그런것도 모르고 그 감독놈의 밤에 군침을 흘리다가 글썽 구린내만 맡았다니. 허 참, 내 더러워서.》

《하하하.》

《채광말보따리》의 말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덜커덩 덜커덩 레루를 구르며 인차가 내려왔다. 사람들이 인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창석이도 인차에 오르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형님!》

김초성이었다.

《응, 자넨가. 어서 오르자구.》

《형님, 나 좀 보자요.》

그는 인차가 떠나려는것은 아랑곳없이 김창석을 조용한 곳으로 잡아끌었다. 그의 얼굴은 어느때없이 사색이 되어있었다. 창석은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형님, 어제 밤 남차송이 경찰에 잡혀갔답니다. 경찰서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우리 옆집아이가 오늘 아침 말합디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뭐요?!》

창석은 온몸이 긴장되었다. 당장 거사를 앞두고 남차송이 붙잡혀갔다면 이건 비상사고였다.

《도대체 왜 잡혀갔다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제 밤 박기만이와 같이 잡혀갔답니다.》

《박기만과 같이?...》

창석은 불안감이 점점 가슴깊이 스며들었다.

무엇때문일까? 전번 굴착기고장사건때문인가. 아니, 남차송이 고의적으로 고장을 일으킨것은 나 밖에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언젠가 박기만의 차에 거석을 실어보내어 급광기가 멎게 한 일때문일까. 아니, 그런것 같지도 않다. 여하튼 박기만이와 련관된 일 같은데 도저히 가슴이 가지 않았다.

박기만?!...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창석은 《한말파리군》에게서 그에 대한 소식이 오기를 몹시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다. 그는 《한말파리군》이 한시가 새롭게 기다려졌다. 놈들이 우리 《형제계》의 그 어떤 다른 념새를 맡았다면 조직원들을 빨리 피신시켜야 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천장절》날 행동계획을 변경시켜야 했다.

창석은 정신을 가다듬고 맹렬히 추리분석해보았다. 적들이 《형제계》에서 지하조직의 념새를 맡았다면 남차송이만 잡아갈수 없는것이다. 그러니 아직 서둘러 움직일 필요는 없을것 같았다.

창석은 모든 조직성원들이 일단 다른 정황이 생

기면 신속히 찌리꿀비밀밀영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까지 다른 정황은 생기지 않았다. 집에 들어선 창석은 마중나온 안해의 얼굴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오늘 집에 별다른 일은 없었소?》

《없었어요. 저, 오늘까지 빠라는 다 준비해 놓았어요.》

순금은 은근히 창석의 칭찬을 바라는듯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빠라가 지금 어디 있소?》

창석은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저 장동숙에 감추어놓았어요.》

《음, 그걸 다른 곳에 더 깊숙이 감추어야겠소.》

순금이 남편의 어느때없이 근엄해진 얼굴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제 저녁 남차송이 놈들에게 잡혀갔소.》

《예?! 무엇때문에요?》

순금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다.

《아직 잘 모르겠소. 경각성을 높여야겠소.》

창석이와 순금이 만약을 생각하여 집안에 무슨 단서가 될만한 한것들을 한창 치우고있는데 문득 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바짝 긴장하여 숨을 죽이고 밖의 동정을 살폈다.

다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순금이 창석의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어서 뒤문으로 피하세요. 여기 일은 내가 처리하겠어요.》

아련해보이기만 하던 순금의 얼굴에 도담한 빛이 어렸다. 창석은 한순간 생각에 잠겼다가 천정우에 숨겨놓았던 권총을 꺼내들고 말했다.

《괜찮소. 어서 나가 문을 여오.》

순금이 마음을 다잡고 밖으로 나갔다.

《누구세요?》

기척이 없었다. 대문앞까지 다가선 순금이 다시금 물었다.

《밤중에 누구세요?》

《형수님, 접니다.》

《아니?!》

순금이 급히 대문을 열었다.

남차송이었다. 순금은 대문밖을 살피고 문을 닫았다. 남차송이 집으로 들어가자 그는 대문가에서 감시를 했다.

김창석은 것처럼 마음을 긴장시켰던 남차송이 이렇게 불쑥 나타난것이 너무도 뜻밖이어서 한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다.

남차송은 자리에 앉자 담배를 한대 붙여물더니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내 참 어처구니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यो?》

창석이 사연을 물었다.

《아 글썄 었저녁 퇴근하는데 박기만이 술이나 한잔 마시자구 자꾸 손목을 잡는통에 할수없이 따라섰는데 재수없이 길거리에서 술을 잔뜩 처먹은 왜놈들과 맞다들지 않았겠소. 그속에 전번 박기만 이와 싸운 감독체들도 있었는데 그놈들이 덤벼드는통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경찰들이 달려와 다짜고짜 우리를 잡아가지 않겠소. 그래 공연히 류치장신세를 하루 졌지요.》

숙이 까맣게 타있던 창석은 그 말에 어이가 없었다.

《류치장안에서 다른 일은 없었소?》

《예, 박기만이만 닥달질하느라고 끌어내갔다 오고는 뭐 난 매만 몇대 치고는 별로 건드리지도 않습디다.》

남차송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박기만이와 무슨 다른 이야기한것은 없소?》

그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아 다시 물었다.

《뭐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어제 못 마신 술을 <천장절> 날 기껏 마시자고 하길래 그까짓 왜놈들의 명절날 술마실 생각은 없다고 했더니 그저 껄껄 웃기만 하더군요.》

창석은 남차송의 이야기를 들으며 착잡한 생각에 잠겼다.

《여하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주의해야겠소. 자, 이제 밤도 깊었는데 어서 집에 가 쉬오.》

남차송은 박기만을 못 미더워하는 김창석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머리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 6

《천장절》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흐릿한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비가 내릴듯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나무가지사이로 가벼운 휘파람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형제제》는 행동개시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창석이 마지막으로 매 사람들의 준비상태를 간간히 검열하고 나직하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들, 우리 이제 장군님께서 주신 파업을 관철하기 위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맡은 임무들을 무조건 수행하고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올립시다. 자, 그럼 행동개시는 변전소파괴를 일으키는것을 신호로 모든 대상들에 대한 행동을 시작합시다.》

창석은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고 떠나보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변전소파괴를 맡은 조태봉과 마주섰다. 체소하고 온화한 성미에 보통 때는 사람들속에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한몫 맡아하곤 하는

그가 더없이 사랑스럽고 민음이 잦다.

그는 문득 밝은 세상에서 온 가정이 행복하게 모여살 그날을 애타게 그리워하던 조태봉의 안해의 편지의 구절구절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창석은 이제 날이나 좀 따뜻해지면 어떻게 하나 집을 한채 마련하여 그의 안해를 데려올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들이 한데 모여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느라 창석의 가슴도 후더워지곤 했다.

창석은 조태봉의 손을 짝 그러쥐었다.

《성공을 바라오!》

창석은 가장 책임적이고 어려운 일을 맡은 태봉에게 무슨 말을 더 하고싶었으나 딱히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할수가 없었다.

조태봉은 창석의 그 마음을 다 안다는듯 둥그스름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창석은 믿음어린 시선으로 그를 마주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임무를 수행하면 즉시 짜리풀비밀밀영지로 철수하십시오. 그럼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들은 서로 뜨겁게 포옹하고 헤어졌다.

창석은 남차송과 함께 철차전복지점인 창렬동쪽으로 떠났다. 철차전복지소에 이른 그들은 강기슭 버들숲에 몸을 숨기고 철길주변을 살피고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북방의 이른봄 밤의 랭기가 뼈속까지 스며드는듯 했다. 설상가상으로 흐려있던 하늘에서 찬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변전소쪽에서 화광이 일기만 기다렸다.

…이때 조태봉과 김초성은 변전소에서 좀 떨어진 산중턱 고압철탄밑에 있었다.

《제길할, 오늘따라 비가 내릴진 뭐람.》

조태봉이 고압선을 올라다보며 중얼거렸다.

《비가 오는데 고압철탄에 꽤 올라볼수 있겠소?》

김초성이 근심스럽게 물었다.

《걱정말게. 이 조태봉이 체통은 작아도 일단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네.》

그는 이미 준비해가지고온 여러 타래의 철선을 어깨에 걸쳤다.

김초성은 화약을 가지고 폭파를 하거나 힘으로 할일 같으면 자기가 술선 말아나서겠지만 전기문세를 잘 모르다나니 황소같은 체격에도 어쩔수 없이 뒤전에 몰려서 있어야 했다. 그러자니 속이 타드는듯 했다.

《나도 함께 올라가겠소.》

《아니, 자넨 여기서 감시나 잘하게. 이런 일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네.》

조태봉은 안절부절하고있는 초성을 안심시키려는듯 히죽 웃어보였다. 그리고는 비물에 미끄러

워진 철탄을 조심조심 오르기 시작했다. 고압선 가까이로 오르는 태봉의 등골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우— 웅.》 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고막을 징징 울렸다. 그는 철탄경간에 지지하고 어깨에 메고 올라온 철선 하나를 풀었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철선을 휘익 고압선위로 뿌려던졌다. 철선이 어두운 밤하늘로 날아올랐다가 고압선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맹랑하게도 철선은 한쪽 고압선에만 걸리어 흔들흔들 그네질했다.

태봉은 온몸이 비가 아니라 땀으로 화락하니 젖어들었다. 그는 다른 철선을 풀어 다시 고압선위를 겨냥하여 힘껏 올려던졌다. 또 실패였다. 그는 은근히 조바심이 났다. 그의 눈앞에는 변전소파괴 신호를 기다리는 동지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안겨왔다. 고압선을 쏘아보던 태봉은 위협을 무릅쓰고 한치한치 좀 더 올라갔다. 고압선에서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당장 튕겨버릴듯 《웅— 웅》 전류흐르는 소리가 점점 무섭게 울렸다. 태봉은 머리칼이 다 곤두서는것 같았다.

(제길, 내가 이쯤한 일도 못하면 조광명의 아버지가 아니지!)

그는 마음을 다잡고 혼자 히죽 웃으며 다시 철선을 있는 힘껏 고압선위로 뿌려던졌다. 순간 눈앞에 번개가 번쩍하더니 변전소쪽에서 하늘땅을 불사르는듯 한 화광과 함께 무서운 폭음이 울렸다.

그 순간 조태봉이도 정신을 잃으며 철탄에서 허공 나떨어졌다. 밑에서 가슴을 조이며 올라다보고 있던 김초성이 조태봉을 그리안으며 함께 나딩굴었다.

선광장과 채굴장, 온 광산일대가 금시 무덤속같이 캄캄해졌다. …

창석은 변전소쪽에서 번개불같은 화광이 일자 남차송과 함께 곧 행동을 개시했다. 그들은 철탄로 달려가 지레대로 페루못을 뿔기 시작했다. 굴속같이 캄캄한 속에서 손더듬으로 페루못을 찾아 하나하나 뿔을 때마다 삐익! 삐익! 못 뿔히는 소리가 신경을 자극하며 굉장한 소리를 내는듯 했다.

비는 여전히 추덕추덕 내리고있었으나 얼어들었던 몸은 어느새 확확 달아올랐다. 한구간의 못을 거의다 뿔았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전지불빛이 그들에게로 날아들었다.

창석이와 차송은 흠칠 놀라며 전지불을 피해 서로 철탄옆으로 갈라져 우뚝 섰다.

《누구요?》

남차송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창석이도 긴장하여 전지불쪽을 쏘아보았다.

《하하, 〈형제계〉 사람들이 착한 사슴형제들인가 했더니 지금보니 불가사리패였구만.》

전지불을 켜든자가 이죽거리며 다가왔다. 그자는 한손에 권총을 꺼내들고있었다.

《아니, 박기만이?…》

남차송이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그렇소, 나요. 차송군, 이런 놀음을 하자고 〈천장절〉날 나의 초청도 거절했을테지. 자네가 요새 아무일도 없이 이 철길로 자주 왔다가는것을 보고 난 그때 이미 무엇인가 짐작했네.》

아마 남차송의 뒤를 꽤나 미행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남차송은 아직도 그 무엇이 잘 믿어지지 않는듯 물었다.

《나 말인가, 보다싶이 이렇게 밤사냥을 다니는 사람일세.》

남차송은 김창석이 박기만을 미덥지 않아하는것을 알면서도 설마 이런 놀일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지금이야 박기만이 왜 자기에게 것처럼 호감을 사며 가깝게 접근하려 했는가를 깨닫자 분통이 터져 무작정 지레대를 추켜들고 달려들려고 했다.

이때 말발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말 한필이 바람처럼 달려와 박기만의 곁에 멈춰섰다. 말우에서 《헌병》대장교복차림의 한 사나이가 휘익 날아내렸다.

《박병태씨, 당신이 여기 있는걸 지금껏 찾았구만.》

박기만은 지금껏 그 누구도 모르던 자기의 본명을 부르는 《헌병》대장교복의 사나이를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난 당신을 도우라는 이와무라 〈헌병〉대장의 특명을 받고왔소.》

그 사나이는 급히 달려오느라 숨이 찼던지 목단추를 풀어제끼며 위엄있게 말하였다.

《아, 그렇소. 그럼 당신은 아주 적절한 시각에 왔소. 내가 이 음산한 밤에 어떤 〈맹수〉들을 잡았는가를 좀 보오.》

박기만은 자기를 직접 파견한 이와무라에게서 특명을 받은 《헌병》대장교까지 나타나자 기고만장하여 어깨를 으쓱거렸다.

《당신의 솜씨를 왜 모르겠소. 당신이야 이미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지하조직성원들을 잡아내는데 큰 공적을 세워 표창까지 받지 않았소.》

《하 하, 그렇소. 이제 이자들을 끌고가면 더 큰 표창이 차례질거요.》

그는 제 흥에 겨워 너털거리며 웃었다.

《웁소. 오늘은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일을 모두 계산해서 내가 직접 표창하겠소. 일체의 가증스러운 주구 박병태! 너를 조선인민혁명군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헌병》대장교복의 사나이는 박기만이 어쩔새없이 그자의 가슴에 총탄을 안겼다.

그 사나이는 《한말파리》였다. 그는 조국광복회 특수지하조직선을 통하여 박기만의 정체를 알아낸 다음 사령부로부터 빨리 광산조직을 위협에서 구원하라는 임무를 받고 급히 달려왔던것이다.

김창석과 남차송은 자기들의 운명을 이처럼 귀중히 보살펴주시는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그만 목이 짝 메어올랐다.

광산쪽에서 정광을 실은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달려오고있었다.

《자, 시간이 없소. 빨리 움직입니다.》

그들은 박병태의 시체를 강물에 처넣고 레루뭇을 마저 뽑아버리었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리붙었다. 그들이 산마루에 올라섰을 때 창렬동굴인들이 돌던 열차가 탈선을 일으키며 강물속으로 처박혔다.

김창석의 일행이 쓰리골비밀밀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산발들에는 밤새 내린 봄비로 푸른 새싹들이 한결 더 청초해지고 싱그러운 숲향기가 가슴이 찡하게 진동했다.

먼저 임무를 수행한 조들이 무사히 돌아와있었다.

《수고했소! 수고했소! 동무들!》

환희와 걱정애 넘쳐 그들을 부둥켜안고 돌아가던 창석은 문득 조태봉의 조가 보이지 않자 그들을 찾았다.

《조태봉동무네는 어디 있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시다.》

창석은 제일먼저 와있어야 할 조태봉의 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것을 알자 금시 불길한 느낌이 갈마들었다. 방금전까지 성공의 환희에 떠있던 그들은 말없이 조태봉이네가 나타나기만을 속을 태우며 기다렸다.

《저기 나타났습시다.》

누군가 잡관목이 무성한 골짜기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정말 키폴이 장대한 김초성의 모습이 보였다. 동지들은 너무 기뻐 와— 마주 달려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김초성의 앞에 못미처 굳어진듯 우뚝우뚝 서버렸다. 김초성의 비감애 잠긴 얼굴과 그의 등에 의식을 잃은채 업혀있는 조태봉을 보자 가슴이 섬쩍해졌던것이다.

김초성은 조심히 조태봉을 내려놓았다.

창석은 조태봉을 와락 그러안았다.

《태봉이! 태봉이! 정신차리라구!》

가슴이 터지는듯 한 창석의 부름소리에 태봉이 정신을 차리며 간신히 눈을 떴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창석을 비롯한 동지들을 알아보자 한마디한마디 안간힘을 모아 말했다.

# 피 져 은 당 원 증

김 명 길

색은 바래고  
붉은 피는 굳어지고...

전승기념관  
영웅의 당원증앞에 서니  
더더욱 높뛰는 이 심장

세월을 넘어  
몇몇해던가  
결전의 그날 기발들고 나아가다  
승리의 진격로 열어놓고  
만세의 합성 고지에 메아리칠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은  
50년대 영웅의 당원증

그 당원증 가슴에 품고  
넋고넋은 결사의 언덕은 몇몇 고개였드노  
조국수호전의 한길에서  
언제나 위훈만을 새기며 높뛰던  
영웅의 그 심장은 아닌가

숭엄히 바라보는  
이 가슴에도 툭툭 맥박을 더해주는듯

조국을 목숨바쳐 지킨 애국의 더운 피로  
찾아오는 수천만 새 세대의 심장에  
세월을 넘어 이어주는 그 뜻

무르익은 난알을 거두어들이던  
기름진 분여지에  
행복의 웃음으로 밤가는줄 모르던  
고향집창가에 불지른  
침략의 무리 어찌 용서하라

한목숨 바쳐서라도  
기어이 지켜야 할  
자주적인민의 존엄  
총대를 틀어진 인민이  
어떻게 조국을 수호해야 하는가를  
오늘도 말해주는 피져은 당원증

오, 식을수도 굳어질수도 없는  
영웅의 피져은 당원증  
숭엄히 품고 가는 심장마다  
고귀한 삶의 위훈이 나래펴고  
영생의 숨결이 맥박치도다



《창석동지. ... 임무를... 수행... 했습니다.》  
태봉의 창백해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고요히 피  
여났다. 창석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온몸을 부르  
르 떨었다. 만족과 평온이 어려있는것 같기도 하  
고 이제는 세상만사를 초월한듯 한 그 미소가 가  
슴을 서늘케 했던것이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동지들을 둘러보  
았다.

《이제 해방이 되면... 장군님을 모시고... 내 나  
라에서 보람있게 살아보자고 했는데... 광명이...  
광명이를 한번만이라도... 보고싶구만. ...》

그는 혼미해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려고 모지를  
썼으나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드는것을 어찌지 못  
했다. 마지막생명의 불꽃이 그의 눈에 한순간 반  
짝이더니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태봉이! 태봉동무!》

창석의 피타는 부르짖음소리가 산발을 즈름-  
즈름- 울렸으나 태봉은 아름다운 한가닥의 미소  
만 뿌려놓은채 아무 대답도 없었다.

사나이들은 오열을 터치며 땅을 쳤다. 울울창창

한 수림속의 거목들도 몸부림치듯 무겁게 뒤설레  
이였다.

×

그날 아침 무산땅은 화산이 터진듯 끓어번졌다.  
광산에서 일어난 대폭파사고들과 거리와 골목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일  
제를 반대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등 여러  
내용의 삐라들이 나붙어있어 금시 일제의 멸망이  
닥쳐온듯 했다. 지어 경찰서담벽에까지 《명치시  
기 명치끝이 험고 대정시기 대장염이 와서 소화시  
기 소화불량에 걸려 망한다》라는 일제를 야유하  
는 글이 나붙어 《천장절》을 맞는 일본놈들은 불  
안과 공포로 전율했다. 어떤 놈들은 조선인민혁명  
군이 쳐나온줄 알고 산속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렸다.

그후 이곳 《형제계》의 반일지하조직성원들  
은 조국해방성전이 일어나자 손에 무장을 들고 용  
감히 싸웠다.

## 청 춘 과 랑 만

김 덕 삼

귀를 강구면 청천강의 소연한 물소리가 금시 들려올듯싶은 남흥땅에서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듣게 되는 정겨운 말이 있다.

청춘과 랑만, 랑만과 회열...

조국땅 그 어디를 가보나 청춘의 회열이 차넘치고 웃음가득, 랑만가득 넘쳐나는 자랑찬 현실이 창조되고있는 오늘날의 선군시대 풍경은 항상 취재길에 사는 나를 기쁘게 하고있다.

남흥땅에서도 나는 이 벅찬 현실을 기쁘게 느꼈다.

여기 가스화대상공사장은 하나의 불도가니를 편상케 하였다.

철관을 들부시는듯 한 아츠러운 마찰음, 부르릉거리며 길다란 쾅무니를 벽체사이로 가까스로 들이미는 대형자동차, 호각소리를 되알지게 울리며 엄청난 큰 원통형구조물을 허공 들고 움직이는 기증기를 《지휘》하는 예쁘장한 처녀신호수, 하늘중천에 건듯 들린 무대런듯 발판에 올라서서 미장갑을 휘두르는 청년들, 여기저기에서 병긱거리는 용접의 불보라...

완공을 앞둔 남흥가스화공사장의 정경이다.

숨가빠 뛰고 달리고 성급하게 찾고부르며 이마를 맞대고 연연히 이어진 덩치 큰 건물에 반듯이 미장을 하고 은근한 색깔의 타일을 붙이는 건설자들의 날렵한 일숨씨에 하 입을 벌리고 눈길을 보내는데 어디선가 무엇이 무너져내리는듯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전설속의 어마어마한 골뱅이를 방불케 하는 설비를 콘크리트기초우에 올려놓고 볼트를 조이는 조립공들의 땀에 젖은 모습이 눈앞으로 확 밀려온다.

볼것이 너무 많아 어디에 눈길을 줘야 할지 허둥거리는데 강성대국건설대전으로 부르는 방송차에서 울려나오는 열기띤 목소리로 하여 귀 또한 멍멍해지는가싶다.

그 나날 우리가 만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지배인 조정철동무와의 이야기가 나의 기억에 유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허, 이거 또 취재에 걸렸군! 그래 이번엔 무슨 말을 해줄가요. 가스화과정건설에 대해선 이미 이야기를 나눈것 같은데...》

호리호리한 몸매에 활달한 성미를 가진 그는 병어리장갑에 묻은 쇠밥을 훌훌 털며 제먼저 시원스럽게 말쑥지를 뻗는다.

《지배인동지, 이번엔 제 느낌을 얘기하고싶군요. 여기 남흥에 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젊어지는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떼고보니 이야기가 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지배인이 제격 우리 말을 긍정해주었다.

《그렇것입니다. 기업소명칭에도 〈청년〉이란 말이 들어있는것처럼 우리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살고있습니다. 아마 이런 충천한 기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일터에서 일하는 무한한 공지, 더 좋아질 앞날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의 온몸을 세차게 달구어주기때문일것입니다.》

그는 감격도 새로운 지난 5월, 경애하는 장군님 찾으셨던 그날에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만면에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기업소 구내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료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과 가스화대상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며 이곳 노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의 하나인 청춘원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한증탕과 수영장, 실내체육관, 여러가지 유희오락기구들이 그췌히 갖추어진 청춘원의 내외부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하시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랑만적인 기업소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우리 청춘의 심정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청춘원을 배경으로 불멸의 화폭을 남겨주시였다.

랑만적인 기업소!

조정철지배인의 흥분에 젖은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지만 나는 《랑만》이란 두 글자를 입속으로 되뇌이며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랑만은 우리 말사전에도 명기되어있는것처럼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차있는 락천적인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그러니 우리 장군님께서 이 기업소가 해놓은 일과 노동자들의 드높은 정신세계, 문화정서적인 생활기풍에 대하여 얼마나 적중하고 명료하게 단마디로 명명하여주시였는가.

사회주의선경답게 알뜰히 꾸려진 기업소구내, 생산정상화의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는 현대화된 생산설비들, 가스화대상건설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들끓는 건설장, 하루일을 마친 노동자들이 수정같은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수영장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고 내부장식을 나무의 문양을 돈구어 특색있게 한 실내체육관에서 배구경기로 열을 울리며 달고 시원한 쾅우유로 목을 추기는 이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모습을 랑만이란 두 글자에



# 병사와 소녀

리 송 화

한여름의 어느날  
해빛 눈부신 광장의 복판에  
귀여운 소녀 하나 앉아있었네  
비둘기 세마리 구구대며  
그앞을 사뿐사뿐 돌아가네

바빠 광장을 지나던 병사  
문득 걸음을 멈추었네  
소녀를 놀래울까 겁이나 난듯  
멀찌감치 물러서 빙빙 돌아가네  
거무스레 탄 구리빛얼굴에  
빙글서 미소를 피워올린채

병사여, 그대 무엇을 그리는가  
곰게도 팔랑이던 나비를 쫓아  
샘치바위 돌부리에 무릎이 벗어지던  
고향의 여름날을 그리는것인가  
동산너머 저 멀리 아지랑이 가물덜 때  
마음속에 행복이 따뜻이도 스며들던...

그대 무엇을 그리는것인가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  
흰저고리 그 처녀와 2중창도 즐겁던  
군민오락회의 그 여름날을 그리는가  
파아란 잔디에 해빛이 무르녹아  
그래서 마음도 한껏 무르녹던...

행군의 밤 정든 고향 지나칠 때  
순간도 더디지 않던 걸음  
훈련의 날 화염속에 뛰어들 때  
주저없던 그 걸음  
어인 일인가, 그만 따듯한 여름날

소녀와 비둘기와 해살에 취한것인가

그대 마치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에 심취된  
미술가이기라도 한듯...  
그도 그럴것이!  
이제 바로 병사가  
포연속을 불비를 뚫고 헤치며  
훈련의 땀젖은 날과 달을 이으며  
병사가 그려온 그 평화의 그림이 아닌가?!...

병사여 내 어이 모르랴  
이제 그대 가게 될 곳은  
또다시 이슬내린 전초  
숨을 토폴며 치달아야 할  
고지의 험산준령  
그리고 만약 준엄한 날이 오면  
그대 남먼저 불비를 막아나설 최전방

온넋으로 목숨으로  
아름다운 평화를 그리는 사람  
지켜선 행복이 너무 눈부서  
지키는 사랑이 너무 소중해  
병사는 갈길 잊은듯  
그냥 빙그레 웃고만 섰네

아, 한여름의 한순간  
해빛이 눈부신 광장에서  
병사는 소녀앞에 걸음 못 떼고  
나는 병사의 그 모습에  
뜨거운 눈길 떼지 못하네

-----

모두 담아주시었으니 이들이야말로 위대한 령장의  
축복을 받아안은 궁지높은 로동계급, 더 좋아질  
래일을 안고사는 청춘들이 아니겠는가.

랑만은 청춘이 내뿜는 그윽한 향기, 그들이 안  
고사는 앞날에 대한 희열이다.

청춘은 비단 젊음을 의미하는 어휘론적인 표현  
만이 아니다.

비록 나이는 많아도 청춘의 심정으로 젊고 의기  
양양하게 일자리를 푹푹 내는 열정의 인간들을 두  
고도 우리는 청춘시절에 사는 사람이라고 즐겨부  
르지 않는가.

그렇다. 강성대국의 광망한 미래를 지척에서 내  
다보며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따라 비약의 나래  
를 한껏 펼치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은 나날이 젊어지는 청춘의 나라요 그 품에서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은 모두가 청춘  
시절에 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영원한 청춘과 랑만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것이다.

청춘의 랑만과 기백으로 살며 싸우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변천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창  
조하고 변이 나는 해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나는 오늘 여기서 가슴이 뻐근하도록 희열과 긍  
지를 느끼며 확신하였거니 남흥땅의 청춘과 랑만  
이 온 나라에 활기를 부어주어 우리 천만군민은  
양양한 우리 조국, 강성대국의 눈부신 현실을 날  
에날마다 창조해나갈것이다.

## 무엇때문인가, 지난날의 성과작들이 문득 떠오르는것은...

—수필 《조국과 나의 가정》을 읽고—

김 학

지금 이 순간에... 수필 《조국과 나의 가정》 [최남순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7(2008)년 9호]의 마지막글줄에서 세번째로 눈길을 땀이 순간에 이미 오래전에 읽은, 작고한 이름있던 작가가 쓴 수필 《회고와 신념》의 세부까지 생생히 떠오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 다음에는 언젠가 《조선문학》 잡지에서 보았던 련속수필(제목이 《사랑의 권리》였다.)이 생각 키운다.

이상할것도 없다. 잘된 작품은 인생의 길동무로 독자의 심장속에 깊이 남아있는 법이니까.

작품은 필자의 남다른 얼굴이 엿보이고 깊은 사색과 풍부하고 생소한 사상감정이 담긴 아담한 서정시(시초라고도 말하고싶다.)와 같이 된것으로 하여 먼 후날에도 애독될것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라면 평생에 사람의 기억에 남는 좋은 수필을 적어도 몇편씩은 내놓아야 한다.》

수필에서는 《이야기》를 주고싶으면 주고 《주정》을 풀고싶으면 푼다.

그래서 수필을 잘 쓰면 소설이나 시보다 더 인상깊을수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면 수필 《조국과 나의 가정》이 독자의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형상대상의 심오한 본질을 자연스럽게 감성적으로 밝혀보고있는것이리라.

조국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많은것이 한꺼번에 떠오르는가. 그러나 그 의미를 전혀 인식 못할것은 아니다. 다만 탐구가 필요하다. 작가는 마침내 《나의 가정》이라는것을 새롭게 발견하였고 그것으로 조국을 투시해보았다. 《조국의 모습》이 여러 갈래의 《빛》으로 굴절되어 들어왔다. 그가운데서 작가는 조국을 자기 생활의 고유한 호흡으로만 구가할수 있는 세가닥의 《빛발》만을 선택하였다.

《약속》, 《사랑》, 《행복》...

《약속》—《누구에게나 딸이나 안해와의 약속보다도 조국과의 운명적인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남편과 아버지와의 생일놀이 약속, 사랑의 첫시절 《그》와 《나》가 《래일 아침 강의를 잘하겠다》는것을 다짐하던 약속을 거쳐 일반화하였다.

《사랑》—며늘애의 생일을 잊지 않고 송편을 해가지고 찾아온 먼 교외의 시어머니, 출장 떠나는 남편의 짐속에서 생각없이 꺼내놓은 비옷을 두고 언뜻 눈빛을 흐리는 시어머니... 그것은 분명 아들이 나라에 떳떳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또 한순간도 멈춤없이 인생길을 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열렬한 사랑이다.

《때로는 안해의 모습이 조국의 한모습으로 이 나라 사나이들의 심장에 떠올라야 한다》는 주장은 자못 의미깊다. 그렇다, 그것은 새로운 주장이다.

《행복》—좋은 남편, 새 교수방법심의를 성과적으로 치른 《나》, 그것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인민반장이며 대학생청년들, 《내가 스쳐보낼만한 행복까지도 먼저 알고 기뻐해주며 그것을 기어이 내 손에 쥐여주는 고마운 사람들...》 마침내 생활의 심오한 진리가 도출된다. 《조국을 위해 성실한 사람들이 사는 가정엔 언제나 행복이 깃든다. ... 그리고 첫사랑도 영원히 식지 않는다.》

어머니조국과 혈연적으로 맺어진 이 땅의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의 《약속》과 《사랑》과 《행복》에 대한 참으로 심오한 형상적해명이다.

수필의 형상적매력은 또한 생활의 진리를 집약한 철학적인 분석에서 발휘되고있다.

확신컨대 우리는 생활의 귀중한 매 순간마다 조국과 말없이 약속을 한다.

한 가정을 가질 때면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리

# 동 창

강 은 향

졸업을 기념하여  
우린 함께 사진도 찍었지  
학창시절 단정한 모습 그대로  
저고리고름 바람결에 나뭇기며

우리네 꿈을 부풀게 자래운  
인생의 한 구간에  
배움으로 맺어진 우정 잊지 말자고  
수첩에 서로서로 글도 남겼지

어렵던 날에도 우리를 믿어  
책상앞에 앉혀주어 공부시켜준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말자고  
맹세의 약속도 굳게 남겼지

들어선 교문과  
나서는 교문은 다르지 않아도  
우리 서로 걸어갈  
생활의 길은 같지 않거니

누구는 연구사로

누구는 교원, 기자로  
20대에 벌써 박사로  
세상을 놀래운 학우도 있지 않느냐

먼 후날  
그 어디서 다시 만나도  
한이름 동창으로 불리울 동무들아  
어깨를 같이한 한책상사이로만  
그 이름 쉽게 부를수 있으랴

떠맡은 초소는 서로 달라도  
우리 지닌 의무는 다르지 않아  
선군조국의 앞장에서  
오늘처럼 우리 웃으며 만나자  
위훈의 첫자리 비우지 말자

입학의 기쁨은 나누었어도  
졸업의 기쁨은 나누지 말자  
조국의 부름에 시대의 부름에  
땀땀이 나설 맹세와 자각 안고  
영원한 동창으로 시대의 동창으로 우리 살자!



라는것을, 교단에 설 때면 학생들을 있는 힘껏 잘 배워주는 교육자가 되리라는것을.

아니, 이 땅에 첫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나는 그 순간에 벌써 조국에 떳떳하고 충실한 삶을 우리모두가 약속한것은 아닌지...

조국과 인간을 두고, 약속과 생활을 두고 피타는 사색을 하지 않고서는 또한 인생의 리치를 간명하게, 감칠맛있게 구사하는 문장력이 없이는 이러한 명문장이 얻어지지 않는다. 수필은 이런 명문으로 일색되어있다.

수필은 생활의 본질을 깊이있게 판다고 하면서 결코 딱딱한 추상적인 론조로 글들을 엮지 않았다. 반대로 정서가 철철 넘쳐흐르게, 시적으로 생활을 그리고있다. 가정을 론하고 애정을 그리고 사랑을 다룬다고 저절로 얻어진 형상적미가 아니다. 생활세부마다에 깃든 본질의 정확한 포착과 그것에 체현된 색깔과 박동에 대한 예민한 식별 나아가서 그 모든것의 적절한 형상적구현의 응답한 결과이다.

《학문의 벼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들》이 처음 운명적인 시각에 서서 《그가 내미는 만년필을 서로 손끝이 부딪칠가봐 저어하며 조심스레 받아드》는 세부만 보더라도 얼마나 섬세한 감각과 다심한 정서가 동원되어야 할텐가.

《약속》, 《사랑》, 《행복》이라는 세알(세개의 단어)의 《구슬》을 하나의 《보배》로 꿰여낸 《생일》이라는 《끈》은 작가적헌신만이 찾아낼수 있는 참신한 발견이다.

시대성이라기보다 시간관계가 약간 홀시된듯 한 감이 있다. 《서른이 되어오》는 《나》... 《안해-내 몸의 열기》로도 다 녹일수 없었던 시련의 《성예》... 필자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하지만 옥에 티이다. 수필이 남긴 형상적여운은 너무도 크다. 마지막원고지를 덮는 이 순간 오래전의 수필들인 《회교와 신념》, 《사랑의 권리》가 다시금 머릿속에 떠오르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 별들이 빛난다

양 전

지금으로부터 5년전 나는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갔었다.

내가 아직은 애티를 벗지 못한 몸에 군복을 입고 고향을 떠날 때는 우리 조국이 어려움속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새롭게 일떠서기 시작하던 때였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달라진 고향의 모습은 나를 놀라게 했다.

읍중심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넓은 도로 양옆에 현대적미감이 나는 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서고 여러가지 색의 외장재를 조화롭게 칠하여 얼마나 아늑하고 청신한감을 주는지 마치 어느 휴양도시에 온듯 한 생각이 들었다.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활기가 넘쳐나고 옷차림도 화려해 명절 날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내 고향이니, 내 조국의 약동하는 기운이 절로 스며들어있게 하는 모습이였다.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때 어찌 한가하게 휴가를 보낼수 있으랴. 나는 변모되어가는 고향의 모습에 무엇인가 자그마한것이라도 보탬을 하고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군에서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건설하고있는 군민발전소건설장에 나가 휴가기간을 바쳤다.

휴가기간이 끝나 부대로 돌아오기 전에 나는 공업품상점에 들렀다.

우리 대대 통신참모의 딸 돌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돌아가기 전에 기념으로 생일옷을 한벌 마련해야겠다고 이미전부터 마음먹고있었었다. 또 검사해서 중대동무들에게 고향의 기념품들도 한가지씩 안겨주고싶었다.

읍거리중심에 자리잡고있는 공업품상점도 이미 있던 단층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2층으로 눈이 번쩍 뜨이게 지었는데 매대들에는 상품들이 가득 쌓이고 그앞에는 빨간색판매복을 똑같이 차려입어서인지 하나같이 이쁘게 보이는 판매원처녀들이 밝은 웃음을 짓고 서서 손님들을 맞

이하고있었다.

중대동무들에게 나누어줄 기념품들을 몇가지 사고난 나는 2층에 있는 아동옷매대로 갔다.

판매원처녀는 조용한 기회에 장부책에 무엇인가 기록하고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군대에서 굳어진 습관대로 거수경례를 하며 크고 씩씩한 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판매원처녀는 장부책에서 머리를 들며 상냥하게 인사를 받았다.

순간 처녀의 눈이 놀라운듯 커졌다. 마치 오래 동안 기다렸던 사람, 자기 생활과 깊은 인연이 있어 항상 보고싶던 사람을 갑자기 만났을 때의 그런 놀라움과 기쁨이 그의 눈에 가득 비껴있었다. 반쯤 벌어진 입에서는 금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기쁨에 찬 목소리가 막 터져나올듯 했다.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웬일일까?)

나는 처녀를 마주 바라보았다.

한동안 놀라운 눈길로 나를 보던 처녀는 별안간 흠칫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다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이 삼시에 빨강게 물들었다. 처녀는 떨리는 손길로 공연히 매대를 어루쓸며 눈길을 어디에 돌지 몰라하며 당황해했다. 그러면서도 한가닥 기대가 담긴 얼굴로 이따금씩 나를 쳐다보곤 했다.

(이 처녀가 왜 이렇가? 나를 아는 처녀인가?... 혹시 내가 기억 못하는 중학교때 동창이나 먼 친척은 아닐까?)

나는 어쩔수없이 처녀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처녀도 이 상점 판매원모두가 입은 빨간색양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있었다. 나이는 스물서넛 되었을가, 가뭇하게 탄 닭알형의 얼굴에 살눈섭이 길고 눈매가 부드러워 무척 아련한 인상을 주

는 처녀였다. 얼굴뿐만 아니라 유리매대 가늠을 가볍게 짚고있는 손등까지 가맣게 탄것으로 보아 처녀는 분명 상점안의 일보다 바깥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있을거라는 생각을 저절로 가지게 했다. 머리는 반듯이 빗어넘겼는데 앞가슴으로 넘어와 드리운 탐스러운 머리태끝을 동여맨 빨간 땀기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처녀를 뜯어보던 나는 문득 이 처녀를 어디서 본 일이 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기억에는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어디서 보았을가? 나이로 보아 동창생은 아니었다. 혹 병사시절에 본 간호원이나 통신병처녀?...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기억의 갈피를 아무리 뒤번쳐보아도 본적이 없는 처녀였다.

그렇다고 처녀의 얼굴만 줄곧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을수 없어 나는 뒤숭숭해진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다.

《판매원동무, 한살난 처녀애가 입을 색동옷이 있습니까?》

《한살난 처녀애의 색동옷이요?》

《예.》

《잠간 기다려주세요. 지금 매대에 내놓은것은 없는데 창고에 들어가 찾아보겠어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처녀는 인츰 돌아서 매대뒤에 있는 휘장을 제끼고 들어갔다.

나는 처녀가 매대를 비워놓고 간 사이에 다시 그를 어디서 보았을가 기억을 되살려보았다. 그러나 꼭 짚여오는 계기는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 처녀가 다시 나왔다. 그러나 빈손이었다.

처녀는 아직 발갛하게 물든 얼굴에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나에게 말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창고를 다 뒤져보았는데 고또래 처녀애들이 입을만 한 색동옷은 없구만요.》

《그래요?...》

《저 수고스러우신대로 래일 한번 더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소라도 알려주면 제가 군상업관리소에 가 구해서라도 래일 꼭 가져다드리겠어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래일 다시 오지요.》

나는 처녀의 성의에 감동되어 선선히 대답했다.

《그럼 래일 꼭 오세요. 제 꼭 구해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돌아서려고 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발바닥이 땅에 얼어붙은듯 제각 떨어지지 않았다. 처녀의 정성이 고마와서인지, 아니면 처녀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인상때문인지?...

나는 잠시 서서 머뭇거렸다.

처녀도 공연히 장부책을 펼쳤다 접었다하며 가끔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말없는 속에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나는 불시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무슨 못할것을 하는것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고 돌아섰다.

《그럼 래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꼭 오세요. 기다리겠어요.》

처녀는 수줍은 눈길로 나를 보며 눈인사를 했다.

몇걸음 옮기던 나는 무엇이 뒤에서 잡아끄는듯 하여 참지 못하고 돌아보았다.

처녀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나를 바라보다가 나의 눈길과 마주치자 황황히 장부책으로 고개를 속이는것이였다.

(저 처녀가 정말 왜 저렇가?...)

나는 불시에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밖에 나와서도 인츰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처음 매대에 다가갔을 때 나를 보고 놀라던 모습이며 불시에 몸을 떨며 얼굴을 붉히던 모습, 나오다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나를 보던 놀라움이라 할가, 기대감이라 할가 종잡을수 없는 눈길이 떠오르며 마음이 더욱 번거로와졌다.

(어디서 보았을가, 어디서?... 분명 보긴 본 얼굴인데...)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던 나는 다급하게 울리는 자동차경적소리에 깜짝 놀라 몇걸음 물러섰다. 자동차가 웬-하고 내앞을 지나갔다. 운전사가 옆창으로 얼굴을 내밀고 《군관동무, 주의하오!》하고 웃으며 소리쳤다. 저쯤 멀어져가는 자동차를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던 나는 섬광처럼 떠오르는 생각에 흠뻑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나의 귀가에 먼 허공에서 들려오는듯한 처녀의 다급하고도 청높은 목소리가 막혔던 고막이 터진듯 쟁쟁히 들려왔던것이다.

《차를 세우세요!》...

(아, 그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이로구나!)

그러자 나의 심장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고향의 《군민발전소》건설에 참가하여 일을 시작한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이였다.

나는 불일이 있어 시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신고가는 차를 타고 서슬령을 넘게 되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이였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 되어서도 멎지 않고 머리에 닿을듯 낮게 드리운 구름에서는 대줄기같은 비를 그냥 퍼붓고있었다. 비옷을 입기는 했으나 얼마 못가 물침봉이 되고말았다.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이따금 어둠을 찢으며

번쩍이는 번개불, 깊은 산골짜기를 드릉드릉 울리는 우뢰소리, 우중충한 산발을 뒤덮은 수림도 쇠— 쇠— 소리치며 설레이고있었다. 전조등빛에 드러나는 길옆 도랑으로는 물이 사뭇치며 흘러내렸다.

나는 비옷에 달린 고깔모자를 푹 내려쓰고 이따금씩 몸을 떨며 적재함에 앉아있었다.

차가 부릉부릉 안간힘을 쓰며 고개마루에 올라 얼마쯤 내려갔을 때였다. 갑자기 어둠속에서 《차를 세우세요!》하고 웨치는 녀자의 청높은 목소리가 울렸다. 차는 비에 젖은 길바닥을 미끄러지며 멈춰섰다.

나는 웬일인가 하여 모자를 벗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전조등빛에 비옷을 입은 처녀가 손을 저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드러나보였다.

운전칸문을 벌컥 열고 운전사가 웃음을 내밀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자동차앞까지 달려온 처녀는 가쁜숨을 몰아쉬느라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이마에 몇오리의 젖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은 얼굴에 정기도는 눈동자가 인상스러웠다.

한참 지나서야 처녀는 한손으로 비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숨찬 목소리로 급하게 말했다.

《저기… 저앞에 사태가 내려 길이 막혔어요.》

《그렇소?!》

운전사가 놀란 소리를 내뱉으며 길에 내려섰다.

《길이 완전히 막혔소?》

반대쪽 문을 열고 인수원이 내려서면서 처녀앞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절반나마 막혔어요.》

《제길, 야단났군.》

운전사가 목을 빼들고 길앞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러게나 말이요. 건설장에서는 이 차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릴텐데…》

인수원이 안타까운 어조로 운전사의 말을 받았다.

그 소리에 처녀는 자못 놀란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이 차가 발전설비를 실은 그 차인가요?》

《그렇소, 동무가 그걸 어떻게 아오?》

《아— 지금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이 차가 도착해야 래일부터 발전기조립을 계획한대로 할수 있다고 모두들 안타까이 기다리는데…》

인수원이 처녀앞으로 한발자국 다가서며 물었다.

《그런데 동문 누구요?》

《전 발전소건설장에 나가군 하는 지원자예요. 그런데 길이 막혔으니 어쩌면 좋아요?》

처녀는 제사 안타까운듯 두손을 모아쥐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운전사와 인수원을 번갈아쳐다 보았다.

《정말 야단났군.》

나는 더 듣고만 있을수 없어 적재함에서 뛰어내렸다. 그제서야 적재함에 내가 타고있었다는것을 깨달은듯 운전사와 인수원이 내쪽을 돌아다보았다. 처녀도 그들의 어깨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앞으로 저벅저벅 다가가며 말했다.

《여기서 이렇게 안타까와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태난 곳까지 가봅시다. 혹시 뚫고나갈 방도가 있을런지 알겠습니까?》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웁소,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군관동무 말대로 가봅시다.》

자동차가 다시 발동을 걸고 조심조심 비속을 헤치며 전진했다. 한 50미터쯤 나가니 사태난 곳이 전조등빛에 드러났다. 커다란 바위돌들과 흙이 뒤범벅이 되어 쏟아져내려와 길을 막고있었다.

사태난 곳을 돌아본 나는 운전사에게 말했다.

《이쪽 바위돌 몇개만 치우면 꽤 극복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사가 턱에 맺힌 비방울을 주먹으로 훔치며 고개를 기웃했다.

《위험할것 같은데…》

《건설장에서 기다리는 급한 설비라는데 위험한 것만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모험해봅시다.》

운전사가 씩 웃으며 내 어깨를 주먹으로 가볍게 내질렀다.

《역시 인민군대가 다르구만. 좋소, 까짓거 한번 해보지요.》

우리는 적재함에 싣고다니던 삽과 곡괭이, 지레대를 내리어 돌을 치우는데 달라붙었다. 처녀도 우리 일을 도와나섰다.

인수원이 처녀를 만류했다.

《아, 처녀동문 좀 쉬오. 우리끼리도 되요.》

《팬 참습니다, 저도 발전소건설지원자인데요 뭐.》

처녀가 망작만한 돌을 굴리며 대답했다.

《그런데 처녀동문 꼭 어디서 본것 같은데… 동무 읍에 살지?》

《예.》

《글쎄 내 눈이 틀림없다니까. 군문화회관앞 네 거리를 매일 지나 출근하는것 같은데… 읍지?》

《어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다 아는수가 있지. 그러니 동무직장이 읍…》

인수원이 말꼬리를 길게 끌며 능청스레 처녀를 건너다보았다.

《읍상… 아니, 제 직장은 알아 뭘합니까? 그저 지원자라는것만 알면 되지. 예참, 깜빡 속을번 했

네.》

처녀가 고개를 저으며 토달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모두 즐겁게 웃었다.

역수로 퍼붓는 비속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서로 마음을 합쳐가며 인차 차가 지나갈수 있을만큼 흙과 돌을 치웠다.

운전칸에 올라 발동을 건 운전사가 소리쳤다.

《위험하니 모두들 비키시오.》

내가 앞에서 손짓으로 차를 지휘하였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바투 붙이시오! 왼쪽으로 약간 돌리시오.》

온통 비에 젖어 미끌미끌한 길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차가 산 밑으로 굴러내릴수 있었다. 차를 지휘하는 내 등골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처녀는 두손을 가슴앞에 모두어쥐고 서서 말없이 한치한치 전진하는 자동차만 지켜보고있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부르릉거리는 발동기소리와 차를 지휘하는 내 목소리만 들릴뿐 끝안을 짝채운 비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차가 사태구간을 극복하고 안전한 길에 들어섰다.

차를 세운 운전사가 운전칸에서 내려서더니 차체에 기대어서며 긴 숨을 후—하고 내쉬었다. 거쿨진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다지는데 비물을 닦아내는것인지 아니면 긴장으로 줄지어 흘러내린 땀을 닦아내는것인지…

나도 군모를 벗고 이마의 땀방울을 닦아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처녀가 운전사에게로 달려갔다.

《운전사동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운전사가 껄껄 웃었다.

《나야 뭘, 수고야 처녀동무랑 군관동무가 했지. 정말 처녀동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번했소?》

《아이참, 저야 뭘 한게 있다구… 그저 읍으로 가던 길에 우연히…》

운전사가 운전칸에 오르며 모두에게 말했다.

《자, 밤도 깊었는데 빨리들 갑시다. 처녀동무도 차에 오르오.》

《전 급한 일때문에 빨리 읍으로 가야 합니다.》

운전사가 다시 내려서서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무슨 급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오는 깊은 밤에 어떻게 읍까지 간다고 그러오. 그러지 말고 전설장에 가서 자고 래일 아침 일찍 가오. 내 차가 아침에 다시 이 고개를 넘어가야 하니 그때 태워다주겠소. 자, 빨리 가세요.》

운전사가 손전지로 시계를 비쳐보며 재촉했다. 처녀는 이마우에 드리운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전 꼭 가야 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나는 전지불빛에 어슴푸레 드러나는 처녀의 모

습을 호기심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무슨 급한일이길래 이 비오는 깊은 밤중에 읍에 꼭 가야 한다는걸가?... 여간 이악한 처녀가 아니로구나...

운전사가 어쩔수 없다는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럼 할수 없군. 주의해가오, 처녀동무.》

인수원이 한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처녀동무, 갈 땐 가더라도 이름과 직장이야 알려주고 가야 할게 아니요. 그래야 후날 만나도 인사를 할수 있지.》

《아이참, 인사는 무슨...》

《아, 그래야 동무의 기특한 소행에 대해 직장에다 알려줄게 아니요.》

《아이참, 그거야 누구나 부딪치면 다 할수 있는 일인데...》

나에게는 어둠속에서도 처녀의 붉어지는 얼굴이 보이는듯 했다.

인수원이 지뭇게 달라붙었다.

《그럼 하다못해 이름 석자만이라도 대주구려.》

《정말 왜들 자꾸 이러십니까. 그저 발전소전설장에 나온 지원자입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처녀는 못 견딜것 같아서인지 서둘러 어둠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아, 처녀동무...》

인수원과 운전사가 다급히 소리치며 몇걸음 뒤쫓아갔으나 처녀를 붙잡을수 없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어둠속에서 처녀의 밝은 목소리가 비속을 뚫고 날아왔다.

《정말 어쩔수 없는 처녀로군.》

《그래, 쉽지 않은 처녀요.》

한동안 어둠속을 바라보며 감심해서 서있던 운전사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그럼 군관동무, 우리도 가봅시다.》

《예.》

대답은 했으나 나는 아직 남아있는 사태무지개를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는 나를 지켜보던 운전사가 물었다.

《아니, 군관동무 왜 또 그러오?》

《아무래도 미처 치우지 못한 이 사태무지가 마음에 걸려 그러입니다. 이 차는 통과했는데 혹 다른 차들이 오다가 사고를...》

운전사가 피씩 웃었다.

《이밤에 산골길로 웬 차가 다니겠대구... 발전소전설지휘부에 말해서 래일 아침 일찍 와서 치우게 합시다.》

《군관동무의 마음은 알만 한데... 밤도 깊었으니 그렇게 합시다.》

인수원이 끼어들며 말했다.

《그래도...》

한동안 생각하던 나는 결심을 내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먼저들 가십시오. 전 아무래도… 차에 있는 공구나 두고 가십시오.》

인수원이 난감한 어조로 말했다.

《차 이런, 야단이로군. 우리도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발전소건설장에서 이 차를 기다리겠고… 그렇다구 우리를 도우러 오는 군관동무를 여기에 혼자 떨구어두고 갈수도 없고… 어쩐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건설장에 가서 제격 설비를 부리운 다음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올테니 그동안 혼자서 좀 수고해주요.》

운전사가 결심이 선듯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는수밖에 없군.》

인수원도 하는수 없다는듯 물려섰다.

차는 떠나갔다. 혼자 남으니 소연한 비소리가 더욱 요란스레 골안을 울리는듯싶었다. 나무잎들을 때리는 비방울소리, 골짜기물 흘러내리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이 깊은 산중에 나 혼자뿐이라는것을 강조해주는듯싶었다.

나는 온몸을 뒹구는 적막감을 털어버리고 일에 달라붙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나는 비소리속에서 자박자박 울리는 발자국소리를 가려듣고 허리를 뻗었다.

누굴가? 이 밤중에?… 아까 그 차가 가서 사람들을 보낸걸가? 아니, 아니다. 이 발자국소리는 골짜기아래 발전소건설장쪽에서가 아니라 고개마루쪽에서 내려오고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젠 여러 사람의 발자국소리가 아니라 한사람의 발자국소리이다. 도대체 누굴가?…

나는 저도 모르게 긴장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전지불을 비치며 소리쳐물었다.

《누구요?!》

비소리만이 골안을 울릴뿐 대답이 없었다.

《군관동지가 옳군요. 어찌면…》

어둠속에서 이런 중얼거리는듯 한 말소리가 울려왔다.

《?!…》

문득 전지불빛속에 비웃을 입은 처녀의 모습이 안겨들었다. 그럼?!…

나는 전지를 내려왔다. 바로 그 처녀였다.

나는 다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급한 일이 있다며 떠나간 처녀가 어떻게 여기에 다시 왔단 말인가?

《동무가 어떻게?》

《한참 가다 돌아다보니 여기서 전지불빛이 보이더군요. 혹시 이 사태무지를 마저 처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

《그래서 다시 왔단 말이지요?!》

우리는 어둠속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있었다.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대로 고개를 넘어 읍으로 간다고 해서 처녀를 나무람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단 말인가… 절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쨌든 고맙소. 그럼 같이 해보지요. 이제 차가 사람들을 태우고 올거요.》

우리는 다시 일에 달라붙었다. 둘이 힘을 합치니 일자리가 폭폭 났다.

처녀는 말없이 수격수격 일만 했다.

나는 어둠속에서 얼른거리는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원래 입이 무거운 처녀인가. 어쨌든 처녀가 괜찮아, 이 밤중에 여기로 되돌아오다니…

나는 묵묵히 삽질을 하는 처녀에게 말을 건넸다.

《동문 원래 그렇게 말이 없소?》

《아이참…》

《차, 이거야 어디 갑갑해 견디겠나. 무슨 말인데 좀 하오.》

《…》

《동문 이름이 뭐요?》

《…》

《어디서 일하오?》

나는 더이상 묻는것을 그만두고말았다. 하긴 구태여 이름과 직업을 알아 무엇하랴.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를 내세울줄을 모르는 처녀의 그 뜨거운 마음이면 그만이지.

쉽없이 내리는 비에 온몸은 젖어들었어도 마음은 불뭉치를 안은듯 화끈 달아올랐다. 우리는 말없는 속에 뜨거운 마음을 나누며 일손을 다그쳤다.

얼마나 지났을가. 고개아래쪽에서 부릉부릉 발동소리가 울리더니 자동차가 사람들을 태우고 올라왔다.

운전사와 인수원이 운전칸에서 뛰어내려 우리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들었다.

《처녀동무가 어떻게? 정말 수고했소.》

《군관동무, 정말 고맙소. 역시 우리 인민군대가 다르다니까.》

못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말없이 웃는 처녀의 얼굴은 어둠속에서도 환히 빛나는듯 했다.

모두가 달라붙으니 일은 잠깐사이에 끝났다.

처녀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할 일이 있다면서 읍으로 떠나갔다. 이름이며 직장, 주소를 거둬 묻는데도 그저 지원자라고만 하며 떠나간 그 처녀, 어둠속에서 멀어져가며 손저으며 소리치던 그 쉼없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들리는듯싶다.

《잘 가세요.》…

언젠가는 꼭 한번 다시 만나고싶었던 처녀, 바라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문득 만나게 될줄이야.

그런데 왜 그 처녀를 인차 알아보지 못했단가. 아마도 깊은 밤, 그것도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본 모습과 오늘 판매복을 입고 나선 모습이 너무도 달라서일지도 모른다.

아니, 만나고싶던 사람을 정작 너무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미처 못 알아보게 되는 법인지도 모른다.

나는 기뻐다. 왜서일까, 나도 그 이유를 알수 없었다. 어쨌든 가슴이 뛸뛸고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찾은것처럼 들먹거리는 환희의 감정이 나를 휩싸는것이였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과 오늘 매대에서 만났을 때의 그의 모습을 상기해보며 난생처음으로 체험해보는 이상야릇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가 왜 나를 보고 그토록 놀라와했을까? 그날 밤에 나를 본 인상이 남아있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얼굴은 왜 붉혔을까?... 마지막에는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을까?...

이 의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종시 풀리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약속대로 상점에 갔다.

내가 아동옷매대앞에 갔을 때 매대앞에는 어제의 그 처녀는 보이지 않고 나 어린 판매원이 서있었다.

《어서 오세요.》

행여나 해서 다른 매대를 두리번거리던 내가 매대앞에 다가서자 어린 판매원은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상그레 웃었다.

《어제 이 매대에 섰던 판매원동무는 어디 갔소?》

나는 물었다.

《혜숙언니 말이에요?》

《음...》

(그 처녀의 이름이 혜숙이였는가. ...)

《혜숙언니 아침에 발전소건설장에 이동판매를 갔어요.》

《발전소건설장에?...》

《예, 우리 상점에서 발전소건설장에 보내는 지원물자랑 주문받은 상품이랑 실은 차를 타고 점장 어머니와 함께 갔어요.》

《내가 어제 그 동무에게 부탁한것이 있는데?...》

나는 실망한 기색을 지으며 판매원을 보았다.

《아, 그 군관동지군요!》

갑자기 판매원은 반색을 했다.

《예, 있어요. 혜숙언니가 가면서 군관동지가

오면 이걸 드리라고 했어요. 자, 받으세요.》

판매원은 흰 종이로 알뜰히 포장한 꾸레미를 내놓으며 말을 이었다.

《저... 어제 밤 혜숙언니가 이 색동옷을 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군상업관리소에도 없어서 밤중에 30리길을 걸어 삼청리상점에 가서 구해가지고 아침에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발전소건설장에 가야 할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한잠도 자지 못하고 또 떠났어요. 얼마나 봉사성이 높고 이악한 언니인지 몰라요. 나도 언제면 그 언니만큼 되겠는지?...》

어린 판매원은 부러운듯이 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판매원의 말을 들으며 그 처녀의 수고가 헤아려져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동시에 웬일인지 귀중한 그 무엇을 잃은 때처럼 가슴이 텅 비는듯 허전해지는것도 어쩔수 없었다. 꼭 그 처녀를 다시 만나고싶었고 만나서 몇마디 이야기라도 나눌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온 나였던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가 허물어져버렸다는 생각이 그 순간 그렇게도 나의 가슴을 아프게 찢었다.

무엇때문인가? 그가 내가 한 부탁때문에 온밤 자지 못하고 밤길을 걸어 색동옷을 구해주었다는 그 고마움때문인가?...

지금도 나는 그때 내 심정을 뭐라고 한마디로 짚어 말할수 없다. 어쨌든 매대앞에 그 처녀가 아닌 다른 판매원이 서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그렇게 허전하게 할줄은 정말 몰랐다.

《그 동무가 떠나면서 다른 말을 남긴것은 없소?》

사실 그것은 어리석기짝이 없는 질문이였다. 허나 한가닥 기대가 나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하게 하였던것이다.

《없는데요. ... 그저 군관동지에게 색동옷을 직접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하더라고 한 말밖에는...》

어린 판매원은 눈을 울롱하게 올려뜨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뜻인지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까딱거리며 웃음기가 찰랑찰랑 넘쳐나는 눈으로 나를 먼바로 보았다.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등골에 땀까지 바짝 솟는것을 느끼며 황급히 상점문을 나섰다.

밖에 나와서도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가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조금 지나서는 절로 상점쪽을 자꾸 돌아다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어머니앞에 색동옷꾸레미를 내놓았다.

《어머니, 통신참모동무의 딸 돌생일에 기념으로 줄 색동옷을 가져왔어요.》

《그래 곱더냐? 크기도 맞을것 같구?》

《어머니, 난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보아야 뭘 알수가 있나요. 그저 판매원이 포장해준 대로 가지구왔어요.》

《하긴 네 말이 옳다. 장가도 안간 네가 그런걸 알턱이 있니. 어디 내가 좀 보자꾸나.》

어머니는 정히 싼 포장지를 헤쳤다.

정말 칠색무지개가 무색할 정도로 아롱다롱한 색동치마저고리가 차곡차곡 개여있었다.

《야, 곱구나! 비단천이 정말 좋구나. 무늬도 곱구. 이걸 갖다주면 그애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어머니는 색동옷을 꺼내만지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더니 크기를 가늠해보려는듯 우에 놓인 저고리를 두손으로 집어 눈높이에 쳐들었다.

순간 저고리 앞섶에서 하얀 편지봉투 하나가 방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때 내 눈앞에 안겨들던 사각형의 하얀 봉투, 나는 흠칫 놀랐다.

(?!...)

《이게 무슨 봉투냐?》

어머니도 놀라 어리둥절해진 눈으로 봉투와 나를 번갈아보았다.

《글쎄요?...》

영문을 알수 없는 나도 봉투만 바라볼뿐 똑똑한 대답을 못했다.

《편지같은데 어서 뜯어보렴.》

어머니가 귀뜸해서야 나는 방바닥에서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나는 서슴어지는 마음으로 봉투를 찢고 속의것을 꺼냈다.

네겹으로 접은 몇장의 흰 종이였다. 왜선지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성급히 종이를 펼쳐들었다.

흰 종이에 잉크로 성의를 담아 꼼꼼히 박아쓴 글줄이 내 눈앞을 짙게 막으며 안겨들었다.

나는 너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에 심장이 후두둑 뛰어들라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서야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처녀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어제 제가 매대에서 동지를 처음 보았을 때 왜 그토록 놀라왔는지... 동지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군관동지에게 무례하게 군데 대해 사죄하면서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 우리 군에서 인민군대와 힘을 합쳐 건설하고있는 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한 중대장동지가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그만 희생되었습니다.

발전소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물길굴공사

를 맡아나선 인민군군인들의 작업장에서 갑자기 봉락위험이 조성되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그 시각, 그 중대장동지는 〈모두 물러서라!〉고 웨치며 동발목을 안고 비호같이 달려가 봉락직전의 바위를 받쳐줌으로써 수십명 전사들의 생명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만 쏟아져내리는 버럭에 묻혀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때 발전소건설장에 지원자로 나가 골재를 채취하고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처녀들과 함께 달려갔을 때 그 중대장동지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 군의소로 후송된 뒤였습니다.

이튿날 건설장의 숙보판에는 중대장동지의 영웅적소행이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는 환하게 웃는 중대장동지의 모습을 그린 초상그림이 큼직한 숙보판 하나를 다 차지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숙보판앞에서 중대장동지의 얼굴을 보고 또 보며 심장에 새겨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온 건설장은 중대장동지의 영웅적위훈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동지가 평소에 자기 대원들을 아끼고 뜨겁게 사랑했으며 어떻게 대오의 앞장에 서서 중대를 이끌어왔는가 하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그 중대장동지가 그만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중대장동지는 눈을 감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꼭 중대에 모시고싶었는데...〉 하는 마지막말을 남겼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온종일 울었습니다. 아니, 저뿐아니라 온 건설장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중대장동지의 묘까지 일해 하루빨리 군민발전소완공의 그날을 앞당기자고 맹세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위험한 그 순간에 동지들을 위하여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중대장동지의 모습을 그려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숙보판에서 본 환하게 웃는 중대장동지의 모습만이 눈앞에 생생하니 떠오르는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위험한 순간에 부닥치면 저 중대장동지처럼 서슴없이 한몸을 내댈수 있을까?)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저도 일상시에 영웅들에 대한 남다른 동경심을 안고 살았습니다.

붉은넥타이를 댄던 소년단시절에는 영웅동지들과의 상봉모임때면 맨 앞자리에 앉아 그들의 가슴에서 빛나는 금별메달을 보고 또 보았고 청년동맹원이 되어서도 모임장소나 길에서 가슴에 영웅메달을 달거나 훈장을 가득 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몸가짐도 정중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느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 저같은건 따라잡을 엄두도 내지 못할 신비한 사람들로 생각했

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누구나 시대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동지와 집단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깡그리 바쳐갈 때 얼마든지 그 성스럽고도 영예로운 대오에 설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중대장동지의 모습이 저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중대장동지처럼 한생을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달동안 낮에는 상점에서 손님봉사를 하고 밤에는 발전소건설장에 나가 군인건설자들을 돕는 일을 중단없이 하였고 모든 일에서 남보다 앞장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의 결심을 실천에 옮긴다는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주저앉고싶어지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중대장동지를 그려보곤 했고 중대장동지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는 그 모습으로 저에게 힘을 주고 고무를 주곤 하였습니다.

정말 그 중대장동지는 비록 희생되었지만 그 모습은 저의 마음속에 아니, 전체 발전소건설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지가 제앞에 나타났을 때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늘 그려보곤 하던 그 중대장동지의 모습과 얼마나 신통하던지 정말이지 중대장동지를 보는것만 같았습니다.

한참후야 저는 제가 그만 사람을 헛갈려보았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무안스럽던지 절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 어쩌면 이렇게도 신통히 비슷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동지를 다시 보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저를 보고 동지도 놀라셨겠지요. 동지를 놀라게 한데 대해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전 어제 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희생된 그 중대장동지나 군관동지는 비록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을 받드는 한대오에 서있는 사람,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한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더 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날 차가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럼 동지의 사업과 생활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구하신 색동옷은 다른 판매원동무에게 맡기고 갑니다. 마음에 드시겠는지.

안녕히 가십시오.

고혜숙 올림.》

편지를 다 읽고난 나는 가슴이 뜨거워났다.  
(정말 훌륭한 처녀로구나.)

나는 편지를 손에 든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제 나를 보고 처녀가 왜 그토록 놀라와했는지, 어찌하여 얼굴을 붉혔는지 리해가 되었다. 그러면서 비오는 그밤에 남들이 안 보는 깊은 산중에서 홀로 애쓰던 그 처녀의 마음에 무엇이 깃들 어있었는지 리해가 가면서 그토록 고결한 마음을 지닌 처녀앞에 마음이 후터워졌다.

나의 얼굴을 주의깊게 바라보던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편지냐?》

《...》

나는 무어라 말을 할수가 없었다. 왜선지 가슴속에 무엇인가 크고 뜨거운것이 그들먹이 차오르는듯 한 심정이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직접 보세요.》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넘겨주고는 옷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거울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보았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혜숙이라는 그 처녀가 삶의 거울로 안고 사는, 환하게 웃고있는 그 중대장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애썼다. 그토록 훌륭한 처녀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인지 그 모습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평소에 자기 대원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위험한 순간에는 그들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던 중대장, 언제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그이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애쓴 중대장, 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나는 어느만한 높이에 서있는가. ...

나의 눈앞에는 저도 모르게 비오던 그날 밤에 본 혜숙동무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얼굴에 맺힌 비방울을 훔치며 밝게 웃던 그 얼굴이 별스레 아름답게 안겨왔다.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인민군군인들이 지닌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 애쓰던 그 모습, 거창한 변혁으로 들끓는 우리의 선군시대가 키워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였다. 변모된 내 고향의 모습에는 혜숙동무와 같은 고결한 마음씨, 아름답고도 강毅한 정신을 지닌 고향사람들의 모습이 비껴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났다.

얼굴도 마음도 다같이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처녀를 알게 된것으로 하여 나의 마음은 기뻐다.

이때 아래방에서 편지를 다 보았는지 《그 처녀 쉽지 않은 처녀로구나!》 하고 혼자소리처럼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후 어머니가 《영택아, 여기 좀 내려오렴.》 하고 나를 불렀다.

나는 아래방으로 내려가 어머니앞에 앉았다.

《영택아, 내 이 편지를 보니 정말 생각되는것이 많구나. 희생된 그 중대장이나 판매원처녀가 얼마나 돋보이는지 모르겠다.

영택아, 사람은 얼굴보다 일이 고와야 한다. 일이 고운 사람은 마음도 고운 법이란단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나를 지켜보다가 다시 있었다.

《우리 집에 들어올 새머느리도 이런 판매원처녀같은 처녀를 맞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제 내 소원이야.》

순간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머니에게 그 처녀와 알게 된 사연을 다 터놓고 싶었으나 어찌선지 그럴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어 불쑥 떠오르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혀 벌떡 일어나 책상에 마주앉아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비오던 그날 밤 령길에서 있는 사연을 다 터놓았다.

《…

혜숙동무, 나는 그날 밤에 본 동무의 모습에서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동무의 마음속에서 항상 동무를 고무해주고 이끌어주는 희생된 그 중대장동무의 모습을 보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만났을 이겨내면서 자기 사는 고장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해 애쓰는 고향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도 희생된 그 중대장동무는 영원히 살아있을것입니다. 그 중대장동무처럼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그이의 뜻을 앞장에서 꽃피워나가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한 맹세를 잊지 말고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바쳐나갈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

다음날 나는 역으로 나오는 길에 체신소에 들러 편지를 부쳤다.

부대로 돌아온 나는 우리 중대를 쇠소리나는 전투대로로 꾸리고 전사들모두를 펄펄나는 싸움군들로 키워 부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사실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타고난 성격도 서로 다른 병사들모두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대대로 만든다는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또 아직은 혼란것보다 부족한것이 많은 때여서 부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혜숙동무의 편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전사들을 위하여 제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그 중대장동무처럼 병사들에게 자기의 진정을 바치려고 애썼고 고난속에서도 고향을 선군시대의 새 모습으로 꾸려가는 혜숙동무를 비롯한 고향사람들을 그려보며 힘을 내어 제기되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애썼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뜻밖에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결봉을 보니 《××군 공업품상점 고혜숙》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나는 가슴이 후두둑 뛰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은근히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불시에 편지가 날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약간 덤벼쳐지는 손으로 결봉을 찢고 속지를 꺼냈다. 꼼꼼하게 박아쓴 낯익은 글줄이 눈에 안겨왔다. 그때의 내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런지… 나는 숨을 몰아쉬며 다급히 편지를 읽어나갔다.

《영택동지, 잊을수 없는 비오던 그밤에 저에게 잊을수 없는 추억을 안겨준 동지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데 대해 사죄합니다.

동지의 편지를 받은 그날 저는 정말 기뻐어요. 역시 제가 사람을 헛보지 않았다는 믿음과 제가 가슴속에 언제나 그리며 사는 그 중대장동지와 같은 그런 사람을 또 한명 알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말이예요.

사실말이지 그밤에 영택동지가 한 행동은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인민군대만이 할수 있는 일인것입니다.

영택동지, 꼭 위훈의 창조자가 되세요. 저는 시대의 영웅, 위훈의 창조자가 될 동지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골라 지금부터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혜숙 올림.》

편지를 읽은 나의 가슴은 행복감으로 세차게 고동쳤다. 그럴수록 그렇듯 홀룡한 처녀앞에 몇몇한 모습으로 나서야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굳게 다졌다.

그때부터 나와 혜숙동무사이에는 편지가 자주 오갔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서로 힘을 주고 고무해주며 조국앞에, 시대앞에 몇몇한 모습으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줄달음쳐갔다.

그 나날 혜숙동무의 편지는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곤 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환히 웃고있는 그 중대장동무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고 더욱 아름다와졌을 혜숙동무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만날 그날을 그려보곤 했다.

그때로부터 몇년후 평양에서는 선군혁명선구자대회가 열리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 대회에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대회에는 인민군대와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수많은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했다. 모두의 가

슴에는 훈장과 메달들이 무겁게 달려있었다. 《김일성훈장》수훈자, 2중영웅, 공화국영웅, 노력영웅, 장령들과 교수, 박사들도 있었다.

나는 우리 나라에 영웅들과 수훈자들이 이렇게 많구나하는 생각에 저으기 놀랐다.

휴식시간에 나는 휴게실에 나가 창밖을 내다보며 대회에 참가하여 새롭게 느끼게 된 인상들을 되새겨보고있었다.

이때 《영택동지!》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환한 웃음을 짓고 정겨운 눈매로 나를 바라보는 그 처녀는 분명 고훈숙이었던것이다.

(아니, 혜숙동무도?...)

나는 금시 입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삼켜버렸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그의 앞가슴에서 《김일성청년영예상》메달과 국기훈장1급을 보았던것이다. 묻지 않아도 메달과 훈장이 다 말해주고있었다.

《혜숙동무!》

나는 그의 손을 와락 잡아쥐었다.

《여기서 만났구만!》

나는 너무도 기쁘고 감개스러워 오래동안 그의 손을 놓지 못했다.

《영택동지!》

그도 내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을 보며 새물새물 웃고있었다. 그 웃음이 바로 그가 나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한 꽃다발인듯.

《정말 기쁘오, 반갑소!》

나는 그의 따뜻한 손을 더욱 뜨겁게 잡았다.

가무스레하게 탄 얼굴, 처녀의 손갈지 않게 굳은살이 배긴 손바닥은 이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과 해놓은 일을 말없는 웅변으로 말해주고있었다. 나는 그의 수고가 헤아려져 뜨거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전 영택동지를 여기서 만날줄 꼭 알았어요.》

《그건 어떻게?!...》

《그거야... 믿음이지요.》

이때 회의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심장에서 홍수처럼 막 터져나오려는 말을 다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은채 회의가 끝난 다음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저녁에 우리는 다시 만나 평양의 밤거리를 함께 걸었다.

수도의 밤거리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드넓은 거리에는 궤도전차와 버스, 승용차들이 꼬리를 물고 오가고 고층살림집 창문마다에서는 불빛이 환히 내비치고 거리의 크고작은 건물들에서는 장식등들이 끊임없이 명멸하고있었다. 저 멀리 대동강너머에서는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주체사상탑봉화가 황황 타오르고있었다. 그 불빛에 물들여진 혜숙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비내리는 밤보다 더욱 세련되고 역세여진듯 한 그의 모습을 설레이는 가슴으로 바라보았다.

《혜숙동무, 그동안 수고했겠소.》

나는 오늘 이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기까지 그의 수고가 헤아려져 이렇게 말을 꺼냈다.

《저야 무슨... 최전연에서 적들과 맞서있는 영택동지에 비하면... 영택동지, 다시 한번 축하해요!》

《축하는 오히려 내가 해야겠소. 혜숙동무, 사실 말이지 난 어려울 때마다 동무가 보내온 편지들을 읽어보며 새로운 힘을 얻곤 했소.》

《아이참, 영택동지도...》

혜숙의 얼굴은 발갛하게 붉어졌다.

《난 전우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그 중대장을 잊지 못해 지금도 그 유가족들을 자주 찾아가곤 한다는 동무의 편지를 보고 정말 생각되는바가 컸소.》

《전 지금도 그 중대장동지를 생각하면 정말... 그 중대장동지는 오늘의 저를 키워준 스승이나 같아요. 전 그 중대장동지가 오늘도 저의 곁에 살아있어 피로울 땐 힘을 주고 기쁠 때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것만 같아요.》

혜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나의 가슴을 쿵 울렸다.

(그렇다. 그는 자기의 희생으로 수십명의 동지들을 구원했고 그 녀를 이은 혜숙동무와 같은 새로운 영웅들을 키워내지 않았는가! 어찌 그뿐이라. 그앞에는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을 어찌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로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들의 녀이 대를 이어져 오늘 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영웅들과 위훈자들을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혜숙이 말을 이었다.

《전 오늘 회의에 참가하여 놀랐어요. 우리 나라에 참으로 영웅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으로 말예요. 모두의 가슴에 가슴이 모자라도록 달려있는 훈장과 메달들을 보며 부러움과 존경을 금할수 없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제가 해놓은 일은 정말 보잘것 없다는 생각에 막 부끄럽고 바늘방석에 앉은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우리의 앞에 서있는, 우리를 키워준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들에 대하여 생각하며 그들앞에 떳떳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것을 생각하며...

얼마후 나는 이렇게 물었다.

《앞으로 혜숙동무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오?》

《영택동지, 전 얼마전에 군상업관리소 소장으로 임명받았어요.》

# 신 천 의 사 계 절

최 주 원

## 봄날에도 가슴속엔

산이 그대로 꽃송인가  
꽃이 그대로 산을 이루었는가  
울긋불긋 온갖 꽃 구름처럼 핀  
신천땅엔 꽃을 즐기려 오는이 없다

계절은 하마 아름답고 화창하건만  
누구나 가슴저린 아픔에 못 떠나는 신천  
억울하게 생죽음 당한 평흔들앞에서  
누구나 서리발 창검 버려드는 땅

봄은 꽃을 앞세우고 예 왔건만  
가슴속깊이 분노가 끓어번지는  
아, 이 땅 이 신천땅에선  
봄날에도 가슴속엔 겨울인듯 서리치누나

## 석 당 교 우 에 서 니

허공을 짓째며 번개불 번뜩이니  
우뢰치는 천둥 땅을 깨칠듯  
신천의 하늘가에 후둑 후두둑—  
급작스레 퍼붓는 한여름 소나기

화락 젖어드는 웃도 아랑곳없이  
석당교우에 서니 치솟는 생각  
내리는 비에 씻겨가라 그날의 피자옥  
흐르는 물에 실려가라 그날의 상처

바다를 통채로 기울인대도  
피의 그 상처만은 결코 씻을수 없어  
아, 통분에 두드리는 심장속깊이  
증오의 뜨거운 불비 쏟아지는 여름!

《저런!》

나는 놀라운 눈길로 그를 보았다.

《할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는 생각에 잠겨 폭 가라앉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여간한 이악쟁이가 아니고 일육십  
이 많은 그가 새로운 임무도 능히 감당해내리  
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그 불타는  
열정과 갈망속에서 사는 그가 미구하여 영웅으로  
자라날것이라는것도 확신했다.

밤하늘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 가을은 어디에나 있어라

들가득 누으런 벼바다 지나  
골가득 밤이 영근 밤나무골 찾으니  
툭— 툭— 익은 밤이 터지는 소리  
여기선 말없는 나무도 말을 하는가

사백어머니 못다 남긴 말  
백둘어린이 못다 터친 울음  
복수를 부탁하던 그 수천마디  
온 팔안에 맺혀 구울러 50여년

풍요한 가을은 어디에나 있어라  
허나 신천의 가을은 튼다르구나  
못 갚은 피의 원한 오늘도 재워안고  
밤송이도 총탄되어 영그는 가을!

## 함박눈 날리는 들판에서

평—평 함박눈 날리는 들판에서  
신천의 아이들 눈싸움한다  
눈으로 빚은 미제 양코배기  
눈덩이로 때려잡는 복수의 계절인듯

이 땅에선 철없는 아이들조차  
원썩에 대한 증오로 철이 드는가  
던져도 던져도 도무지 성차지 않아  
만신창된 미제놈 아예 발길로 짓뭉개네

아, 눈오는 계절의 한갓 놀음이라  
미제에게 천백배 죽음을 선언하며  
총을, 총을 잡을 병사가 될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겨울!

그 순간 나에게는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서 빛나는 자연계의 별들이 아니라 오늘 대  
회장에서 나를 놀라게 했던 수천명의 대표들의 가  
슴에서 빛나던 훈장과 메달들 아니, 이 땅의 수  
많은 영웅들의 가슴에서 빛나고있는 훈장과 메달  
들이 오늘 밤 저 하늘에 떠올라 저렇듯 찬란히 빛  
나고있는듯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훈장  
과 메달들이 빛을 뿌리며 우리의 앞날을 축복  
해주는듯싶었다.



## 리 명 호

이른봄이 늦겨울과 정답게 어울린듯싶은 쌀쌀한 계절 한낮의 개울가에 한 소녀가 앉아있었다. 그는 무릎위에 턱을 고이고 앉은채 아까부터 무엇인가를 유심히 살펴보고있었다. 하늘을 향해 빠금 얼굴을 내민 노르스름한 싹이 그의 호기심어린 눈길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고있는것이다.

《애 희연아, 넌 여기서 뭘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냐?》 엄마의 목소리가 울린다.

소녀는 엄마때문에 고운 꿈에서 깨어난것이 무척 아쉬웠다. 그냥 지켜보느라면 싹은 자라고자라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워 뒤산의 돌배나무나 들안의 살구나무처럼 달디단 열매를 맺을것만 같았다.

《야, 정말... 엄마때문에 요게 막 달아나려고 해요. 보라요, 땅속으로 숨어버리는거. 쪼끔만 있으면 내게 사탕처럼 단 열매를 주겠다고 했는데...》

바람이 일면서 양지쪽 안침진 곳에 돌았던 노오란 싹우에 부실부실 흙부스레기들이 떨어져내리자 애는 금시에 울상이 되어버렸다.

《그건 과일나무가 아니란다. 네 말처럼 그렇다 해도 열매는 여러해가 지나야 주렁주렁 달린단다. 하지만 그건 절로 차례지는게 아니야. 물도 주고 약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정성들여 가꿔줘야 해.》

까부장하니 들리운 속눈썹밑의 까만 눈을 삼박거리며 놀라는가싶던 소녀는 이내 입술을 찌그러뜨렸다.

《아니야, 아니야. ...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

끝내 소녀의 입에서는 쉼디쉼은 흐느낌소리가 터져나왔다.

×

푸른 달빛이 창가로 고즈넉이 흘러드는 밤. 희연은 착잡해지는 생각에 잠 못이루고 잠자리에서 궁싹거리고있었다. 깊은 잠에 폴아떨어진 애

들의 숨소리가 방안의 정적을 건드린다.

(어쩌면 그럴수 있을가. 지배인동지가 어째서?) 연유절약첨가제의 성공을 위해 자기를 도와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온 정영길지배인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 얼마후에 진행되는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연유절약첨가제를 출품하려는 희연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것이였다. 각종 료전기재들에서 쓰이는 연유의 소모량을 줄일 목적에서 연구한 연유절약첨가제는 수백번의 시험과정을 거쳐 그 성공여부가 명실공히 인정된것이였다.

희연은 지배인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고 또 그의 말을 직접 듣지 못한것으로 해서 한가닥의 위안도 가져보았으나 그것은 질은 안개속처럼 너무나 희미했다. 아까 들렸던 기사장이 남긴 야릇한 공기가 방안에 그냥 떠돌고있었다.

《나도 이번 기회에 우리 군농기계작업소를 소문내보자구 별러왔는데 지배인동문 달가와하는 기색이 아니더군.》

그의 아들이 희연과 함께 기술혁신소에서 일하면서 연유절약첨가제연구를 조력해왔으니 기사장의 심정도 이해할만 한 일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일만 끝내고는 아들을 대학보낼 궁리를 하고있는 그였다. 연유절약첨가제의 공개가 지배인때문에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자 어쩔수없이 희연의 눈앞에는 그를 처음 알게 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으나 희연은 그냥 한자리에 누워있었다. 눈을 뜨기조차 싫었다. 주위를 의식하느라하면 눈앞의 모든것이 조소와 경멸, 비웃음의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 압박하듯 가까이로 서서히 다가드는 환각에 빠져들곤 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차사업소에서 어제 밤에 이어 새벽녘까지 진행된 연유절약첨가제시험의 실패로 정신적허탈감에 빠진것이였다.



(내가 과연 끝까지 해낼수 있을까?)  
생각속에 잠겼던 희연은 속으로 흠칫 놀랐다.  
연유절약첨가제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그 어떤 즐거운 예감으로 한껏 들떠  
있던 그날과는 달리 섬약하고 나약해지는 자기를  
발견한것이였다.

이때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려왔다.

《제십니까.》

귀 선 목소리에 희연은 반쯤 몸을 숙구었다.  
이마우에 없었던 물에 젖은 수건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희연동무지요?》

《?!》

《우린 온천군 농기계작업소에서 왔소.》

자기들이 그곳 지배인, 기사장임을 소개하고  
나서 그들은 방으로 들어섰다.

《앉고있구만.》

몸매 다부지고 이마가 약간 벗어질사한 지배인  
이 머리말에 놓인 물소랭이와 방바닥에 떨어져있  
는 수건을 번갈아보며 하는 말이였다.

《난 희연동무가 보통 녀인과는 달리 이익하고  
속이 굳은줄 알았더니 마른 삭정이였군그래.》

《?!...》

《다 아오. 차사업소에두 들렀됐구.》

옆의 기사장이 저들이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  
다. ... 나라의 긴장한 연유사정은 온천군에도 영향  
을 미쳤다. 군내 농사에 쓸 연유배정량이 넉근치  
못했던 지난해에 비해 또 줄어든것이였다. 지배인  
의 방에서 협의회가 열렸다. 보다 엄격한 연유  
공급질서와 함께 절약을 위한 여러 안들이 제기되  
였으나 정영길지배인의 낮은 여전히 어두웠다.  
답답해난 가슴을 식히련듯 자리에서 일어난 그  
는 창문을 활 열어제겼다. 찬바람이 쓸어들며 방  
안을 짹 채웠던 담배연기를 창밖으로 몰아냈다.

《물론 우리 농기계작업소에서 농기계들을 수리  
정비하고 필요한 부속품들이나 생산하면서 국가에  
서 배정받은 연유를 공급한다고 누가 나무랄 사  
람은 없소. 그렇다고 우리가 온 겨우내 수리한 농  
기계들을 세워놓아야 옳겠소?》

그의 말에 모두들 침묵을 지켰다.

협의회는 이렇다할 소득없이 끝났다.

낮가락같은 초생달이 서편하늘에 걸린 저녁 정영  
길지배인과 기사장은 함께 퇴근길을 걷고있었다.

《지배인동무, 집에 가서 저녁이나 하지 않겠  
소?》

《?!》

그들이 함께 사업해온지도 7년이 넘었다. 나이  
도 동갑이여서 둘이 있을 땐 너나들이로 허물  
없이 지내오느라였다.

《젠장, 상앞에 마주앉기래두 하구려. 아들녀석  
이 대학입학시험에서 떨어졌소.》

《?!》

그래도 학교적으로는 다섯손가락안에 든다고 늘  
자랑이던 아들이였으니 기사장의 울직한 심사가  
리해된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튀어  
나왔다.

《싫네. 대학에 붙었다면 몰라두 떨어진 애한테  
동정을 줄텐가.》

갈림길에 이르자 영길은 내치 집쪽으로 꺾어들  
었다. 기사장은 그의 뒤모습만 응시할뿐이였다.

다음날 이른아침이였다. 여느때없이 일찍 집  
을 찾아온 지배인이 기사장을 마당으로 불러냈다.

《빨리 차비하게. 함께 갔다올데가 있네.》

나란히 자전거를 달릴 때에야 그는 사연을 말했다.

《이웃군에서 연유절약첨가제를 연구하고있소.  
인희연이라고 가정부인인데 오래전부터 그걸 연구  
해왔다고.》

그들은 차사업소에 가서 희연의 연유절약첨가제  
시험이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되였다. ...

《희연동무, 어떻게? 우리 농기계작업소에 와서  
연유절약첨가제를 연구해보지 않겠소?》

《?!...》

희연은 물끄러미 정영길지배인을 바라보았다.  
늘 웃는듯 한 눈이며 룡광이 뚜렷한 입, 날 무딘 턱  
에서는 사람이 엄해보이면서도 후한 인정미가 느껴  
진다. 그에게서 풍겨나는 진정이 눈뿌리를 달군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 어디서건 환영의 손길을  
보내며 반기지만 실패한 인생에는 외면과 동정이  
뒤따르는것 아닌가.

그러나... 희연은 속으로 도리머리를 저었다.

생활의 길은 미끈히 뻗어간 대도로가 아니다.  
구배심한 자갈길이 있는가 하면 가시덤불진 울리  
길도 있으며 비내리는 진창길도 있다.

그의 맘속을 들여다보는듯 정영길지배인의 목소  
리가 다시 방안을 울렸다.

《열번 쓰러졌다가도 백번 일어서는게 인간이  
아니겠소. 힘을 내야지.》

《...》

희연의 여전한 침묵에 영길은 자리에서 일어섰  
다. 밖은 벌써 어두워지고있었다.

그들은 떠나갔다. 쓸쓸한 적막감이 방안에 홀로  
선 희연의 몸을 휘감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영길이네가 남긴 체취가 마쳐오  
자 서운한 감정이 가슴속을 누볐다. 이제라도 소  
리쳐 불러 그네들을 멈춰세울수만 있다면!...

감정은 그들에게 속후련한 대답을 주지 못한 자  
신을 힐난하고 질책하며 후회했으나 내심에서 강  
하게 울려나온 리성의 목소리는 경망스런 녀인을  
되게 꾸짖고있었다. 남의 어깨에까지 짐을 지우지  
말야.

다음날 새벽 자리에서 일어난 희연은 탄을 들이  
려고 밖으로 나갔다. 애들이 늦지 않게 밥을 지

어주어야 했다.

이틀전에 내린 비로 땅은 질척했다. 희연의 걸음이 무뎠어졌다. 새초무지를 벽삼아 기대앉은 채 책꾸레미 같은것을 품에 끌어안고 잠든 정영길 지배인을 띄어본것이다. 그의 옆에서는 기사장이 코를 골며 자고있다. 봄날의 새벽행기가 옷설을 꿰는지 새우처럼 꼬부린 그의 몸이 더욱 웅충그러진다. 정영길지배인이 눈을 떴다. 그는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듯 뿌연 눈으로 희연이쪽을 찌긔해보고는 분명치 않은지 눈을 부비고 다시 본다.

《허, 내가 깜박 졸았군그래.》

그는 몹시 미안쩍어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꾸레미를 희연의 앞으로 내밀었다.

《과학원에 있는 친구에게 갔더니 동무에게 이 책을 주라더군. 연유절약첨가제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말이요.》

《...》

희연은 가슴이 뭉클해나며 목이 짹 메여났다. 영길의 어꺼너머 집주위를 따라 무수히 찍혀진 발자국들이 눈에 밝혀났다.

잠이 든 나를 깨우는것이 미안스러워 집주위를 거닐며 온밤을 새웠을 저 인간, 나를 위해 깊은 밤 백여리길을 다녀오기도 무엇이 미안스러웠던가. ...

《나라의 긴장한 연유사정때문에 속이 탈 때마다 난 대학때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회까지 오더군. 희연동무, 연유절약첨가제연구가 우리의 과제는 아니요. 하지만 동무나 나나 이 나라 공민들이 아니겠소.》

희연은 이윽도록 정영길지배인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한 말의 의미를 가슴속에 깊이깊이 새겨안으려는듯...

희연이가 필요한 수속을 끝내고 애들과 함께 온 천군으로 이사온 날 점심무렵이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봄날의 하늘가엔 제비들이 쌍지어 날고있었다.

희연은 정영길지배인과 함께 그가 가져온 감나무를 심기에 여념이 없었다. 담둘레를 따라 구멍이를 파고 부식토를 깔고 물을 길어다 붓고...

새집으로 이사온 기분에 애들은 들까불며 오구작치고...

그날에 희연은 영길지배인에게 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터놓지 않던 소녀시절 얘기를 하였다.

《...그 소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만 어리둥절해졌답니다. 자기가 무작정 믿었던 짝이 파일나무의 땀아가 아니란것도 놀라왔지만 파일열매가 무르익기까지의 과정이 신비스럽고 믿어지지조차 않았지요. 그래서 소녀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로 개울가에 달려가곤 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주변의 풀도 뽑고 바람에 뿌리가 상할세라 주먹만 한 자갈들도 갈아주었지요. 소녀의 가혹한 마음을 알아서인지 차츰 땅울이 부풀어져오르더니 나중엔

향기그옥한 꽃송이가 피었습니다. 애는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답니다. 돌배나 살구처럼 크고 단 열매가 달린다고 믿고있었던거랍니다. ...

소녀는 자기가 엉터리였다는것을 여름계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알았지만 중학교를 다니는 기간 이 유년시절 일을 잊을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소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꿈을 다시 꾸게 될줄은 본인조차도 미처 몰랐답니다. ...》

이때 애들이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농기계작업소에서 지배인아저씨를 급히 찾는대요!》

×

옆에 누운 아들이 잠꼬대를 하며 발로 이불을 차버린다. 그의 이불깃을 여며주고나서 희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통통통... 어디선가 새벽대기를 흔들며 트락트르의 발동소리가 가까이로 다가왔다. 희연은 얼른 창가쪽을 살펴보았으나 트락트르의 동음은 차츰 작아지더니 사위는 다시 쥐죽은듯 고요해졌다.

그러나 희연의 가슴속에 세찬 충동을 불러일으키며 추억의 동음은 계속 심장을 두드려대고있었다.

...농기계작업소 회의실에서는 종업원들의 총화모임이 두시간째 계속되고있었다.

맨 나중에 들어와 장내 구석쪽에 자리잡고앉은 희연은 고개를 수긋한채 한가지 생각에만 골몰해있었다. 옳다, 연구된 시약에는 결함이 없다. 문제는 시약이 개봉된 후이다. 혹시 시약이 대기온도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게 아닐가. 시약을 제조한 즉시 유기물질과 혼합해준다면?...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으며 마음이 급해나고 회의가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때 옆에 앉은 사람이 팔굽을 건드리며 앞쪽을 눈짓했다.

《...자기가 살고있는 마을, 자기가 일하고있는 공장과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아름답게 꾸리는것은 우리모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희연동무네 기술혁신조에서는 연유절약첨가제의 중요성만 내세우면서 양어장꾸리기에 잘 참가하지 않고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기술혁신조에서는 한명도 동원되지 않았습시다.》

희연은 놀래며 옆에 앉은 기사장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제 저녁 연유절약첨가제의 실패원인을 찾아내느라고 몸 뻘 시간이 없어 그만을 작업에 내보냈던것이다.

희연은 주석단에서 손세까지 써가며 제 이름 거들기를 반복하고있는 로동부원이 못마땅스럽기도 했지만 작업에 빠진 기사장의 아들의 행동에 더 아연실색했다. 지배인에 대한 미안한 생각에 그를 찾아보았으나 회의때면 늘 앉곤 하던 주석단 가운데자리는 비어있었다. 그제서야 희연은 지

배인이 연유절약첨가제의 미분에 손절구를 리용하던 이전의 방법을 없애고 기계식절구를 도입하기 위해 직접 설계를 하고 아침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구하려고 어디론가 떠난것을 상기했다. 어쩐지 이번 일로 하여 연유절약첨가제연구를 성의껏 돕고있는 그의 체면이 한결 깎이운듯 한 죄스러움이 가슴속에 갈마들었다.

요즘 농기계작업소내에서는 회연의 연유절약첨가제연구를 두고 이상한 공기가 떠돌고있었다. 나날의 흐름속에 연유절약첨가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머리를 기웃거리는 축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깨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느니, 공연히 승산이 보이지 않는 환상적인 연구에 너무 기대를 걸고있다느니 하며 수군거리는 말들이 회연의 귀가에서까지 맴돌았다. 그 말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정영길지배인까지도 녀두에 둔 말들임을 모르지 않는 회연이었다.

다음날 회연은 출근하자바람으로 지배인의 방으로 갔다. 간밤에라도 그가 돌아왔음직했던것이다. 방앞에 이르러 문을 막 두드리려던 참이었다. 문틈새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제 그래서 회연동무에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일부 동무들이 지배인동지가 회연동무네를 너무 어루만진다고 생각하고있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 농기계작업소 행정측의 립장도 명백히 할겸 제과한 말도 좀 했습니다. ... 아마 〈약〉이 너무 썼던 모양입니다. 회의하며 보니 몹시 의견있어하는 것 같더군요.》

《...》

그 자리에 더 있을수 없었다. 회연은 로동부원의 말에 쫓기우듯 현관밖으로 재우쳐나왔다.

방에 들어와 앉아서도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시간의 촉박감에 떠밀리워 어쩔수없이 들여다보는 현미경속에서 얼른거리는것은 침묵을 지키던 지배인의 모습이였다.

나때문이야, 나때문에. ...

회연은 어깨를 떨어뜨리며 두손에 얼굴을 묻었다. 심한 피곤을 느꼈다.

《회연동무가 몹시 지친 모양이로구만.》

돌아보니 등뒤에 로동부원이 서있었다. 측은해하는 눈빛으로 회연을 바라보고 섰던 그는 한옆에 있는 의자를 끄당겨앉았다.

《내가 회연동무에게 온것은... 연유절약첨가제연구 말ियो, 일단 중단했다가 후에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소?》

《?!...》

《직방 말하기요. 사실 연유절약첨가제연구를 놓고 지배인동무에 대해 말들이 많소. 난 지배인동무가 말밥에 오르느것을 바라지 않소.》

《그럼 연유절약첨가제연구를 포기하자는건가요?》

《아니, 잠시 중지했다가 과학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시작하자는거요.》

《알만합니다. 하지만 전 연유절약첨가제연구를 중도반단할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제 하나뿐이 아닌...》

회연은 자기가 울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그는 로동부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끝을 맺었다.

《제가 여길 뜨면 그만일테지요.》

집에 돌아오자바람으로 회연은 이사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두 오누이가 오도카니 앉아 겁먹은 눈길로 어머니의 손놀림만 지켜보고있었다.

《엄마, 우리 이사가는거 아니지?》

《...》

딸애의 울먹울먹한 목소리에 회연은 흠칫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싫어, 싫어. ... 난 안갈래. 우리가 가면...》

아들애가 동생의 입을 급히 싸쥐는 바람에 속을 굽던 칭얼거림은 잠시 끊어질듯 했으나 뒤이어 비명인양 길게 터진 말은 회연의 가슴을 끝내 허벼 놓고야말았다.

《... 저 감나무들을 누가 가꿔주나. ...》

회연은 얼굴을 뻗 돌리며 그냥 발버둥치고있는 딸애에게로 다가들었다.

《누가 너더러 그런 걱정하랬니? 누가...》

그러나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들었던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딸애를 와락 품에 안았다.

애야, 이 엄마도 네가 지배인동지에게 이제 감알이 달리면 제일 크고 단것으로 주마고 약속한걸 안다. 하지만... 이제 이 엄마가 연유절약첨가제를 성공한 다음 그때 지배인아저씨께 달려가 자꾸나. ...

밖에서 트랙토르의 발동소리와 함께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대문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영길지배인의 등식한 얼굴이 문가에 나타났다.

《도망치려는군.》

생각과는 달리 그의 낯빛은 평온했다. 애써 자제하는걸가? 애들앞이어서?

《왜 그러고있소? 마저 짐을 꾸리지 않구.》

《?!...》

《왜 놀라는거요. 올 때 내가 모셔왔으니 갈 때도 데려다주는게 도리가 아니겠소.》

이사짐을 실은 트랙토르를 뒤에 달고 정영길지배인이 운전하는 《깡생》 승용차는 길을 떠났다. 정든 거리의 정경이며 낮익은 얼굴들이 차창결을 스쳤다. 회연은 마음이 서글퍼졌다. 정영길지배인을 처음 알게 되던 그날 저녁처럼...

《회연동무, 한가지 묻겠소. 어떻게 되어 연유절약첨가제를 연구하게 되었소?》

《?!...》

회연은 시창에 눈길을 박은채 차를 몰아가는 영

길의 뒤모습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운 농기계작업소가 다 아는 일을 그가 어찌 모르랴. 의혹속에서도 어쩔수없이 떠오르는것은 김운선 선생의 모습이었다.

연유절약첨가제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회연동무, 국가에서 아무리 많은 대학생들을 공부시켜 사회에 내보낼들 무슨 소용이 있소. 동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요. 난 대학졸업증이 그의 위신이나 높여주는 증명서가 아니라 자기를 키워준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내세워주고 믿어주는 신임장이라고 말하고싶소.》

마침내 회연은 운선선생의 연구를 도와나섰다.

운선선생은 연유절약첨가제에 대한 모든 연구자료들을 넘겨주고 그와 편편된 과학기술자료들을 회연이가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 배가의 정력을 기울였다. 반년후 인회연이 원숙한 안목으로 연유절약첨가제의 현재 결함과 그 해결가능성에 대해 제반의 주장을 내세울 때 그를 바라보는 운선의 눈에는 밝은 미소가 비껴있었다. 그것이 회연이 본 그의 마지막모습이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되고 마음속 의지가 되었던 것은 연유절약첨가제의 전망을 두고 환히 웃으시던 운선선생의 마지막모습이었습니다. 연유절약첨가제를 기어이 성공해냄으로써 운선선생의 그 모습을 영원히 지켜드리는것이 제자된 저의 도리를 다하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 유년시절에 품었던 꿈을 기어이 성취하는것이 소원이기도 하였지요.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키워내는것—이것 말이에요.》

연유절약첨가제를 성공하기 전에는 자기의 속생각을 털어놓을수 없었던 그가 이곳을 떠나는 지금 어째서 정영길지배인앞에 이 말을 하게 되는것인지 자기로서도 알수 없었다. 나는 결코 내 개인의 명예를 바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남기고싶어서인가? 아니면 정영길지배인앞에서 동정을 구하는건가?...

정영길지배인의 목소리가 차안을 울렸다.

《그러니 동무의 연유절약첨가제연구는 동무 스스로 걸머진 도덕적책임감이였겠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게 전부일가.》

《깡생》 승용차는 새로 지은 다층주택앞에 이르러 멈춰섰다. 회연이 묻는듯이 지배인쪽을 바라보고 앉았는데 그제서야 지배인이 얼굴을 돌렸다.

《발소. 입사중이요.》

《?!...》

《그럼 내가 동물 농아보낼줄 알았소. 내가 지배인자리를 내놓는데두 동문 여기 있어야 해. 어떻게 찾아낸 인재라구.》

《...》

그때 회연이 무슨 말을 할수 있었으랴.

그는 속으로 울고있었다.

그날 늦은저녁 회연은 정영길지배인이 기사장의 아들과 로동부원을 꾸짖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넌 대학생들을 부러워하며 대학에 가려고 하고있는데 그보다 먼저 그들앞에 창피를 느껴야 한다. 그들은 나라의 강성대국건설에 이제 한몫 단단히 할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 지식의 탑을 쌓아가고있다. 그런데 네너석은 흥청퐁청 건달만 부리고있으니 말이다. 대학이 너의 창피를 메꿔주고 자존심이나 만족시켜주는 곳은 아니야!》

한창 그에게 줄욕을 퍼붓고난 지배인은 로동부원에게로 돌아섰다.

《오늘 동문 내 체면같은것을 녀두에 두고 말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시간이 모자라 안타까와하는 회연동무의 연구사업부터 관심을 돌려야 했소.》

동무도 그가 어떻게 돼서 이 연구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들었을테지. 전문가도 아닌 그가 나라의 아픔을 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글타글 뛰고있는데 그게 뭇때문이겠소? 그건 바로 조국앞에 지닌 공민적의무감이란 말이요.

그래 나나 동무에겐 공민적의무감과 도덕이 없단 말이요?

명심하오. 나나 로동부원은 이제라도 누가 대신 할수 있어도 인재는 누구도 대신 못해!》

정영길지배인은 기계식절구도면이 분명한 종이말이를 손에 쥐고 제 방으로 향했다.

고개를 떨어뜨린 로동부원과 기사장의 아들이 못박힌듯 서있었다.

정영길지배인의 방에 불이 켜졌다. 환한 불빛이 쏟아져나오는 창문가로 기계식절구도면인듯싶은 종이말이를 들여다보고있는 정영길지배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회연의 마음속엔 뜨거운 눈물이 내리고있었다.

아! 고마운 인간, 조국앞에 어떤 자세로 서있어야 하며 어떻게 도리를 지켜야 하는가를 매일 매 시각 가르쳐주는 사람...

치익— 밥 짓는 소리와 함께 눅가마옆으로 물줄기가 그어진다. 언뜻 생각에서 깨어난 회연은 주위가 환해진듯 한 느낌에 부뚜막앞에서 몸을 일으키며 밖을 내다보았다. 푸름푸름 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지배인동지를 만나 모든것을 알아보자.)

×

아침일찍 출근길에 나선 회연이가 막 잔걸음을 놓을 때였다. 뒤에서 누구인가 찾는 소리가 들렸

다. 돌아보니 기사장의 아들이다.

《연유절약첨가제가 이번 축전에 나가지 못하나요?》

《…》

이미 어디서 연유절약첨가제가 전국과학기술 축전에 나가지 못하게 된 소식을 들은 모양 그의 얼굴엔 울적한 심사가 짙게 비껴있었다. 연유절약첨가제만 성공하며는 대학에 간다고 입버릇처럼 외우던 그이그보면 지금의 심정이 리해된다. 희연은 그가 측은하게 여겨졌다.

《너무 걱정말아. 그렇다고 네가 대학에 못 갈 수야 없지 뭐.》

《?!… 대학 말이에요? 난 대학공불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

《지배인동지의 말이 옳았어요. 난 대학정문 안에 뿔뿔이 들어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였어요. 대학이란 결코 희망하고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척척 받아주는 곳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정하려고 해요.》

희연은 기사장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듯 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나 자기를 안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생의 목표로 정했던 운명의 길을 새로 시작한다는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정영길지배인의 가슴아픈 《매》가 없었더라면… 혹 어떤 우연의 결과로 기사장의 아들과 같이 재능이 엿보이지 않은이들이 대학의 해맑은 창가에 곁들여 앉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나라의 강성대국건설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라는것이 인정될 때 인생은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기사장의 아들과 헤어져 지배인방앞에 다가설 때까지도 희연은 이런 생각을 했다.

의외에도 지배인의 방엔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희연이가 잠시 머뭇거리고있었는데 옆방 문이 열리더니 기사장이 나타났다.

《지배인동문 오늘 새벽에 금천농장으로 떠났소. 그 농장에서 어제 전화편락이 왔는데 연유절약첨가제를 넣은 트랙토르들을 몽땅 세웠다고.》

《?!…》

희연은 하마트면 자리에 폴짝 주저앉을번 했다. 딛고선 바닥이 흔들리우고 눈앞의 모든것이 춤추듯 했다. 가까스로 복도벽에 손을 내짚었다.

《희연동무.》

기사장의 놀란 웨침이 간간이 들려왔다. 안개발이 걷히듯 그의 모습이 차츰 선명해졌다. 그러다가 편쩍 눈을 떴다. 내가 어째서 이러고있담. … 희연은 자기를 붙잡는 기사장의 부름을 뒤에 남기고 황황히 농기계작업소 정문을 나섰다.

숨을 몰아쉬며 달리면서도 희연은 속으로 아까 하던 기사장의 말을 부정했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우리의 연유절약첨가제가 어떤것이기에… 절대로 아니야, 아니야. …

연유절약첨가제가 성공하던 날 기뻐 울며 눈곱을 훔쳐내던 정영길지배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갑자기 옆을 스쳐지나는듯 하던 《깡생》 승용차가 저만치 뒤에서 멈추어섰다.

《희연동무.》

뒤를 돌아본 희연은 차에서 내리는 지배인을 알아보았다. 숨가빠 그에게로 달려갔다.

《어떻게 됐다는겁니까. 연유절약첨가제가…》

《우리 희연동무한테도 성미가 불같은데가 있었군. 허허…》

영길은 옆에 선 운전사에게 의미있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연을 이야기했다.

…연유절약첨가제가 성공한 후 영길은 몇개의 농장들을 선정하여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 이럴 즈음에 이번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연유절약첨가제를 내놓으려는 희연의 의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의할수 없었다. 비록 연유절약첨가제가 수백번의 성능시험을 거쳐 성공한것일지라도 현지 사용자들의 호평과 담보가 있어야 했다.

마침내 금천농장에서 전화가 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용인즉 연유절약첨가제를 넣었던 트랙토르의 기관이 갑자기 달아올라 발동을 꺼버렸다는 것이었다. 영길은 부랴부랴 대기중에 있던 《깡생》 차운전사를 흔들어깨웠다. …

《그런데 알아보니 글썄 그 친구들이 연유절약첨가제를 많이 넣을수록 디젤유가 더 많이 절약되려니 하는 욕심에 사용법에 어긋나게 비율을 높여 섞지 않았겠소. 희연동무, 축하하오. 이제는 우리가 연유절약첨가제를 세상에 내놓고 뿔뿔이 자랑할수 있게 됐단 말이지요, 하하하. …》

희연은 현훈증을 느꼈다. 가슴속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격정의 파도우에 여적 한구석에 몽켰던 속된 감정들이 떠실려 사라졌다.

《지배인동지!》

희연은 이 말 한마디밖엔 더 할수가 없었다. 아, 어머니조국에 대한 도덕의리를 심장속 깊은 곳에 지닌 사람, 저 인간에 비해볼 때 나는 얼마나 아득히 뒤떨어져있는것인가.

희연의 얼굴에선 두줄기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리고있었다.

×

그로부터 얼마후 평양에서 열린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연유절약첨가제에 1등상이 수여되고 국내 특허권을 받았으며 며칠 있어 진행된 국제새기술

및 상품전람회에서는 금상을 수여받게 되었다.  
 희연이 탄 열차가 역구내에 들어서고있었다.  
 역구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웅게중게 모여 희연을 기다리고있었다. 그속에서 정영길지배인이 마치 제 자식 자랑을 하듯 환한 웃음속에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있었다.

《...그 소녀는 그냥 울면서 고집을 부렸다고.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단 열매가 열린다겠지. 얼리다못해 그럼 네 말대로 그 열매들이 달리면 어떻게 하려는가고 소녀에게 물었더니 글썽 <어머니에게 드릴려구 그래요.> 이렇게 대답했다지 않소, 어머니에게 드릴려구. ...》

## 조선로동당창건 65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운동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조직화하고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문학사업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99(2010)년 10월 10일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이한다.

김일성민족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위대한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주체문학건설의 새로운 성과로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을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전국문학축전작품의 종류

- 소설문학  
단편소설, 실화문학, 수필
- 시문학  
서정시, 가사, 장시
- 아동문학  
단편소설, 단편동화, 우화, 동요, 동시
- 고전문학  
사화, 전설
- 문학평론  
평론, 단평

### △전국문학축전작품의 주제

- 우리 당을 로속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주제로 한 작품.
-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인 청년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

-6. 15북남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위해 떨쳐나선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 이밖에도 주제분야에는 제한이 없다.

### △전국문학축전 참가대상과 작품을 보낼 곳

#### -축전참가대상

조선작가동맹의 모든 맹원(후보맹원 포함)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 -작품을 보낼 곳

전국문학축전작품은 작품의 종류에 따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출하며 우편통신으로 발송하는 경우 《전국문학축전작품》이라고 밝혀야 한다.

### △전국문학축전기간과 총화사업

#### -축전기간

주체98(2009)년 9월부터 주체99(2010)년 9월말까지.

전국문학축전작품들가운데서 우수한 작품들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동맹기관지들을 비롯한 출판물들에 발표한다.

#### -총화사업

전국문학축전작품심사결과는주체99(2010)년 11월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와 중앙의 신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며 입선자들에게는 해당한 시상을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 세부묘사와 작가의 탐구정신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를 두고—

리 용 일

최근에 약속이나 한듯이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달려가 위훈을 떨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형상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이 나왔다.

그중에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사랑을 받는것은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리준호작)의 주인공들이다.

이 장편소설에서는 4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지하 1만 8천미터를 굴진하여 새 탄밭을 마련해가는 전국고속도굴진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고난의 행군》에 이은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에 전국에서 모여온 청년돌격대원들이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를 커다란 승리로만 여기고 지날수 없다.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청년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사랑에 관한 문제를 툴리도덕적 문제로 전환시켜 의의있고 깊이있게 해명하였다.

여기에 청년들의 사랑문제를 취급한 이어의 작품들과 구별되는 사상주제의 특징이 있고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있는것이다.

그 형상적요인의 하나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활세부에 대한 묘사에서 찾아보게 된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인 청년돌격대 대장 김용남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새로운 발파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 갱의 봉락과 침수를 막기 위한 희생적인 투쟁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청년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이러저러한 생활사실들이 펼쳐져있을뿐이다. 하나로 일관된 이렇다할 사건이나 복잡하게 얽힌 요란스러운 이야기줄거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남이네들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모습으로 친근하고 감동깊게 안겨오는것은 작가가 현실생활속에서 인물성격의 주도적특질을 보여줄수 있는 세부를 정확히 선택하여 인상깊게 묘사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된다.

소설의 이 긍정적특징은 세부묘사와 인간생활, 세부묘사와 작가의 탐구정신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하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세부묘사는 사실주의적묘사의 기본형태이다. 소설에서는 인물을 그리든 한

경을 그리든 할것없이 세부묘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작품의 종자나 소재가 현실생활속에 있는것처럼 세부도 생활속에 있다.

최근에 나온 몇몇 장편소설들은 일정한 사건과 이야기줄거리가 있지만 세부묘사가 약한것으로 하여 인물성격이 독자들의 인상에 남을수 있게 형상되지 못하고있으며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에서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에 대한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새 탄층의 발견을 위해 1만 8천미터를 고속도굴진해들여간 소설의 주인공들과 같이 기름진 세부의 《밭》을 발견하기 위해 한정없이 깊은 인간세계, 생활세계를 파고들여간 성실한 《굴진공》으로서의 작가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격의 본질이 반영된 세부, 개성적이고 비반복적인 세부를 탐구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서 볼수 있다.

성격형상에서 본질이 비껴간 세부를 취사선택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의 본질적특징이 반영된 세부, 비록 작은것일지라도 성격의 전모를 그려보게 하는 세부를 정확히 선택하여 묘사하였다.

작품의 한복판에 서있는 청년돌격대 대장인 주인공 용남의 성격형상에 이바지된 세부묘사를 두고 그에 대하여 말할수 있다.

소설의 첫 부분에는 용남의 하루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 펼쳐져있다. 여기에 밤 1시를 기상 시간으로 정한 용남이가 꿈을 꾸다가 15분을 초과하여 늦잠을 잤다고 자신을 불만스러워하는 세부묘사가 있다. 밤 1시에 일어나서 굴진현장을 돌아보는것은 스스로 정한 어길수 없는 그의 일과로 되고있다.

남들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누웠다가 매일과 같이 밤 1시에 일어나 하루일을 시작한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세부묘사는 말은 일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자기자신에 대한 강한 요구성,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지닌 그의 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 인상깊은것으로 되고있다.

이외에도 그가 굴진막장에 들어서면 버릇처럼 착암기를 들고나서는 세부, 불면과 파로로 쓰러졌다가도 갯의 침수를 막기 위해 남먼저 갯목을 안고 희생적으로 막장으로 뛰어드는 세부, 막장에 찬 시꺼먼 돌가루물속에 자맥질해 들어가 굴바닥에 뚫린 착암구멍을 찾아내어 대원들을 감동시키는 세부 등 인상깊은 묘사들이 적지 않다.

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맡겨진 굴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며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발휘하는 선군시대 청년일군, 애국청년으로서의 사상정신적면모를 생동하게 보여주는데 이바지되고있다.

특히 이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 용남의 고상한 인간성과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를 특색있는 세부 묘사를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그를 보여주는 많은 사실들 가운데서 신발에 관한 세부묘사가 이채롭다.

어느날 찰진흙층착암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는 서창길을 도와주곤한 용남은 그의 껌진 로동화를 보고는 억지다짐으로 자기 신발을 바꿔신긴다.

서창길은 새 로동화가 생기면 신던 그 신발을 깨끗이 빨아서 배낭속에 넣어두곤 한다. 그러다가 신이 해지면 다시 꺼내신고... 그 신발만은 껌지면 겁곤 한다.

정에 너무나도 주렸던 그였다. 그러던 그가 갯이 침수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렇듯 따뜻한 정을 기울여준 대장에게 용서를 빌며 서슴없이 사연깊은 신발에 불을 달아 막장을 밝히며 물을 퍼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초롱전을 벌리는것이다.

신발에 관한 세부묘사는 비록 작은것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있다.

용남이가 수백리길을 오가면서 서창길의 성장을 믿지 않고 입당을 반대하던 기업소청년동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을 설복시키는 감동적인 장면들은 참된 동지애의 세계를 보여주는 세부들로 묘사되어있다.

서창길의 경우만이 아니다.

강원도소대장 량철룡이나 평양시소대 윤학성, 후방참모였던 허창식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실, 동지들을 구원하고 하반신불구가 된 최명남이 새삶을 찾도록 도와주는가 하면 돌격대처녀들이 높은 리상을 간직하도록 깨우쳐주는 장면들은 용남의 뜨거운 인간성과 동지애의 세계를 보여주는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기쁜진 세부들로 묘사되었다.

또한 소설에서는 모든 세부가 비반복적이고 개성적인 발현과정으로 형상되고있는것이다.

소설창작에서 개성적인 세부의 탐구를 게을리한다면 상식화, 도식화된 생활이 펼쳐지며 특색있

는 성격을 창조할수 없게 된다.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참신한 생활세부들로 탐구하여 묘사하였다.

돌격대대장 용남이가 어느 작중인물보다도 개성이 뚜렷한 인물로 형상되어 주인공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된 리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에서는 주인공 용남이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강한 혁명적의지와 동지애를 발휘하여 돌격대의 굴진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갈수 있는 사상정신적비결, 참된 인생관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참신하고 특색있는 세부들을 탐구하여 묘사하였다.

소설에는 지난 룡대탄광시절 전국청년열성자 대회연단에서 용남이가 남이 써준 토론문이 아니라 소대원들의 진정이 담긴 자기 토론문을 읽는 세부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년이 지난 후에도 그러한 토론을 기억하시면서 용남이를 자신께서 잘 아시는 청년이라고 하시면서 청년일군으로 키우도록 하신다.

《영웅이 되기 전에는 처가집의 문턱을 넘어서지 않겠다.》고 결심을 굳히여가는 세부도 단순히 자기를 불신하는 처가집에 대한 반발에 그치는것이 아니었다.

그 결심은 생활과 투쟁속에서 자기를 키워준 당과 조국,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지향으로 자라는것이다.

그의 영웅적위훈에 대한 갈망, 영웅적삶에 대한 지향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인가는 소설의 마감부분에서 용남이가 영웅메달을 자기 혼자의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운데 놓고 돌격대집체사진을 찍도록 하는 세부묘사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처럼 토론문세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관한 세부, 영웅이 되려는 결심에 관한 세부들은 참된 인생관을 지닌 용남이의 영웅적성격의 생활적기초, 높은 사상적요인에 관한 내용으로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이 내용은 주인공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밝히는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질적이고 비반복적인 세부로 성격을 묘사한것은 비단 주인공 용남이의 경우만이 아니다.

소설에서는 각이하고 다양한 인물군상들도 성격의 본질이 반영된 비반복적인 세부를 선택하여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폭넓게 밝히였으며 장편소설로서의 풍격을 원만히 살려내었다.

《대리소대장》으로 불리우다가 진짜소대장이 된 량철룡이, 떠돌이생활을 하던 서창길이, 허풍과 판료가 있는 후방참모였던 허창식이 등의 성



장과정을 보여주는 생활세부들도 그러하지만 강원도소대처녀 차금향이 제손으로 케여낸 석탄덩이를 아버지에게 소포로 부치는 세부, 강원도소대 처녀대원이 빛나는 위훈을 세워 아버지장군님께서 아시는 《별》이 될 때 금별이라는 원래이름을 찾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금희》라고 불러달라는 세부, 자강도소대 사관장 조춘영이 살림살이에 이악하여 《드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세부들은 참된 삶을 지향하는 우리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는 발전적인 묘사들이다.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에서 작가의 생활에 대한 높은 탐구정신은 참신한 생활세부, 심리적세부에 기초하여 주인공과 작중인물들의 내면심리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묘사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소설은 심리소설이라고 할만치 시종일관 진지하게 인물들의 내면심리를 묘사하였다.

소설에서는 웅당하게도 심리묘사해결의 중요한 방도를 생활세부를 탐구하는데서 찾았다.

일부 장편소설들에서 성격상결함과 부족점이 많은 인물이 어떤 계기를 통해 대변에 《만세》를 부르며 완성된 사상적높이에 뛰어오르는것으로 내면심리발전과정을 그리거나 심리발전을 굴곡있게 그렸다 하여도 그것을 추상적이고 상념적인것으로, 혹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펼쳐보이는것은 참신한 생활세부의 발전이 없이 심리묘사를 하는데서 나타나는 결함이다.

생활세부를 옳게 선택하는것은 인물의 심리적굴곡과 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묘사하는데서 필수적인것이다.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에서는 맞다드는 시련과 난관앞에서 때로는 동요도 주저도 하지만 자신을 채찍질하며 분발하여 일떠서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것으로 인물들의 내면심리를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에 맞게 내면심리를 펼쳐보일수 있는 생활세부들을 탐구하여 그것이 심리발전의 계기로, 디딤돌로, 심리적내용으로 되게 함으로써 아버지장군님께서 잘 아시고 조국이 사랑하는 청년으로 자라는 그들의 성장과정을 굴곡이 있는 발전과정으로 진실하고 깊이있게 묘사할수 있었다.

여기에 이 소설의 심리묘사, 세부묘사의 특징의 하나가 있다.

소설에는 주인공 용남이의 순탄치 않은 성장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내면심리묘사가 적지 않다. 그가운데서도 건강때문에 제기된 소환문제를 두고 잠시나마 나약한 생각을 했던 자신에 대하여 타매하는 용남의 심리가 자못 심각하고 날카롭게 묘사되고있다.

《용남이, 물동이 러진 막장으로 동발을 안고 뛰어들면서, 육체의 아픔을 씹어삼키며 밤낮없이 막장길을 걷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50만톤을 부르짖던 그때에도 용남이, 너는 그 어떤 다른 생각을 했는가?

아니, 아니다. 혈육들과 사회앞에 영원히 버림받을번 한 나를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자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으로 키워주시고 자신께서 잘 아는 청년이라는 분에 넘치는 말씀을 주신 장군님의 그 믿음과 사랑을 나는 죽어도 잊지 못할것이다. 그것을 의리로 지키기 위해 나는 여기로 온것이며 지금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될가봐 괴로워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주저앉는단 말인가. 용남이,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늘 외우곤 하는 네가 그 생명을 아까워한단 말인가?...》

자신의 나약성에 대한 신랄한 규탄이며 타매이다.

이 심리적내용을 이루는 물동이 러진 막장으로 동발을 안고 뛰어들던 세부, 파로에 쓰러졌다가도 50만톤 새 탄충개발목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는 세부, 자기에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세부, 그 사랑과 믿음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세부들은 모두 용남의 생활과 성격에 기초한 이채로운것이다. 이로 하여 그의 복잡하고 굴곡적이며 분석적인 심리가 생활적인것으로 진실하게 묘사되었다.

소설에서는 마감까지도 용남의 심리를 끊임없는 수양과정, 완성과정으로 그렸으며 그것을 그의 성격과 생활에 맞는 세부에 기초하여 묘사하였다.

뿐만아니라 소설에서는 각이한 인물들의 내면심리도 성격과 생활에 맞는 세부를 탐구하여 굴곡있는 발전과정으로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강원도소대장 량철룡의 순탄치 않은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심리묘사들이 긍정적이다. 소설에서는 파오를 범한것으로 하여 절망상태에 빠진 그가 대장의 휴가권고를 받고 그 기회에 아주 돌격대를 떠나버리려고 하는 심리를 묘사하고있다.

그러나 도중식사로 썩 닭알을 보고는 대장의 진정에 감동이 되어 다시 결심을 바꾸는 심리, 정작 돌아왔지만 막장에서 작업시간에 잠을 자고있는 소대원들의 한심한 꼴을 보고 되돌아온것을 후회하는 심리들은 대장의 휴가권고세부, 닭알세부, 막장에서 대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부들을 디딤돌로 하고있는 모순적이고 굴곡있는 심리묘사들이다. 그 세부들은 과격하고 즉흥적이며 거칠지만 솔직하고 인정에 무른 그의 성격과 생활에 어울리게 심리를 펼칠수 있는 전제로 되는것이다.

특히 봉락된 갯속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싸여있던 자신을 부끄럽게 돌이켜보는 량철룡의 심리에 대한 묘사, 입당심사에서 누구도 모르

는 자기 결함을 솔직하게 토로하기까지 하는 그의 심리묘사도 갱이 붕락된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처녀대원 차금향이 갱벽에 새긴 《동무들! 50만 톤을 부탁해요.》라는 글발세부를 타고 펼쳐진 것이며 입당심의에서 제기된 《동무는 왜 당원이 되려고 합니까?》라는 물음세부를 계기로 펼쳐진 심리이다.

이 세부들은 인간다운 존엄을 지켜 땀땀하게 살려는 숭고한 지향을 안고있는 그의 성격에 맞게 심리를 묘사할수 있는 전제로 되는것이다.

평양시소대의 윤학성은 량철룡과 달리 책상물림의 청년으로서 속이 궁글고 들뜬감이 있지만 바탕이 순박하고 투명하다. 그의 성격에 맞는 세부를 탐구하여 첫날 하루작업을 할 때의 심리, 초급단체비서로 되었지만 어려운 작업조건과 평가에 불만을 가지는 심리, 용남의 헌신성과 강의성에 감동되어 바치는것이 없이 권리만 행사하려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심리묘사를 함으로써 그의 굴곡있는 성장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내었다.

어질고 실무에 밝지만 용남의 장점에 자기를 허심하게 비추어보며 부단히 채찍질하는 참모장 송건일의 심리도, 대원들에 대하여 어머니와 같이 다심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지닌 간호원 혜경의 일기형식으로 펼쳐진 심리도, 용남의 참된 인생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를 헌신적으로 도와나서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안해 선경의 심리도 그들의 성격과 생활에 맞는 세부들을 탐구하여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내면심리발전을 성격과 생활에 맞는 참신한 생활세부를 탐구하여 굴곡있게 묘사함으로써 조국의 사랑을 땀땀하게 받아안을수 있는 권리를 간직한 인간으로 자라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었다.

사실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에서 펼쳐지는 생활무대는 지하막장이 기본이고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매일과 같이 어수룩한 일을 하는 청년돌격대집단이 기본묘사대상으로 되고있다.

지하막장에는 맑은 공기도 밝은 햇빛도 수려한 산수풍경도 없다. 자칫하면 작품에 생활이 어둡고 칙칙하고 단조롭게 형상될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소설에서는 이들의 생활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에서 여러가지 수법들을 새롭게 활용하여 세부묘사를 한데서도 작가의 생활에 대한 높은 탐구정신을 찾아볼수 있다.

소설에서는 작가가 생활가까이로, 생활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세부묘사를 옹계 할수 있는 새로운 수법들을 찾아낼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에서 특징적인것은 반복의 수법을 새롭게 활용하여 세부묘사를 함으로써 성격을 보여주

는데 이바지하고있는것이다.

강원도소대처녀 차금향의 《일없습니다》라는 대사의 반복은 전직이 교환수인 경력에 어울리는 것이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도 조건타발 없이 해내며 그것을 웅당한 본분으로 여기며 자기가 해낼 일의 가치를 따질줄 모르는 순박하고 헌신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발견적인 세부묘사이다.

평양시소대처녀 설림의 대사반복이 눈길을 끈다. 《어야! 이 동무 팬찮아졌다야!》라고 하는것은 그의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상대인물 윤학성의 성격발전과정을 특징지어주는 이채로운 세부묘사이다.

그밖에도 소설에서 서창길의 발전이 못미더워 입당을 반대하는 한 일군이 용남의 말에 감동되어 그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는 역전법을 활용한 세부묘사, 용남은 항상 평대원과 똑같이 생활하지만 립시로 돌격대일을 맡아보던 부정인물인 권영찬부장은 《평대원들과 똑같이》라는 원칙을 며칠 못 가서 버리고 뒤굴방식사를 하는 대조법을 활용한 세부묘사들은 인물성격들을 보여주는데 효과있게 이바지되고있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에서는 성격의 본질이 비끼고 개성적이고 비반복적인 세부, 내면심리의 굴곡있는 발전과정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세부를 탐구하여 그것을 여러가지 수법을 새롭게 활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굴진막장에서 빛나는 청년영웅, 애국청년으로 성장하는 용남이를 비롯한 돌격대청년들의 성격과 생활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펼쳐보였다.

물론 높은 요구성을 제기할 때 세부묘사에서 일련의 부족점과 결함이 없다는것은 아니다.

소설에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당비서 명석호는 가장 어려운 때에 용남이에게 신심을 주고 떠밀어준 인물이다. 그러나 그를 여느 작품의 당일군과 다른 특징을 가진 인물로 형상할수 있도록 탐구된 생활세부가 빈약하다.

더우기 세부묘사에서 어설프고 미숙한것은 강원도소대장 량철룡의 애정관계를 보여주는 생활이다. 별로 인상적인 세부묘사가 없이 뜨뜨미지근하게 그들의 애정관계를 형상하였다.

결함은 부분적이며 또 일시적인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귀중한것은 장편소설 《사랑의 권리》의 내용전반에서 느낄수 있는것이지만 현실에 적극 뛰여든 작가의 생활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정, 높은 탐구정신이다.

우리는 이 소설의 작가가 앞으로도 변함없는 자세로 생활을 파고드는 성실한 《굴진공》으로 기쁨진 세부들이 차고넘치는 더욱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내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 보 증 서

오 필 천

여기엔 없다  
깊고깊은 갯속에 수장된  
유해들엔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낼  
무엇도

그 무엇도 없다  
이름을 알아낼 한개의 도장  
주소를 찾아볼 공민증의  
그 한조각도

있는것이란  
옷의 사기단추들과  
뭉었던 족쇄들과  
두 통구리의 포승줄과  
쭈그러진 신발뿐

또 있는것이란  
미친듯이 쏘아댄  
탄알들과 탄피들  
내리친 정대들과  
피젖은 곤봉뿐

그 많은 령훈들  
렬사들의 이름이 뭐냐고  
어디서 무엇을 하던 누구들인가고  
하루에도 묻기를 몇번

그러나 강사들은  
원썬들이 무참히 살해하고  
갯속에 수장했으니  
말해줄 실마리마저 없다고

침묵...  
침묵속에 흐르는 한초 또 한초  
시간이여 너는  
이렇게만 흘러가야 하느냐

내 눈길은 조용히  
렬사들의 옷섭에 꿰여매 간수했던  
수령님의 방송연설문  
그 조각조각을 더듬나니  
그리고 높이 추켜드나니

—자 읽으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렬사들의 보증서이다!

깊은 밤 달빛속에  
초불에 비쳐보며  
투쟁의 화불로  
신념의 등대로 간직하고  
굴함없이 싸워온 렬사들

나는 소리높이 웨친다  
그들은 수령님을 위하여  
피도 살도 생명도 다 바친  
조선로동당원들이다!  
용감한 빨찌산대원들이다!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아, 이보다 더  
값높은 보증서는  
이 세상에 없으리라

조선속담

## 표 리 부 동 ( 랑 면 성 )

- 지팽이 내다주며 목어가란다
- 절에 가면 중인체 촌에 가면 속인인체
- 호랑이 개 어르듯 한다
- 행수 행수하고 집 지운다
- 앞에서 꼬리치는 개가 뒤에서 발뒤꿈치 문다
- 원발 구르고 침 뱉는다
- 웃고 뺨(사람) 친다
- 어르고 뺨치기
-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고기 판다

# 피의 응암

최상기

또 하나의 충격이 이 나라의 대지를 비분에 몹서리치게 하고있다.

지난 세기 중엽, 가장 침예한 전초선의 하나였던 해주시 장방리에서 170여구의 유골이 새로 발견된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한달음에 발굴장소로 달려갔다. 해발 1 000미터에 가까운 수양산의 거봉이 동남쪽평야를 향하여 내뿜친 작은 지맥에 높이는 낮아도 산세가 험한 매화산이 솟아있다.

유골발굴장소는 그 매화산의 중턱 고갯속에 있었다. 해방전 왜놈광산주가 백금을 찾는다고 하면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뚫던 깊이 15미터가량의 자그마한 갱이다.

그 갱의 중간쯤 되는 측면에 직경 2미터의 수직갱이 있었는데 그속에서 황해남도 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학살원들이 발굴작업을 하고있었다.

무겁고 침울한 공기가 떠도는 갱안에는 발굴성원들의 작업소리만이 간간이 울렸다. 7~8미터깊이의 수직갱안에서는 전지불을 켜든 사람들이 그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끈적끈적한것을 그릇에 담아 퍼올리며 하나 또 하나 유골들과 유물들을 건져내고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가슴속에 참을수 없는 분노의 용암이 끓어올랐다.

살인마들, 인간백정들, 어쩌면 한두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참혹하게 죽일수 있단 말인가.

수직갱입구의 옆에는 발굴성원들이 며칠동안 찾아낸 유골들과 유물들이 놓여있었다.

머리뼈와 허벅다리뼈를 비롯한 인체 여러 부위의 각이한 뼈들, 희고 검은색의 무수한 단추들, 고무신, 지하족바닥, 치솔들, 나무저가락들, 양초쫂박, 수십개의 권총탄피들과 총알들, 삼으로 꼬아만든 포승끈무지, 열쇠구멍까지 있는 쇠수갑들...

발굴사업을 책임진 도계급교양관의 판장이 추연한 빛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탐사대에 의해 첫 유골이 발견되고 발굴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때 어떤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이처럼 처참하게 죽어야 했는지 알수가 없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유물들속에는 그들의 신원을 보증할수 있는 도장이나 증명서 같은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층에서 포장지에 정히 싸여 발굴된 신문지들과 국가공문서의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여기

에 묻힌 무명의 사람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원썬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애국자들과 인민들이라는것을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눈을 크게 뜨며 일반유물들과 별도로 놓여있는 신문지들과 국가공문서를 들여다보았다.

기나긴 세월 고갱속에 묻혀 많이도 퇴색되고 삭아 바사졌지만 아직도 글자들이 생생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쳐버릴데 대하여 하신 주체39(1950)년 7월8일방송연설의 일부와 신천과 송화, 웅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있는 사실들을 실은 기사들, 조선전쟁과 관련한 국제적인 반향이 실린 신문들이었다. 그리고 국가공문서에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급수별식량공급량이 란속에 찍여져있었다.

주체39(1950)년의 가을, 그때로 말하면 우리 조국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였다. 바로 그 준엄한 시기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을 안고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체포되었을 이들은 참된 애국자, 참된 공민들이었을것이다. 원썬들에게 몸안의 다른 소지품들은 다 빼앗기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전문이 실린 공화국의 신문만은 깊이깊이 간수하였던것을 보라. 손에 채웠던 쇠고랑은 또 어떤가. 큰 규모의 감옥들에서 중죄범들에게 사용하던 쇠수갑을 채운것만 보아도 이들은 적들에게 무서운 존재, 꺾이면 꺾일지언정 휘어들줄 모르는 애국자들이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몇개의 머리뼈에는 눈확부위를 가리웠던 두꺼운 천이 그대로 붙어있는 유골도 있었다.

원썬들은 자기들의 도살장소가 드러날가봐 두려워 애국자들의 눈을 가리워 이 고갱으로 끌고왔으며 땅속에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는것이 두려워 그대로 학살하였다.

아아, 얼마나 야수같은 만행인가.

피가 끓는다, 증오가 타번진다.

판장의 분노가 서린 눈가에도 섬광이 일었다.

《그 오랜 세월 이들이 갱속에 묻혀 얼마나 하고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더 싸우지 못하고 원통하게 죽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영원할것이다, 이 원썬들 기여이 갇아달라. 나는 그들의 피의 부르짖음이

용암이 되어 솟구쳐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입술을 짹 깨물며 판장의 말을 뇌었다.  
 (피의 용암!)  
 그렇다, 원썬들은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인간들을  
 영원히 매장하려고 극비에 만행을 감행하였다. 하  
 여 이들은 반세기도 넘는 세월 말 못하는 평혼이  
 되어 력사의 흑막속에 너무도 깊이 파묻혔었다.  
 허나 이들의 사무친 원한과 복수의 웨침은 두터  
 운 지층을 헤치고 용암이 되어 솟구쳐올랐다.  
 원썬들은 그날에 다는 몰랐다, 이들의 육체를  
 묻는다고 하여 정신과 사상까지 함께 묻을수 없  
 다는것을.  
 나는 다시금 수직갱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공화국을 지켜 서슴없이 생명을 바친 애국  
 선렬들의 몸과 넋의 응결체가 심장을 아프게 찢  
 른다. 그것은 정녕 용암의 분출이었다. 지나간 세  
 월 땅속깊이에서 끓고끓던 피의 용암이 더는 참  
 을수 없어 지층을 뚫고 폭발쳐오른 모습이였다.  
 어느 시인이었던가. 신천땅을 돌아보고 이 나라  
 의 대지에 피의 지층이 있다고 억이 막혀 절규하  
 지 않았던가.  
 그러나 여기에는 피의 용암이 있다. 이 크고 깊  
 은 갱이 통채로 용암을 분출한 복수의 분화구

는 아닌가.  
 나는 비분강개한 심정에 싸여 갱밖으로 나왔다.  
 수려한 산천과 가없이 높은 내 나라의 푸른 하  
 늘이 마음을 짙하게 울려준다. 늘 레사롭게 보아  
 오던 산천과 하늘이 왜 이리도 뜨겁게 안겨오  
 는것일까.  
 선군의 총대!  
 아름다운 산천과 맑은 하늘에 가득 비끼는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아, 우리 장군님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이어가시  
 는 선군의 그 길이 없었다면 우리 운명도 달리 되  
 었을지 어이 알랴.  
 그 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위성발사  
 국, 핵보유국이 되어 세계앞에 당당히 나서 강대  
 국의 존엄을 떨치고있으며 군대와 인민은 강자의  
 긍지를 한껏 누리고있다.  
 선군으로 날이 밝고 선군으로 해가 저무는 이  
 땅, 이 대지우에 터쳐진 피의 용암, 이 용암은 우  
 리를 향하여 피젖어 부르짖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들라, 그 길에 우리 조국, 우리 민족 만대의 번  
 영이 있으며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것을.

## 그 한 자 리 만 은

### 한 영 복

우리 목수아바이  
 계급교양관의 진렬대를  
 또 하나 늘구며  
 생각도 많다

우리의 학술원들  
 새로 늘군 진렬대에  
 유물들을 진렬하느라  
 생각도 깊다

꿈엔들 생각했으랴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에  
 내 고향 수직갱에서  
 170여명의 유해들과  
 유물들이 나타나리라고는

하여  
 계급교양관의 진렬대를 늘구기에  
 여념이 없다  
 판장도 학술원들도 목수들도

애국자들의 팔다리 묶었던 족쇄들과  
 그 많고많은 포승줄들  
 피에 식은 탄피들과  
 애국자들의 가슴을 란도질한  
 단도들과 총칼들

가슴 저린다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간지도  
 반세기도 넘는 오늘에  
 계급교양관의 진렬대를 늘구는것이

다시는 되풀이될수 없는  
 피의 교훈이 있기에  
 오늘도 원썬들은 그날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있기에

나는 권고하고싶구나  
 진렬대를 한자리만 더 늘구자고  
 인간도살의 원흉  
 미제의 항복서를 진렬할  
 그 한자리만은 한자리만은

# 다시 찾은 사랑



윤 상 근

1

차승진이 방에 들어서자 부장은 마치 오래간만인 듯 작은 몸을 탄력있게 일으키며 반색을 지었다.

《기다렸소. 여기 와 앉소.》

부장의 외모나 몸가짐에는 큰 신문사의 한개 부서를 책임진 사람다운데가 별로 없었다. 몸집이 한손에 들릴것처럼 체소한데다가 행동거지는 곁에서 보기가 민망스러울만치 역발랐다. 그래도 그의 체모를 어느 정도 살려주는것은 오랜 지성활동의 흔적인듯싶은 희색희색한 귀밑머리였다.

《새 과업을 주자구 찾았소.》

승진은 덩덤한 눈길로 부장을 쳐다보았다. 늘 체험하는 일이었으므로 마음의 긴장은 크게 없고 다만 어떤 대상인가 하는 호기심만이 동할뿐이었다.

《지금 편포전선공장이 떠들썩하오. 한 기술자가 대단한 발명을 했단 말ियो.》

부장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굵고 기다란 손가락으로 수첩장들을 재빠르게 뒤번졌다.

《오, 여기 있구만. 거기 한 책임기사동무가 이미 가치있는 창고고안들을 여러건 내놓았구 얼마전엔 새로운 케블접속부를 연구개발했는데 국가적 의의가 매우 큰것으로 평가됐다고 하오. 가정주부라는데 얼마나 장하오?》

부장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가늌를 가볍게 다독이였다.

《한번 손을 대보오. 멋진 글이 나올거요.》

승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어떤 과업을 주든 군말없이 접수하고 성실하게 집행해온 그였다.

부장은 승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웃음이 실린 자그마한 눈으로 승진을 쳐다보며 마치 무슨 중요한 비밀이라도 말하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동무가 쓸 기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오?》

《?...》

《케블직장 책임기사 리연심이요, 동무의 안

해란 말ियो.》

승진은 두눈을 크게 떴다. 정말 놀라왔다. 십오년 가까운 기자생활에 이런 일에 부닥치게 될줄이야.

《동무가 실지 생활에서 느끼걸 그대로 적으면 아주 실감이 있을거요.》

부장은 책상을 탁 치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작이 될거란 말ियो.》

역시 흥분이 빠른 사람이였다. ...

방을 나선 승진은 초점이 흐려진 눈길을 떨구고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한걸음, 또 한걸음...

점점 걸음이 무거워졌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 자기 안해가 그렇게까지 높이 떠올랐다는 그 사실이 기쁘다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무척 번거로웠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지는지 이 순간에 승진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것은 열흘전 헤어질 때 서글피 흐려지던 안해의 얼굴이였다.

돌아서서도 헤어져서도 내내 속이 좋지 않았는데 뜻밖에 오늘 안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보니 금방 눈물을 쏟을것 같던 그 커다란 검은 눈이 가슴속에 꽉 안겨들면서 이름할수 없는 괴로움을 자아내는것이였다.

그날 이른새벽이였다.

아직 해는 솟아오르지 않았으나 동녘하늘은 벌써 희옅스름하게 밝아오고있었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있었다. 희끄무레한 서편하늘끝에서 빛이 바랜 별 하나가 가볍게 떨고있었다.

연심은 자기가 연구개발한 케블접속부의 시험적 도입을 기술적으로 방조하기 위해 지방으로 떠나가는 길이였다. 연분홍달린옷을 날씬하게 차려입은 그는 눈귀의 잔주름만 아니라면 한창나이 처녀와도 헛갈릴만큼 아직도 고왔다.

연심은 대동교를 건너서자 얼핏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이젠 들어가세요. 역이 코앞인데요 뭐.》

승진은 묵묵히 안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안해

를 내려주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그때까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그였다. 이제 집을 떠나 멀리서 수고가 많을 안해... 그러나 그에 대한 런던의 정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슴에 자리잡고 있는 불만의 감정이 더 컸다.

연심의 맑은 두눈이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승진은 공연히 헛기침을 갖고나서 갖가지 나무들이 무성한 강기슭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연심은 가쁜한 이로 아래입술을 꼭꼭 깨물다가 다시 조용히 물었다.

《말해주세요. 제가 뭐지요?》

승진은 가슴 한복판으로 가는 전율이 스쳐지나 는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였다. 먼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아픈 소리를 해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여러번에 걸치는 자기의 권고를 밀어버리고 정작 집을 나선 안해의 처사를 스쳐보내고싶지 않았다.

《가면서 생각해보오.》

승진은 안해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하였다.

《난 지금껏 많은 면에서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소. 그리고 난 당신이 가정주부의 몸으로 책임기사일을 하면서 또 적지 않은 연구사업을 하는것만도 대단하다고 보오. 그런데 꼭 이렇게 가정을 떠나서 먼 지방 출장까지 나다녀야 하는가 말이요? 난 당신이 안해이고 어머니라는걸 잊지 말기 바라오.》

《?》

...

얼핏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검은 눈이 금시 흐려지는것 같았다.

승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끝을 맺었다.

《미안하오. 건강을 돌보면서 일하오.》

그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내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그는 속으로 머리를 저었다. 아니, 연심은 헤아려볼것이다. 내가 안해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곁에서 떠나보내고싶어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위안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뻔뻔한 쇠붙이같은것이 가슴속을 헤집는듯 한 아픔을 참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승진은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연심은 애수가 어린 두눈을, 서글퍼보이는 얼굴을 수그렸다. ...

그렇게 헤어진 안해가 오늘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

한여름의 대동강반.

미풍을 안은 대기가 찌는듯 한 해변속에서 가볍

게 진동하고있었다. 크고작은 나무들이 무더위 속에서 나른하게 졸고있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의 서늘한 잎새밑에서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는지 매미들이 성수가 나서 떠돌고있었다. 강기슭에선 맑은 물결이 소리없이 굴뚝고있었다.

승진은 이 강변을 거닐기 좋아했다. 새로운 과업을 받았을 때 그리고 끝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홀로 유보도를 거닐면서 사색의 세계를 헤매이곤 하였다. 어떤 때에는 제나름의 추억이나 명상에 잠겨 걷기도 하였다.

좀전에 신문사에서 나온 승진은 곧장 강가로 왔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산뜻한 옷차림의 각이한 사람들이 유보도를 거닐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제나름의 비상한 진리를 찾아내려는듯 돌란간에 몸을 바싹 붙이고 정신없이 강물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나무그늘밑에서 장기를 두는 로인들도 있었다. 승진은 그 모든것에는 관심이 없이 너부죽한 얼굴을 푹 숙이고 발끝을 내려다보면서 천천히 걷고 또 걸었다.

부장에게서 받은 과업때문에 사색에 잠긴것이 아니였다. 그는 연심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지금껏 이마를 맞대고 살아온 안해이면서도 이 순간에는 더없이 생소해보이는 한 녀성에 대한 놀라움과 의혹의 감정에 잠겨있었다.

문득 어느 친구가 결혼식날에 말했던 우스개소리가 얼핏 상기되였다.

《승진이, 못난 남편이란 어떤 사람이라구 생각하나? 내 알기엔 제 처 자랑을 들고다니는것도 못난짓이지만 제 처를 다 안다고 자부하는것도 현명치 못하다는거야.》

그때 승진은 즐거운 분위기로 하여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면 바로 자신이 그런 못난 남편의 류에 속하는것 같다.

승진은 잔디밭을 지나 화단머리의 의자에 걸터앉았다. 그가 즐겨찾는 자리였다. 눈앞에 한그루의 장미꽃나무가 서있었다. 푸른 잎새사이로 새빨갳다못해 피빛을 띤 꽃송이들이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빠끔히 내밀고 웃는다. 그 이쁜모습에 어울리는 달콤한 향기... 꿀벌들이 금빛무늬의 날개를 번쩍이며 부지런히 앵앵거리고있었다.

그러나 승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자신이 안해를 너무도 모르고있지 않았는가 하는 은근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한달전인가 연심이 어째서인지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곤거렸다.

《혁일이 아버지, 또 〈딸〉을 낳았어요.》

몇해동안 불안고 씨름질해오던 연구과제를 완성했다고 뒤를 달았다. 안해는 자기의 창조물들을 《딸》이라고 했다.

승진은 안해의 성과를 축하해주었다. 그러나 그 성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언젠가처럼 창고고안증서나 하나 받아 오겠지 하고 지레짐작하면서도 안해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신문에 내줄가?》

《어마, 사람들이 웃겠어요. 무슨 큰일이라고...》

통말을 정말로 받아들였는지 연심은 얼굴을 붉히며 곱게 눈을 흘겼다.

승진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안해가 신문기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꿈에서도 해본적이 없었다. 물론 우리 시대 위훈의 창조자들이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라는것은 잘 알고있었지만 그 사람들속에서 연심을 찾아볼 생각은 전혀 가져보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렇다. 승진은 분명 안해에 대하여 다 모르고 있었다.

승진은 눈앞에서 한들거리는 꽃나무가지를 감아 쥐었다. 축축히 물기가 느껴지는 나긋나긋한 가지가 흔들리자 짙은 향기가 폐부깊이 스며들었다.

타는듯 한 빨간 꽃송이가 말끄러미 쳐다본다.

승진은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자 몇년전의 한순간이 방불히 떠오른다.

... 깊은 밤

창밖에는 금쟁반같은 보름달이 걸려있었다.

안해는 탁상등빛이 은은한 책상우에 엎드려 자고있었다. 머리를 고인 팔가까이에 두툼한 과학기술도서가 펼쳐진채로 놓여있었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종소리에 정신을 차린 승진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갔다. 연심은 그 불편한 쪽잠에도 무슨 달콤한 꿈을 꾸는지 입귀를 방긋거리고있었다. 그를 깨우려던 승진은 까닭모르게 손길을 멈추고 안해의 얼굴을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뭇총각들의 눈길을 잡아끌던 처녀 시절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끝이 휘여든 기다란 속눈썹이 눈가에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살갗이 맑은 가름한 얼굴에 조화를 맞춘 상큼한 코며 오동통한 붉은 입술도 그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안해의 그 아름다움은 지금에 와서 더이상 승진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지 못하는 평범한 것으로 되고말았다.

승진은 아직 손에 쥐인채로인 나긋나긋한 나무가지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추파를 던지듯 방긋웃는 꽃송이... 처음 이 자리에서 저 꽃을 볼 때에는 저도 모르게 곱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탄성을 내질렀었다. 그런데 한번 두번 이렇게 여러번을, 그것도 해를 거듭하여 보게 되면서는 자기와 같은 똑한 사내의 마음까지도 뒤흔들던 그 매혹적인 미를 심상히 여기게 되었다.

승진은 긴숨을 내그었다. 사실 내가 연심을 떠나보내기 싫어한것도 결국은 아름다운 안해와 단 하루도 헤어지고싶지 않은 강렬한 사랑의 감정때문인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가정주부로서의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리기적인 생활 상욕망때문이 아니었던가.

## 2

차승진이 고충살림집현관으로 들어서려는데 꽃밭을 가꾸던 인민반장 심덕순이 소리쳤다.

《혁일이 아버지, 나 좀 보지요.》

허우대가 큰 50대의 이 녀인은 성격이 호방하고 푸쩍이 좋은것으로 소문이 났으며 손이 크고 인정이 많아서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있었다.

이마의 땀을 문대기며 혈기왕성한 장정처럼 씩씩 걸어온 덕순은 능청스럽게 눈을 껌벅이며 말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맞춰보지요.》

승진은 빙그레 웃으며 탄전을 부렸다.

《꽃들이 곱구만요.》

덕순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그는 일부러 태연자약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빙 둘러보았다.

《아니, 알고싶지 않아요?》

아닐세라 덕순은 체편에서 안달아하였다.

《글쎄,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는걸 어떡합니까?》

《아유, 속상해라.》

커다란 손을 부채삼아 몇번 흔들고난 덕순은 발로 땅바닥을 팡 구르더니 옷주머니에서 편지봉투를 꺼내었다.

《자, 애타게 기다리는 정든 님 소식이에요.》

안해에게서 온 편지였다.

《혁일이 아버지에게.》

낮익은 둥글둥글한 글씨가 담쑥 반가웁게 눈에 안겨들었다.

《시샘이 나게 여기서 싱글벙글거리지 말구 어서 올라가 보라고요. 그리구 저녁밥은 짓지 말아요. 내가 특식을 준비했어요.》

승진은 승강기를 기다리지 않고 성큼성큼 계단을 밟아올라갔다. 그는 오늘따라 연심이 무척 보고싶었다. 지금까지 결코 짧다고는 할수 없는 기간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지내온 그 안해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르게 다른것 같은 신비의 녀성, 이제 자기가 신문지상에 떠올려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 그런 매혹적인 주인공이 보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먼곳에 가있다.

집에 들어선 승진은 서둘러 편지를 뜯었다.

비록 헤어진지 오래지는 않았지만 연심은 가정주부의 다심한 심정으로 남편의 건강에 대하여, 아이들의 생활에 대하여 따뜻이 묻고나서 이렇게 썼다.

《...당신과 헤어진 뒤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



던지.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어서 열차에 올랐으나 전  
은 하루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지 않으면 안되었  
답니다.

지금껏 그토록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던 혁일이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아픈 말을 들을줄은 정말 몰  
랐어요.

생각나세요? 결혼전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  
지요. 평범한 노동자의 딸을 대학공부까지 시켜  
사회에 뿔뿔이 내세워준 당의 은덕에 적으나마 보  
답하려는 저의 지향과 리상을 귀중히 여긴다고,  
그 지향과 리상을 꽃피우도록 힘껏 돕겠다고...

솔직히 말해서 전 당신의 웅심깊은 그 마음이  
더없이 고마웠고 그래서 당신과 일생을 같이하기  
로 결심했어요.

결혼후 당신은 책장에 우리의 결혼사진과 함께  
두개의 대학졸업증을, 당신의것인 김형직사범대학  
졸업증과 제것인 김책공업종합대학졸업증을 나  
란히 세워놓았지요. ...》

그랬었다. 그때 아름답고 지성이 있는 녀성을  
일생의 길동무로 맞이한 기쁨에 도취되어있던 승  
진은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두사람의  
결합이 더없이 행복하며 자랑스럽다는것을 보여주  
고싶어했다.

《...솔직히 전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요. 제가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다하자면  
멀고 멀었는데 졸업증을 장식품처럼 세워놓는것이  
부끄러웠어요.

그후 혁일이를 낳고 선천성심장병이 악화되어  
부득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전 일생을 통  
채로 잃은것처럼 괴로웠어요. 당신은 없는 노숙까  
지 부러가며 저를 위로해주려고 애썼지요. 저도  
자신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을 키우  
는 재미로, 남편의 뒤를 보살피는 잔걱정으로 마  
음의 공허를 메꾸려고 했어요. ...》

...

어쨌든 가정일은 판에 박은 모양으로 순조롭게  
흘러왔다. 집에는 항상 안해가 붙어있어 아이들을  
보살피주고 구석구석을 깨끗이 거두곤 하였다. 그  
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안해는 조롱에 갇힌  
새처럼 생기를 잃고 우울해졌으며 항상 무엇을 잃  
은것처럼 불안해하였다. 그가 짐짓 웃음을 지어도  
승진은 그 웃음뒤에서 얼핏얼핏 고개를 내미는 애  
수와 고뇌를 놓침없이 알아보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책을 꽃으려고 책장에 다가선  
승진은 제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안해의  
졸업증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안해가 축축히 젖은 목소리로 사연을 이야기하  
였다.

그날 오후에 동에서 여름철 위생문화사업총화가  
있었는데 우리 인민반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했다.

총화가 끝나자 덕순인민반장은 그 뚱뚱한 몸으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고 했다. 그후 그가 매 집  
을 돌면서 경쟁총화상품을 나누어주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안해의 대학졸업증을 보고 탄성을  
내질렀다는것이다.

《아유, 혁일이 엄만 대학졸업생이군요. 글썄  
어쩐지 생각하는 품이 다르다고 했더니...》

덕순은 안해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서로 마  
음을 합쳐 인민반사업을 더 잘해보자고 하였다  
고 한다.

《글썄, 난 창피해서 혼났어요.》 안해의 말  
이었다. 《대학졸업생이라는게 집구석에 박혀 허  
송세월하는것이 괴로워죽겠는데... 차라리 나라  
에서 이렇게 공방이나 먹으라고, 위생사업이나 잘  
하는데서 만족을 느끼라고 오만자루 품을 들여 공  
부시켜주었는데 따지고들었으면...》

안해는 말끝을 맺지 못했었다.

《그썸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구.》

승진은 안해에게 대학졸업증을 꺼내놓으라고 했  
다. 그러나 연심은 눈물이 글썽해진 눈으로 승진  
을 올려다보며 떠들거렸다.

《제발... 제가 제 구실을... 하기 전에는...》

그날 밤 연심은 승진에게 제 의향을 비쳤었다.

《혁일이 아버지, 전 직장에 나가야겠어요. 이  
러다간 일생을 후회하게 될것 같아 무서워요.》

그때 승진은 안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전에  
가정부러 생각하였다. 중요하게는 안해의 건강  
부터 걱정하였다. 그는 안해가 앓지 말고 가정일  
을 알뜰하게 보살피기만 하면 더이상 바랄것이 있  
을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안해를  
달래었다.

《아직 당신의 건강은 장담할수가 없소. 좀더  
두고보지요. 지나친 주관은 백해무익하요.》

차라리 그때 안해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면, 그랬  
으면 그의 마음속 고충과 번민은 훨씬 덜해졌을것  
이다. 그리고 한생의 리상을 실현해가는 시간도  
보다 단축되었을것이다.

승진은 다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혁일이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아껴주고 사랑  
해주었고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주었지요. 제가  
다시 직장에 나가려고 했을 때에도 당신은 선뜻  
저를 이해하고 그 결심을 지지해주지 않았나요.

전 지금도 그날을 잊을수가 없어요.》

그 일은 6년전 바로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둑컴컴한 방안, 책상에 열  
굴을 묻고 흐느끼던 안해...

퇴근하여 방에 들어선 승진은 한참동안 안해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채찍에 잡자기 뼈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오래동  
안 한집에서 살아오면서 마음 여린 안해의 눈물을  
여러번 보았지만 그렇게 혼자 설움에 차서 흐느끼

것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가슴이 조여들고 눈이  
물이 떨어졌다. 목안이 말라들었다.

방안은 물속에 잠긴것처럼 조용한데 가는 호느  
김소리는 마치 애달픈 바이올린의 선율처럼 간간  
이 이어지고있었다. 이런 때엔 아이들이 곁에 있  
었으면 좋으련만. ...

승진은 선뜻 말을 건넬수가 없어서 가방을 소리  
나게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안해는 돌아보지 않았  
다. 그대신 호느김소리가 멎었다.

잠시후에 연심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일어섰다. 승진은 그앞으로 다가가  
한손을 그의 어깨우에 얹었다.

《미안해요.》

가는 중얼거림... 왜 그런지 코마루가 몽클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소?》

승진은 나직이 물었다.

연심은 오열을 삼키는 소리를 내며 더 깊이 머  
리를 숙였다.

《어서 말하오. 나한테 숨길게 뭐요?》

연심은 다시한번 재촉해서야 힘겹게 얼굴을 들  
었다. 그 눈물에 젖은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다.

《제발 진심을 말해주세요. 혁일이 아버지, 절  
사랑하지요?》

뜻밖의 물음에 승진은 어안이 빙빙해졌다.

《전 다 알아요. 당신이 절 얼마나 아껴주는지. ...》

연심은 쪼프린 눈으로 애절하게 쳐다보았다.

승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보였다.

《그렇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전... 공장에  
나가고싶어요. 병이 도져 쓰러져도 일터에서 쓰러  
지고싶어요.》

연심은 돌아서서 탁상등을 켰다. 밝은 불빛이  
비치는 책상우에 연심의 대학졸업증과 함께 신문  
한장이 놓여있었다.

《혁일이 아버지도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요?》

그날 신문들에는 선군장정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  
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김책공  
업종합대학을 찾아주신 소식이 일제히 실리었다. 대  
학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장군님께서 김책공업종  
합대학 졸업생들이 나라의 중요부문에서 큰 몫을 맡  
아수행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대학의 강화발  
전을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승진은 두눈을 습벅거리며 안해의 어깨를 짚 그  
러취였다.

《내 오늘 그래서 대동강반을 걷고 또 걸으면서  
당신 생각을 했소. 제 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병  
을 구실로 집구석에 잡아둔 내가 얼마나 민망스러  
웠는지 모르오. 우리 장군님께서 평가해주신 그  
졸업생들속에서 당신 혼자만이 빠진것 같아 정말  
가슴이 아팠소.》

《혁일이 아버지.》

《당신의 심정을 이해하오. 결심도 지지하구. ...》

연심은 승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

×

초인종소리에 정신을 차린 승진은 얼핏 벽시계  
를 쳐다보았다. 저녁 8시였다. 대동강유보도에서  
들어온지도 퍼그나 시간이 흘렀다.

아래방에서는 무슨 재미나는 영화를 보는지 혁  
철이와 혁일이가 겨끔내기로 깔깔거리고있었다.  
찾아온 사람은 인민반장 덕순이었다.

동그런 얼굴에 사람좋은 미소를 담고 전실에 들  
어선 그는 들고온 음식꾸레미를 해쳐놓았다.

《자, 이젠 혁일이 아버지 입에 맞는 생선구이,  
밑에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배기, 또 이젠 시원  
한 농마국수... 내 이래봐두 음식솜씨야 이 아근에  
서 첫손가락이지. 시급양에서 끌어당기는걸 내  
가 사양했더니까.》

너스레를 떨던 덕순은 승진의 얼굴표정을 띄어  
보고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편지를 보니 혁일이 엄마 생각이 나는가부지요?》

《...》

《보구싶지요?》

승진은 가볍게 웃어보였다.

《보고싶습니다. 내자신이 안해를 다 몰랐구  
나 하는 후회감때문에 빨리 만나보고싶습니다.》

《?》

의아쩍은 표정으로 덕순이 그를 바라보았다.

《사실 나는 직장에 다시 나가려는 안해의 결심  
에 공감은 했지만 그가 무슨 큰일을 치리라고는  
믿지 않았됐습니다. 지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  
보산업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때에 오래동안 집에  
박혀있던 녀자가 과학기술발전속도를 따라잡으  
리라 믿기가 어려웠지요.》

《혁일이 아버지 솔직해서 좋군요. 그래서 이번  
에 혁일이 엄마를 섭섭하게 떠나보냈어요?》

《아니, 그건?》

《내 추측이에요. 며칠전에 혁일이 엄마가 전화  
를 걸어왔됐어요. 저때문에 세대주가 기분이 상해  
하는것 같다구. ... 그러면서 집일을 잘 돌봐달라구  
당부했어요.》

승진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며 덕순  
반장이 다시 말문을 열었다.

《혁일이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고 나무라지 말  
아요. 내 보기엔 혁일이 아버지가 자기 안해를 아  
직까지 다는 모르고있는것 같아요. 혁일이 엄마는  
참하구 순박한것 같지만 속이 깊구 한번 결심한  
일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성미예요. 그는 어떤 사  
람들처럼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형이 아니예요.

그런데 혁일이 아버지는 안해의 리상에는 공감  
하면서도 그의 노력과 결심은 도저히 믿으려고 하

지 않으니 혁일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덕순이가 제집으로 돌아간 뒤 승진은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는 애연가는 아니었지만 생각이 복잡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한두대 붙여물기를 좋아했다.

파르스름한 담배연기는 우불구불 피이한 무늬를 그리며 천천히 날아퍼졌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다. 어둠속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불빛들이 반짝거리고있었다.

### 3

상쾌한 아침이었다.

한무리의 새들이 대기를 헤가르며 날아오른다. 한낮이면 무더위에 허덕일 크고작은 나무들이 생기가 자르르 흐르는 잎새들을 정열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변화한 거리.

꼬리를 물고 달리는 각양각색의 차량들도 류달리 경쾌해보이고 총총히 출근길을 줄여가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활기에 넘쳐보인다.

지난밤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던 승진이었지만 약동하는 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에게도 활력을 부어주었다.

한창나이가 청년처럼 기백있는 걸음으로 신문사에 들어서던 그는 취재용승용차결에서 서성거리는 부장과 마주쳤다.

부장은 마치 승진이가 미리 약속했던 사람인듯 단마디말로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타오.》

승용차는 고르로운 속도로 내달렸다.

부장이 앞을 주시하며 물었다.

《어디 가는가고 왜 묻지 않소?》

《가보면 알게 되겠는데요.》

《련포전선공장에 가오. 동문 취재하기가 좀 난처할테니 내가 도와주겠소.》

승진은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각이한 모양의 고층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을 묵묵히 내다보았다.

련포전선공장... 결혼전에는 연심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이다싶이 찾아다니던 공장이다. 그 공장길에 다시 오르코보니 어제 밤에 읽었던 안해의 편지구절이 다시 마음속에 아프게 떠오른다.

《그렇게 인정이 뜨겁고 리해력이 많은 혁일이 아버지가 오늘에 와서 저의 걸음에 제동을 걸 줄은 몰랐어요. 3년전 정월대보름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 다시 생기고보니 섭섭한 감정을 금할 수 없군요.

혁일이 아버지, 저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떠밀어주세요. ...》

...3년전 정월대보름날.

그날 승진과 연심은 처음으로 마찰을 일으켰다.

승진은 벌써 며칠전부터 유쾌한 계획을 세웠었다. 이름자도 기분좋은 국수와 귀밝이술, 혼치 않은 오탁밥에 부름깨기, 온 가족이 참가하는 윷놀이와 랑만적인 보름달구경... 음식들은 물론 안해가 차리기로 했고 오락기재는 제가 미리 준비해두었다.

그 현란한 계획은 아침식사때부터 뒤죽박죽이 되었다.

식사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에 골몰해있던 안해가 불쑥 공장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잠간이면 돼요.》

연심은 가쁜한 이를 드러내며 생긋 웃었다. 그렇게 나간 그가 여러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성화로 윷놀이를 시작했으나 전혀 흥이 나지 않았다. 우선 편이 뜻대로 갈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한편, 어른들이 한편이 되어 승부를 가르기로 했었는데 승진이 혼자 연심이까지 대신해야 했다. 거기에 크든작든 남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윷가락을 뿌리는것도 싱겁기 그지없었다.

윷놀이가 흐지부지되고 점심식사도 대충 건너갔다. 오후에도 연심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뿔뿔이 제 동무들을 찾아갔다.

승진은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귀에는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크게 확대되어 들려왔다.

안해가 직장일에 다시 몸을 잠근 그때부터 3년 동안 남편으로서, 세대주로서 야망을 보일대로 보였다. 밤늦게까지 책상을 붙들고 앉아 기술서적을 들이파다가 쪽잡에 들어도 불만보다 런던의 정을 알세웠고 직장일이 바쁘고 연구사업에 골몰하여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에도 대범하게 리해하고 웃으며 앞치마를 돌렸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날이야 경우가 다르지 않는가.

저녁이 가까와서 덕순반장이 찾아왔다.

《오늘은 즐거운 민속명절인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나?》

덕순은 자기 가정에서 조직한 윷놀이경기에 승진네 부부를 초청하러 올라온 길이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는 승진의 꺼멥게 질린 얼굴에서, 여느때없이 무거운 방안공기에서 모든것을 짐작한듯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는 년장자다운 너그러운 미소를 띄우며 위로하듯 말하였다.

《어찌겠나요? 혁일이 아버지, 리해해야지요. 남들과 같이 잘걸 다 자구 놀걸 다 놀아가지구야 어떻게 남보다 앞설수 있겠어요?》

덕순이가 돌아간 뒤 승진은 옷을 입고 밖에 나섰다. 어두웠다. 하늘에는 먹장구름이 낮게 드리워져있었다. 보름달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불 밝은 고층살림집들의 창가들에서는 노래소리, 윷

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었다. 보름달은 아마도 그 많은 집들에 쪼각쪼각 행복의 보석덩이로 나뉘어 깃든것 같았다. 오직 승진의 집에만은 공허, 어둠...

발걸음은 저절로 전선공장으로 향해졌다.

속이 아무리 뒤틀려있어도 막상 전선공장에 이르러보니 제나름으로 감회가 깊었다. 한때 여기서 연심의 퇴근길을 막아선적이 그 몇번이었던가.

어둠속이었지만 그새 공장이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승진이 정문앞으로 다가서는데 때마침 그곳에 안해가 나타났다. 그들은 한걸음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두사람 다 입을 열지 못했다. 승진은 길게 모두숨을 내쉬었고 연심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후에 안해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잠깐 나와본다는게...》

주눅이 든 그 말에 노여움은 어느 정도 풀리는듯 했으나 승진은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다.

연심은 바싹 다가섰다. 그에게서 기름냄새같은것이 풍겨왔다.

《용서하세요, 차라리 욕하던가.》

그들은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다. 밤은 깊었지만 거리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래일 저녁 옷놀이를 멋있게 하자요. 그리고 제가 한상 잘 차리겠어요. 래일엔 달도 뜰거예요. 혁일이 아버지처럼 흰한 달이.》

연심은 처녀들처럼 소리내어 깔깔 웃었다. 승진은 따라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했다.

《난 당신을 곁에서 보기가 민망스럽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당신이 룡이 될수 있을가. 지금 과학과 기술은 빛속도로 발전하고있소. 난 당신이 가정에 관심을 적게 돌려도 과학과 기술의 최첨단에 설수만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소. 그러나 일생 아득바득해도 크게 성공하지 못할바에야 차라리 모지름없이 적당한 속도로 나가도 일없지 않을가. 나는 이미 당신이 대학졸업생의 체면은 세웠다고 보오. 큰 직장의 책임기사구 또 창 의고안도 여러건 내놓았지.》

연심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날 떠보는거지요?》

승진은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진심이요.》

연심은 오래동안 잠자코 서있었다. 그는 가늘게 쪼프린 눈으로 먼 하늘을 더듬고있었다.

《내 말이 리해되지 않소?》

연심은 가슴속에서 그 무엇이 꺼져내리는듯 헉하고 가쁜숨을 내쉬었다.

승진은 가슴이 팽팽히 조여드는것을 느꼈다.

《리해되지 않아도 내 의향을 따랐으면 하오.

당신을 생각해서 그러는거요.》

연심은 승진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담담한 어조로 말하였다.

《용서하세요. 전 당신 말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혁일이 아버지가 몸쓸 녀자라고 꾸짖어도 이왕 나선 길에서 주저하고싶지 않아요. 저도 이 나라의 공민이고 기술자들중의 한 사람이예요. 전 강성대국의 대문에 어깨를 펴고 땀땀이 들어서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껏 고마웠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로 제 꿈에 칼질하면 전 어떡하나요?》

연심은 얼굴을 싸쥐며 돌아섰다.

승진은 어둠속으로 달음박질쳐가는 안해의 뒤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

《뭘하오? 내리지 않구.》

승진은 부장의 재촉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승용차는 전선공장 사무실청사앞에 서있었다.

대기는 혼 혼하였다. 하늘은 알뜰한 녀인이 정성스레 닦아낸듯 티없이 맑고 푸르렀다. 공원을 방불케 하는 구내에 짹 들어찬 무성한 나무들에서 갖가지 새들이 즐겁게 우짚고있었다. 현대적으로 꾸러진 생산건물들에서 기계들의 고르로운 동음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청사안에서 50대의 다부진 사람이 걸어나왔다. 그는 공장지배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였다.

《들어갑시다.》

차승진은 부장과 함께 공장의 여러 일군들과 노동자들을 만나보았다. 그 과정에 그는 자기가 지금껏 알고있는 안해가 사회적존재인 리연심이라는 인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의 보배로, 실력가형의 기술일군으로 떠받드는 연심은 분명 승진이가 가정의 테두리안에서 보고대하던 그 안해가 아니었다. 공장의 기술개진 사업에서 핵심적역할을 하였으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창 의고안들과 발명을 한 능력있는 기술자, 인생의 목표를 높이 내걸고 그를 점령하기 위해 분발하여 뛰고 또 뛰는 이악한 실천가. —이렇게 뚜렷이 부각되어 다가오는 한 녀성의 모습앞에 승진은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 내가 왜 안해를 일찍 바로보지 못하고 힘껏 떠밀어주지 못했던가.

그 잊을수 없는 정월대보름날 밤에도 나는 눈물을 머금고 향변하는 안해에 대해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던가. 그리고는 당신 마음대로 하오하고 다시 그의 얼굴을 돌이켜볼 생각을 안했지. 또 이번 출장길엔 얼마나 아픈 마음을 안고 그가 떠나게 했던가.

... 그밤 연심은 자정이 가까와서야 집에 들

어섰다. 그때 승진은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면서 갈피를 잡을수 없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등뒤에서 인기척소리가 났으나 승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혁일이 아버지.》

연심은 가볍게 승진의 팔을 잡아흔들었다.

《전 당신의 의향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제야 승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별스레 심각해진 안해의 얼굴이, 어느때보다 훨씬 더 커보이는 맑은 두눈이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연심은 웃으려고 애쓰는것 같았다. 그러나 입귀가 실룩거렸을뿐 얼굴에는 피로운 표정이 실렸다.

《그래요, 전... 따르겠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고 맥없이 중얼거렸다.

《안해가 남편의 뜻을 따르는거야 옹당하지요.》

어디서 홀로 울었는지 눈시울이 부은 얼굴에는 모든것을 체념한듯 한 나른한 기색이 어렸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겠어요.》

안해는 손에 들었던 자기의 대학졸업증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건 저의 금지였고 포부였고 희망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 이걸 지닐 자격이 없는가봐요. 전 명색뿐인 대학졸업생, 제 뚝이 없이 자리지킴만 하는 기술자로 남아있고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겠다는거요?》

이렇게 묻은것은 분명 승진이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 물음은 집천정에서 아니, 먼 하늘에서 울려오는것 같았다.

《전 이 졸업증을 모교에 바치겠어요. 얼굴이 뜨겁겠지만 어쩌겠나요? 제 구실을 못하는 졸업생인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려던 리상을 제스스로 포기했는데...》

연심은 소리없이 웃었다.

그러나 승진에게는 그가 우는것으로 보였다.

부장과 승진에게 공장일군이 다가왔다. 그는 간단히 취재정형을 묻고나서 두사람의 팔을 잡아 이끌었다.

《제 사무실에 갑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운 케블접속부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적발명을 한 연심동무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습니다.

공장이 들썩거립니다.

우리 지배인동무랑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습니다. 기자동무가 연심동무의 남편이라는것을 알고서는 그냥 보낼수 없다면서 꼭 만나보고싶어합니다. 어떤 동무는 연심기사와 같은 녀성을 안해로 맞은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면발치에서라도 보고싶어합니다.》

그날 밤 승진은 기사를 쓰기에 앞서 멀리에 있

는 안해에게 편지를 쓰고있었다.

《여보!

며칠내로 당신이 도착할줄 알면서도 이 마음의 흥분을 누를길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소.

기뻐하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을 평가하시면서 많은 창고안들을 한 당신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보내주시었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

운명의 희롱이랄가. 기자생활 십여년만에 나는 자기 안해에 대한 소개 기사를 쓰게 되었구려.

그렇소. 난 이번에 연심이란 녀자에게 사회가 뿌려주는 빛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었소.

결과는... 난 큰 충격을 받았소.

이번에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되면서 내가 느낀것을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소. 그러나 나는 한가정이 아니라 한 공장의 기둥으로 우뚝 서있는 나의 안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것만은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소.

난 지금 당신을 정신없이 따라다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이요. 지금 나를 당신에게로 정신없이 떠미는것은 그 시절처럼 당신의 미모와 순박한 성품에 대한 매혹이 아니라 자기의 완강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자기 위치를 찾고있는 한 녀성에 대한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요.

그렇소. 나는 지금 사랑에 빠져있소. 당신을 처음 만날 때의 그 사랑보다 더 열렬하고 심원한 사랑에 빠져있소.

여보, 어서 돌아오오.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는 내 곁으로 한시바삐 돌아와주요. ...》

×

차승진은 안해에 대한 기사를 썼다. 쓰면서 누군가가 결혼식날에 들려준 말을 즐겁게 되새겨보았다.

《못난 남편이란 어떤 사람이라구 생각하나? 내 알기엔 제 처 사랑을 들고다니는것도 못난짓이지만 제 처를 다 안다구 자부하는것도 현명치 못하다는거야.》

그러니 결국 승진은 못난 남편의 두가지 특성을 다 체현하고있는셈이었다. 안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었고 또 이제 와서는 안해에 대하여 제손으로 세상에 대고 자랑하는셈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써야 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한 녀성의 모습을 많은 독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승진은 썼다. 그 글은 결코 안해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다.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참된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 열렬한 노래였다.

# 시다운 시세계에 대한 탐구

—올해상반년도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시들을 읽고—

리 동 수

시다운 시세계를 창조하자면 시의 본색을 살려 그대로 시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것이 바로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시의 본색은 서정성을 생명으로 한데 있다.

시가 시다운 시로 되기 위하여서는 서정성으로 충만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여야 한다. 선군시대 우리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시다운 시는 참된 시의 본색을 찾기 위한 피타는 탐구과정에 얻어지게 된다.

## 시적정서와 시인의 숨결

시는 체험의 문학이다. 체험이 깊고 뜨겁고 독창적일수록 시적정서도 그만큼 진실하고 풍만해진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충천하는 기본전선에 깊이 침투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서 내닫는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과 정신력을 노래한 시작품들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백배해준다.

잡지 1호와 4호에 편집된 강선용해공들을 노래한 현지특집작품들을 통하여 독자들은 시대의 맥박과 불을 다루는 강철전사들의 뜨거운 숨결소리를 듣고있다.

시들을 읽어보면 마치 텔레비존화면에서 낮을 익힌 붉은 화염속에 《춤》추는 강선의 용해공들을 보는것만 같다.

용해공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과 의지를 뜨거운 체험으로 밝혀내기 위해 탐구한 흔적은 강선땅에선 그가 누구든 강철로만 통한다는 생활의 리치를 찾아낸 시 《강철로만 통한다》(김학률 작, 1호)와 새 전기로앞에 선 용해공의 마음속엔 배짱도 욕심도 커진다는 솔직한 체험을 《마음속엔 쇠물의 <대동강>》이 출렁인다는 엄청난 비유로 표현한 시 《배짱도 커지고 욕심은 더욱 커져》(백정남 작, 1호), 또한 용해장에

살면서 오직 출강 하나밖에 모르는 로장의 일욕심과 통이 큰 락천적기질을 《긴급지령》과 관련된 폭소속에 생활적으로 노래한 시 《용해장의 <긴급지령>》(위명철 작, 4호)과 같은 시들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용해장의 불길속에서만 찾아낼수 있는 체험세계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허나 상대적으로 아쉬운감을 주는것은 현지체험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파고들어 오직 시인 자신만이 발견할수 있는 독창적인 생활세계를 찾아내어 용해공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시인의 뜨거운 숨결에 태워 절절하게 터치지 못하고 생활과 떨어진 추상적인 웨침으로 가리우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례하면 《신념과 의지의 쇠물로/ 아름다운 노을을 피우는 사람들!》(시 《강선사람들》), 《그 간절한 그리움속에/ 쇠물이 끓고/ 위훈의 나날이 이어지고》(류춘선 작, 《새 전기로에선 쇠물이 끓고》), 《로심에 타는 저 불은/ 장군님 지퍼주신 자력갱생의 불》(김춘식 작, 시 《새 전기로에 부치여》) 등과 같이 표상이 없고 감각이 오지 않는 주관화된 표현들을 려거하고있는데서 드러나고있다.

선군시대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로 일떠선 원산청년발전소에 나가 현지체험과정에 창작한 여러편의 시들(잡지 5호에 집중편집됨.)을 보면서 발전소건설자들의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력과 그 힘의 원천에 대한 문제에 주의가 돌려지지 못하고 그 결과에 심취되어 흥분을 앞세운 창작적자세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바와 같이 원산청년발전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여기엔 발전소건설자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과 강毅한 의지, 불굴의 투쟁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숭고한 동지애와 도덕의리,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는 열정과 불타는 랑만의 세계가 뜨거운 피와 진한 땀에 배여 융솟음치고있다.

시인들은 천지개벽을 안아온 희한한 전변앞에서 감격의 붓을 들기 앞서 위훈의 결과에 습배여 있는 위대한 정신력의 비결을 찾아내어 위훈자들의 뜨거운 심장의 숨결에 태워 눈물겹게 노래

해야 했을것이다. 시인의 사명과 과제는 전변된 모습과 결과를 제시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에 발휘된 위대한 정신력을 파고들어 사람들을 격동시키는데 있다.

고미탄천마을은 어디로 갔나  
산골마을 그 모습 어디에 있나  
사라진 물밀마을 찾지나 말라네  
호수가에 솟은 새집들 물결우에 실렸지

...

물결치 없는 산촌 그 무슨 선경이라  
빛과 열을 품어안고 설레는 물결  
원산청년발전소 구룡저수지  
장군님 선경으로 펼쳐주셨지  
(오재신 작, 시 《산중호수풍경》)

기적적으로 전변된 《선경》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붓을 놓아서는 안된다. 《선경》은 눈앞에 펼쳐진것이어서 누구나 보면 감탄할것이다. 시인은 《선경》을 안아오기 위해 바친 보이지 않는 피와 땀의 무게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기로 밭짓고 방을 덥히는 굴뚝 없는 마을을 노래한 시 《굴뚝 없는 마을》(오정로 작)도 물론 시적인 소재이며 하나의 발견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시인의 체험세계가 독창적으로 깊이있게 탐구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격의 시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시 《불빛에 대한 생각》(주경 작), 《자갈을 입니다》(강승계 작)도 결과에 대한 현실재현, 현실확인에 머무르고있다.

그중 시 《하늘이 내린 호수》(박성일 작), 《아는가》(김정곤 작) 등은 독창적인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나가면서 시인의 주정을 능동적으로 끌고나간것으로 하여 현실재현의 경향에서 벗어나 위훈자들의 정신적근저를 엿보게 하고있다.

시 《하늘이 내린 호수》에서는 거창한 공사를 치른 건설자의 가슴에 안겨 웃고있는 저 언제와 호수와 높은 하늘, 시인은 자력갱생의 큰 심장이 안아온 위대한 정신력을 하늘이 내린 호수에 비겨 간명하게 밝혀내고있다.

시 《아는가》에서는 그 어떤 위대한 창조물도 신념이 확고하고 결심이 단호하면 어김없이 해낼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언제건설자들의 의지와 위훈의 세계를 통하여 생활적으로 깨우치고있다.

보는것처럼 시에서 공감을 일으키는 시적정서는

결과를 제시하거나 확인하는데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창조자들의 정신세계를 파고들어가 시인의 숨결이 비끼 뜨거운 주정을 펼쳐나갈 때 생겨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혁명과 선군과 총》에 대한 시

《조선문학》잡지 상반번호들에는 무산지구전 투승리 70돐과 관련하여 창작된 《총대례찬》을 비롯하여 많은 총대주제의 시작품들이 실려있다.

그중에서도 부각되고있는 시 《총대례찬》(김형준 작, 5호)에 대하여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선군시대 총대주제의 시들이야말로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집적하고있는 총탄과 같은 시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우리 시문학의 창작 실태를 깊이 꿰뚫어보시고 시는 론리가 정확하면서도 음미할수록 뜻이 새겨지는 맛이 있게 사색이 있고 정서도 있게 씌여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당의 의도를 잘 알고 시다운 시, 문학다운 문학을 창작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지금까지 선군정치, 총대철학에 대하여 노래한 시들은 셀수 없이 많았다. 저저마다 시인들이 총대는 우리의 생명이며 의지이며 사랑과 증오, 애국과 행복의 상징이며 삶과 운명의 전부라는데 대하여 소리높이 웨치였다. 그러나 일부 시들은 구체적이며 감성적인 체험을 떠나 사상을 직선적으로 선언하거나 추상적인 주정을 터치면서 정론적양상으로 흘러간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총대례찬》은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를 깊이 파고들어가 생활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안겨오도록 사색이 있고 철학도 있고 정서도 있게 씌여졌다는 점에서 종래의 총대주제의 시들과 구별된다. 시는 총대사상, 총대철학을 발견이 있는 서정에 감싸 폭이 있고 사색깊게 결속한 시, 총대주제의 모든 시들을 비교적 혁신적으로 총화한 성공적인 시라고 말할수 있다.

...

아, 죽어도 총을 베고 죽는 사람  
보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영생하는 투사들의 령혼을 지켜  
총대가 있나니  
혁명과 선군과 총은 하나의 운명

...

시인은 또한 사색에 사색을 이어가며 독창적인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든것으로 하여 누구나가 다 말할수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 시인의 얼굴이 엿보이는 발견이 있고 색채있는 주정세계를 펼쳐 나갈수 있었다. 강렬한 충격이 일으킨 시적감흥은 창조적환상의 나래를 펼치고 편이어 떠오르는 시상을 단필에 감아 일필휘지한 흔적을 뚜렷이 남기였다.

시인은 무산지구전투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총대탑앞에서 그날의 백두의 총성을 새겨안으며 뜨거운 충격을 받았다. 돌격의 함성높이 총창을 비껴들고 적진에 육박하는 투사들의 군상이 번개처럼 살아움직이며 그날의 결전장을 펼치였다. 순간 시인의 뇌리엔 시적환상이 번뜩이며 편이어 시상을 몰아왔다. 그날의 뜻깊은 총성,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판가리하는 백두의 퇴성벽력이었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철학이었으며 《세기를 두고 풀지 못한 숙제》에 《명쾌한 총성으로 해답》을 준 운명의 총성이였다.

...

백두령장의 습격로  
세계를 호흡하며 세계를 굽어보는  
세상에 오직 하나인 승리의 탑

...

시인은 우리의 의지이며 생명인 총대, 우리의 미래이며 승리인 총대에 대한 열렬한 격찬을 주제적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공적의 결과로 깊이있게 해명하면서 총대철학에 대한 하나의 웅근 시다운 세계를 펼쳐보이려는 욕심을 여러모로 시도해보았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욕망만으로 실현되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 《총대폐찬》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창작적교훈이 있다. 그것은 기성의것, 종래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 무엇인가 새롭게 착상하고 새롭게 형상해보려는 총동과 창작적야심이다.

시인은 《너의 총성은 백두의 퇴성벽력》,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라고 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철학은 세기를 두고 풀지 못한 숙제라고 자기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그러면서 그 《흥망성쇠》와 《숙제》를 그 명쾌한 《총성》으로 해답을 주었다고 하고있다. 시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 해답이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총대를 사랑하면 영원한 삶!》, 《총대를 버리면 영원한 죽음》이라는것이다. 하여 시에서는 백두의 총성이 《인류의 공통언어로》 되었다고, 또 《인류의 좌우명》이라고 폐찬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시의 서정적행이 있고 시인의 자기 주장이 있다.

다른 하나는 종래의 모든 총대시들과는 달리 생활속에서 시상을 찾고 생활을 깔고나가면서 섬세한 감각과 감성적인 체험에 감싸 사색에 사색을 덧쌓으면서 사상을 정서적으로 이끌어내고있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시가 선언적인 웨침으로 떨어지거나 추상적이며 직선적인데로 떨어지지 않고 철학적심도를 보장하면서도 정서있게 안겨오게 되었던것이다.

또한 시에서는 사실 그자체에 대한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시적환상과 낭만적정서가 흐르는 속에 과장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시어, 남들이 쓰지 않은 색깔있는 시어들을 찾아내면서 새맛이 나게 형상하고있다는것이다. 시인의 남다른 얼굴도 이런데서 비끼게 된다.

시는 서정시치고는 비교적 길게 전개된 시이다. 그렇다고 장시와 같은 구성을 갖춘 시도 아니다. 하지만 따분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시가 생활을 타고나가면서 섬세한 감각과 감성적인 체험에 의거하여 사색도 있고 정서도 있게 서정을 승화시켜나간때문이다.

시는 시인의 진지한 창작적자세와 거기에 기울인 사색과 탐구의 흔적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총대주제의 시들중 부각되는 작품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시다운 시를 창작하는 길에서는 누구나 이시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야 한다는 창작적야심으로 분발해야 할것이다.

총대주제의 시들에는 이밖에도 장시 《나는 심장으로 노래한다》(김덕선 작, 1호), 시초 《오늘도 울려오는 불멸의 총성》(5호) 등 여러 편의 시들이 있다.

장시 《나는 심장으로 노래한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선군장정의 거룩한 자욱을 더듬으며 선군은 총대만이 아닌 인민에 대한 사랑, 노래에 대한 사랑, 생활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장을 펼쳐보고있다.

의도는 이해되나 그 주장이 일정한 논리를 타고나가면서 생활적인 편관속에 맞물려 뜻이 있게 해명되지 못하고 선군이란 의미를 이미 시인이 재단해놓은 틀에 생활자료를 맞추어 평면적으로 시화하고있기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있다. 독창적인 체험, 시인의 뭉이 없고 발견이 없는 시들은 감동의 진폭도 없다.

시초 《오늘도 울려오는 불멸의 총성》중에서도 시 《부름처럼 구령처럼》(박상철 작, 5호), 《번개를 휘감아》(서봉제 작, 5호), 《5호물동의 담시》(오인섭 작, 5호)와 같이 시인의 내적체험세계가 새롭고 주정이 뚜렷한 시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들도 있다.



## 생활정서의 다양성과 진실성

상반년잡지들에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정서, 생활감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시 《년하장》(백하 작, 1호)이 공감을 주는것은 눈물겨운 체험속에서 나온 감정정서의 진실감때문이다.

...

정녕 그 믿음, 그 사랑이 있어  
나는 고난의 해들을 웃음으로 헤쳐노라  
참기 어려운 때는  
내 그 년하장들을 꺼내보았노라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솟았노라

아, 목숨같은 사랑의 년하장들  
내 저 하늘중천에 높이 걸어  
이 은정 천만년 전하고싶구나  
장군님의 그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고싶구나

꾸미거나 보탬이 없이 가슴속 진정의 호소를 그대로 소박하게 터친 절절한 주정이 그대로 시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준다. 시는 언제나 시인 자신의 진정의 뜨거운 호소로 울려나와야 한다.

시 《나에게는 스승이 많다》(주광남 작, 3호)는 자신의 성장과 운명적으로 이어진 스승들에 대한 고마움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서정적주인공의 의리의 세계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일심단결된 내 나라의 참모습을 엿보게 하는 생활그대로의 진실이 반영된 보편성이 큰 시이다.

작은 생활세부를 통해 큰것을 보여주는 시 《취나물이야기》(허군성 작, 4호) — 먼 현지도의 길에서 산발만 바라보아도 우리 수령님께서 자주 외우곤 하시던 취나물을 어느 한 고장 인민들이 간소한 식탁우에 놓아드렸다. 우리 수령님은 이제 바로 취나물이라고, 어서 맛들 보라고 달게 드시는데 일군들은 씹쓸하고 짧은 맛에 넘기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있다.

...

아, 수령님 우리러 일군들  
가슴 찡 저러오는 생각  
얼마나 간고한 항일전이었던가  
얼마나 고난에 찬 길을  
수령님 헤쳐오셨던가

...

취나물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식으로 엮고있어 시다운 감칠맛을 주지 못한다. 허나 진실을 그대로 시화한 속에 간고한 나날 우리 수령님 고생이 헤아려져 눈물겹게 안겨온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전투에 한몫을 하고있는 참전자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약동하는 시대정서를 다양한 시점에서 노래한 시 《나도 참전자라오》(안명애 작, 5호), 《빈집》(송명근 작, 5호)과 같은 시들도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시 《나도 참전자라오》에서는 용해공보배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차려주고싶은 심정으로 아들들의 《명령》을 놓칠세라 서둘러 《응석》을 받아주는 어머니 — 참전자의 《사는 멋》에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시 《빈집》에서는 발전소건설장에 아들, 며느리를 보낸 로인내외가 우리 장군님 다녀가신 소식을 듣고 서둘러 뒤따라나서는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들끓는 정서를 생활적으로 색채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시 《사랑의 샘물》(손성모 작, 6호)은 인민 위해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하나의 작은 샘물이야기에 집적시켜 절절하게 일반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감동깊게 안겨온다. 특히 시인은 한모금 물도 단비처럼 그림던 감옥시절과 온갖 약수와 샘물에 오늘은 룡악산샘물까지 겹쳐지는 사랑의 극적체험세계를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감동깊다.

총대가정의 부모된 긍지와 자랑을 노래한 시들도 많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문제점을 잡아쥐고 개성적인 체험세계를 파고들어 승화시켜나간 시인의 얼굴이 엿보이는 시는 별로 없었다. 이런 점에서 시 《당원증》, 《증표》(박철 작, 6호)가 좋았다. 시에서는 우리 장군님 품속에서 림름한 병사로, 당원으로 자라 돌아온 아들을 맞는 부모의 대견하고 가슴뿌듯한 체험세계를 인정과 혈육의 계선에서 동지판계로 승화시켜 진지하게 노래하고있다.

# 교정의 종소리

김련실

손저어 바래워주는  
선생님과 동무들을 뒤에 두고  
초소를 향해 술고개를 넘는데  
울려오누나  
교정의 정깊은 종소리

저기 교재림사이로  
그림처럼 안겨오는 모교의 지붕  
이 심산 막바지에도 학교를 세워  
시간표를 따라 늘 울리던 종소리  
지금은 왜 이다지도 이 가슴 흔드는것인가

크지 않은 운동장  
축구경기 신나던 체육시간의 그 호각소리  
출석부를 펼치고 내 이름 불러주던  
선생님의 다정한 음성  
정깊은 종소리에 실어  
못 잊을 추억을 불러주누나

아, 흑판에 새기던 하얀 글자들이  
어찌 학습장갈피에만 옮겨졌으랴  
그 한자한자 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조국을 알게 하고  
삶의 목표를 내 마음에 바르게 세워준것이니

어제는 저 종소리 들으며  
누구는 대학을 향해 이 고개를 넘었고  
오늘은 초소를 향해가는 내가  
이 고개길에서 저 종소리를 듣고있나니

이 가슴 못 견디게 흔드는 종소리  
내가 앓았던 책상  
수학공식을 써붙인 교재림의 나무들  
그 모든것이  
한 울림속에 뜨겁게 안겨오는  
교정의 종소리  
고향의 당부를 다시금 새겨주는가

오, 종소리 모교의 종소리  
초소로 떠나는 이 아들에게  
애국의 뿌리 흔들리지 말라고  
삶의 순간순간을  
보답의 시간으로만 이어가라고  
다시금 이 가슴에 새겨주누나

상반년잡지에 실린 계급교양주제의 여러편의 시들중에서 《밤알이 떨어지는 소리》(리일섭 작, 6호), 《전쟁에 대한 이야기》(박향미 작, 6호)가 비교적 눈에 띄었다.

상반년에 창작된 시들을 총괄해보면서 말하게 되는것은 성과도 있지만 시다운 시세계의 경지에 이르자면 아직도 먼거리를 도약해야겠다는것이다. 더우기 시로 되지 못한 시들이 아직도 눈에 띄우고있는것은 시인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시 《아버지의 당부》(외 1편)(리성철 작, 4호)를 들어보자. 인생의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시이다. 무난하게 엮여지고있으나 시다운 맛이나 시로써 주는 여운은 없다. 누구에게나 상식으로 되고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시줄로 옮겨놓았기때문이다.

잔치상앞에 마주앉은 딸에게 나서자란 산원과

유치원, 대학창가에 어렸던 우리 장군님 사랑을 잊지 말고 변심을 모르는 선군혁명동지가 되라(시 《아버지의 당부》)는 일반적인 당부로 엮어진 시이다.

시 《인간의 가치》도 신통히 같다. 상식적인 교훈을 토막낸 시줄로 펼쳐놓고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범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순간을 살았어도 조국이 기억하는 인생은/값있는 인생/머리가 희게 살았어도/저 하나만을 위해 산 인생은/...값없는 인생》이라는 상식을 되풀이하고있다.

보는것처럼 두 작품은 문제점도 발견도 없고 시적론리도 없고 정서적인 내적체험의 호소도 없는 메마른 시이다.

시는 시로 되어야 하며 시다와야 한다. 시인들은 생활이 넘쳐나고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를 파고든 사색이 있고 서정이 넘치는 추억에 남는 시들을 독자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



# 첫 생활비

오 광 천

후야근을 마치고 목욕을 하고난 덕준은 김이 문 문 피어오르는 머리를 털며 목욕탕문을 나섰다. 대한절기의 맵찬 아침날씨는 물기 젖은 그의 머리칼을 대번에 솔잎처럼 찻찻하게 만들었지만 웬일인지 가슴은 자꾸만 후더워올랐다.

그도 그럴것이 악착스런 일본놈들도 무서워 벌벌 떨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장수인 파견원이 손수 터진 증기관을 보수하여 목욕물을 따뜻하게 덥혀주었다니 어찌 심장이 달아오르지 않으랴.

정말 해방이 좋긴 좋구나 하는 감정이 실감으로 느껴지는것이다.

《참 달라졌어.》

덕준은 젖은 머리카락에 맺히는 얼음가루들을 털어버리고나서 시려드는 손을 다 해진 작업복주머니에 찔렀다.

그런데 이게 뭐야? 보기에도 흉하게 우그러든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이 담배불총난 곳으로 빠져나와 세상구경을 하는것이다. 덕준은 일본놈의 구두발에 짓모아져 그대로 굳어져버린 손가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럴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여보게, 해방도 됐겠다 제격 마음착한 색시를 얻으라구. 그럼 이런 구멍 같은건 제격제격 기워주질 았을라구.》

궁보아바이였다. 그로 말하면 덕준이를 카바이드등의 불침처럼 노상 달고다니며 굴일을 배워준 사람이였다.

《아유, 말도 마시우. 내같은 가난뱅이에게 어느 체네가 오겠다 하겠어요.》

덕준은 옷주머니에서 뽀은 손을 바지주머니에 쓸어넣으며 살빠진 얼굴에 허거픈 미소를 담았다.

《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산에서 싸운 파견원이 말하지 않던가. 참 자네는 아직 그분을 못 만나뵈왔다지. ... 그분이 말하더군, 이제 우리같은 노동자가 탄광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이라구, 허.》

덕준은 젖은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넘기며 만족스럽게 웃는 아با이를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해방전에는 금시 떨어진 덩이탄처럼 눈알만 반짝이는 어린것들을 오롱조롱 일곱이나 낳아놓고 처자들 먹여살릴 걱정에 노상 한숨만 푹푹 내쉬던 그 입에서 웃음을 볼수 있다는건 참 신비한노릇이었다.

달라진것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아바이의 말처럼 주인이 달라졌다는것이다.

해방과 함께 탄부들을 노예처럼 다루던 감독이요 심장이요 하는 놈들이 사라지고 대신 우리모두가 이 탄광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것이다.

《헛참, 주인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내나 아바이처럼 돈 한푼 없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고 그러시우. 그리고 다 주인이면 일할 사람은 대체 누구게요?》

덕준은 이해할수 없는 의문을 궁보아바이에게 터놓았다. 궁보아바이도 서당문전에도 못 가본 알짜무식쟁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해할수 없는 《주인》이란 말을 떡먹듯 쉽게 하기때문이었다.

《글쎄 말일세. ... 하여간 그 주인이란 소리가 듣기에야 얼마나 좋은가. ... 저 혹시 지금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스스로 일하는것이 주인이 아닐가?》

아바이의 말대로 해방이 되자 돈도 쌀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탄부들스스로가 왜놈들이 달아나며 파괴하고 침수시킨 갯을 보수하고 물을 퍼내고 석탄생산을 시작한것은 사실이다. 헌데 지금처럼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며 일하는것이 주인이라 말할수야 없지 않는가?

덕준은 그래도 아바이는 뭘 좀 알길래 말한다고 생각하며 물었던것이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찢다 썼다.

《어유, 한공수를 하고 나와서도 손에 천게 없어 집식구들앞에 머리를 들수 없는게 주인이라면 난 애초에 주인되기를 그만두겠수다.》

《허, 이제 무슨 변통이 있겠지. 갓 해방이 됐는데 나라에라고 무슨 돈이 그리 넉넉하겠나. 자, 그만하고 탄광위원회에나 가보세.》

아바이는 탄광위원회 사무실쪽으로 덕준을 이끌었다.

《참, 아까 위원장이 말하던 그 생활비란게 대체 뭐래요?》

덕준은 막장에서 나올 때 탄광위원회 위원장이 하던 말을 상기하며 물었다.

《글쎄 나두 머리털 나와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알겠나?! 어쨌든 뭔지 주긴 준다니까 가보세나.》…

탄광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서자 위원장이 그들을 반겨맞아주었다.

《아, 공보아바이랑 제일먼저 왔군요. 자, 이리로 오십시오.》

위원장은 고동색의 얼굴에 사람 좋은 미소를 담고 책상우에 가득 쌓인 종이봉투가운데서 두개를 끄집어내어 공보아바이와 덕준에게 내밀었다.

《이게 대체 뭐가?》

공보아바이가 얼떠름한 표정을 짓고 물었다.

《생활비지요.》

《생활비란 대체 뭐요?》

《하긴 처음 듣는 소리겠습시다. 나도 처음 입에 올리는 말이긴 하지만…》

위원장은 결봉을 터쳐서는 안에것을 꺼내서 덕준이와 아바이에게 안겨주었다. 그것을 열결에 받아든 덕준은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한동안 어리둥절해 서있던 그는 큰소리로 고함치듯 말했다.

《아니! 이진 돈이 아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공보아바이가 와뜰 놀라 어깨를 떨었다.

《그래 돈이지요.》

위원장은 덕준이를 덤덤히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었다.

《헌데 이진 왜 우릴 주는거요?》

《탄을 캐었으니 받는거지.》

《그럼 간조란 소리우?》

《간조? 아, 하필이면 듣기에도 역겨운 왜놈 말을 쓰겠나. 이 돈으로 말하면 **김일성**장군님께서 탄부들의 생활을 넘려하여 보내주신것이니 생활비라는 말이 옳지요.》

덕준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돈》이란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났다.

공보아바이도 두눈을 자꾸만 습벅이더니만 위원장의 손을 잡으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장, 난 통 뭐가 뭔지 모르겠구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나라엔 돈이 한푼도 없다더니만…》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나도 탄부들의 생활형편이 걱정되어 돈을 좀 변통해보려구 여기저기 다녀보았지만 어딜 가나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평양에 올라갔다는 파견원동지가 하는 말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탄부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해방된 나라를 위해 갱을 복구하고 탄을 캐고있다는데 어떻게 해서든 탄부들에게 자금을 마련해 보내주자고 하시면서 손수…》

위원장은 감격을 목새기기 어려운듯 불깃해진 눈언저리를 비비며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덕준은 자기가 어떻게 사무실을 나섰는지 알지 못했다. 찬바람 부는 밖에 나섰으나 화끈 달아오는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코허리가 시큰해나면서 눈물이 솟구쳤다.

문득 그의 귀가에 애절한 부름소리가 울려왔다.

《오빠야!》

《응?!》

흠칫 놀라 고개를 번쩍 쳐들고 사방을 휘둘러보았으나 주위엔 생활비를 타들고 눈물이 글썽해 나오는 탄부들뿐… 그 애처로운 목소리는 멍이 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동생의 마지막부름소리로 불쑥 솟구친 것이었다.

《덕이야!》

눈물방울이 덕준의 꺼칠한 볼을 타고 주르르 미끄러졌다.

《임자 또 동생 생각을 하는게구만.》

뒤따라나온 공보아바이가 덕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러자 덕준은 더더욱 설움이 북받쳐 어깨를 떨었다. 턱에 맺혀졌던 눈물방울이 툭툭떨어졌다.

《이 사람 덕준이, 글쎄 **김일성**장군님께서 사람 값에도 못 들던 우리 탄부들의 생활을 넘려하여 이렇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공보아바이도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건잡을수 없는지 손등으로 눈굽을 훔치었다.

《아바이, 그만하시우. 어서 소원대루 애들을 실컷 먹여야지요.》

덕준은 돈을 절반 갈라서 아바이에게 놓아주었다.

《이진 왜 그러나?》

《나야 홀몸인데 크게 쓸데가 있나요. 이걸 보태서 애들에게 신이라도 한컬레씩 사주랴요.》

아바이는 덕준이의 돈을 다시 밀어놓았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이 생활비를 범상하게 여기지 말고 꼭 값있게 쓰라구. 이젠 나라의 주인이 아닌가?!》

헛참, 돈을 쓰는데도 주인인가?

덕준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덕준의 고향은 동해기슭 작은 어촌이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의 가정은 생선토막 하나 생겨도 네 식구의 국그릇에 차례로 돌아가는 말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다.

헌데 그 단란하던 가정이 깨어진것은 돈에 환장을 한 선주놈의 강요에 못이겨 풍랑사나운 바다에

배를 띄웠던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때부터였다.

악착한 선주님은 아버지잃은 설움에 눈물 흘리는 집안에 뛰어들어 풍랑에 떠내려간 배값으로 가산을 빼앗다못해 한달내로 빚을 갚아내지 못하면 팔아넘기겠다며 어린 덕이를 끌어들었다. 그 울화에 어머니마저 숨지고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덕준은 오직 하나 남은 사랑하는 동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한가지 일념으로 고역장에 빠도 굳지 않은 어깨를 들이밀었다. 덕준이를 불쌍하게 여긴 이웃들도 있는 힘껏 도와주었지만 덕준에게 있어서 엄청난 빚값을 마련한다는것은 너무도 아픈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선주님의 집에서 식모로 있는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덕이가 놈쟁이들에게 끌려 역에 갔다고 알려주었다. 덕준이가 혈레벌떡 달려서 역에 당도하니 해빛에 총창을 번뜩이며 왜놈병사들이 유개화차에 오르고있었다.

《덕이야, 어디 있어? 덕이야!》

덕준은 목이 터져라 부르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오빠, 나 여기 있어.》

소리난쪽을 보니 애어린 처녀들이 몰려서있는 곳에서 연자돌처럼 몸이 다부진 왜놈이 이쪽으로 달려오려고 몸부림치는 덕이의 앞섰을 거머쥐고 우격다짐으로 끌어당기고있었다.

《덕이야.》

한달음에 덕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연자들》이 덕준을 밀막아나섰다.

《이건 뭐야?》

《이보시오, 애는 내 동생인데 제발 돌려주시오.》

《뭐라구, 이 계집이나 <천황폐하>께 충실한 박선주가 일본에 바쳤단 말이다. 건방지게...》

《나리님, 내 선주님께 진 빚은 꼭 물겠으니, 제발 동생만은...》

덕준은 놈의 손을 부여잡고 애원했다.

《에, 그놈이나 시끄럽다.》

그놈은 구두발로 덕준의 아래배를 들이쳤다. 덕준은 숨을 꺾 막는 아픔에 배를 움켜쥐고도 한손으로는 덕이를 찾아서 허둥거렸다. 그런데 그 손길이 놈의 코등을 쳐놓을줄이야.

《칙쇼, 이놈이 일본인을 구타한다.》

피를 본 놈이 야수처럼 달려들고 그에 덩달아 다른 놈들까지 덕준을 조겨대기 시작했다.

《칙쇼, 군용화차를 빨리 출발시켜야 하겠는데 무슨 일인가?》

들창코밀에 나비수염을 기른 장교놈이 허리춤의 군도를 너털거리며 달려왔다.

《이놈이 란동을 부리며 방해합니다.》

《조선놈이나 대동아위업에 반항한단 말인가. 저 손모가지나 분질려야 한다.》

장교놈은 바닥에 피를 탕자하게 쏟으며 쓰러져있는 덕준의 손을 군화바닥으로 내리찍고 또 내리찍었다.

《우리 오빠를 때리지 말아요.》

덕이가 장교놈의 군화발에 매달렸다.

《흐, 고놈의 계집이나 살색이 해사한게 양귀비한가지다.》

장교놈은 찢어진 치마자락사이로 드러난 덕이의 속살을 음흉하게 바라보며 너털웃음을 쳤다.

《덕이야!》

덕준은 간신히 머리를 들었다.

《오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난 오빠없인 못살아.》

덕준이는 군화발에 짓이겨져 곤죽이 된 손을 떼며 그동안 모은 몇푼의 돈을 내밀었다. 지폐에 검붉은 피가 묻어 흘렀다.

《덕이야, 이 오빠가 너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부디 몸성해서...》

장교놈이 덕준의 손목을 꼭 밟았다.

《야, 시간이 없다. 빨리 저 계집이나 처설어라.》

여러놈이 달라붙어 발버둥치는 덕이를 닥치며 어 화차안에 던져버렸다.

《오빠야!》

덕이의 피타는 부르짖음소리.

덜컥 화차가 움직였다.

《덕이야. ...》

덕준의 피흐르는 손이 허공에서 흔들리다가 맥없이 땅바닥에 떨어져내렸다. 피젖은 지폐장들이 바람결에 땅바닥을 활으며 훑날려갔다. 태양도 처참한 광경을 눈뜨고 볼수 없는지 서산마루에 몸을 숨기고는 피빛노을을 피워올렸다. 그 하늘에 하소하듯 기관차도 목놓아 울부짖는다.

《뽕-》

그후 덕준은 덕이가 치욕을 면하자고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불쌍한 내 동생 덕이야!

쓰러린 추억으로 가슴 적시며 발가는대로 걸음을 옮기던 덕준은 어느새 장거리에 들어섰다.

한달껏 눈 한번 내리지 않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먼지가 뽕얇게 일어나는 길거리에 그래도 장사꾼들이 늘어서는 코밀이 새까맣진채 《짜구려》를 귀술잡게 웨쳐댄다.

이놈의 탄광은 비가 와도 걱정, 오지 않아도 걱정이다. 지금처럼 며칠간 개인 날씨가 계속되면 먼지통에 야단이요, 비가 하루만 내리면 석탄감탕때문에 더 큰 난사이다. 그럴 땐 석탄먼지가 비물에 씻겨내려 길거리에 검은 감탕주단을 펼쳐놓는데 코다리고무신같은건 년씩년씩 먹어치우곤 한다.

에, 사람 못살 이곳에 왜 왔는지?... 아픈 상처

만을 가져다준 고향땅을 떠나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던 덕준이가 여기에 머물렀을 초기엔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놈의 탄광을 하루빨리 뜨려고 했었다. 허나 그는 탄광을 떠나지 못했다.

어딜 가나 파리목숨같은 생을 겨우겨우 이어가기는 매한가지이지만 온통 암흑투성이인 굴안이 쓰라린 추억을 망각속에 묻어두기에는 좀 나은 곳이었기때문이었다. 또 천당인지 지옥인지 모를 저승의 문턱에 한발을 올려놓고 사는 탄부들의 인심이 남달리 후한데도 있었다.

해방전 뿌연 탁주에 심신을 담근 탄부들이 자주하는 신세타령을 들으며 덕준은 생각했었다. 저들은 부모처자가 있으니 살아갈 걱정이라도 있으련만 나야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으랴. 굴이라든가 막 무너져 조용히 숨지면 그만한 다행이 어디 있을까...

그렇듯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해가던 그야말로 인생의 막바지에서 헤매이던 우리같은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탄부들을 위해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자금을 마련해 보내주시다니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아까 궁보아바이 말이 이제는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지. 하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것이 나라의 주인답게 돈을 쓰는걸까?...

이때 옷장사군로친이 덕준을 불러세웠다.

《임자, 갯에서 나오는 길인가? 예그, 힘들었겠네.》

덕준은 새삼스런 로친의 노숙이 의문스러워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괜찮수다. 헌데 왜 그러시우?》

《여보게, 이 양복을 사지 않겠나? 새것은 아니지만 일등부자들이 입는다는 고르뎡양복이야.》

로친은 수선을 떨며 양복을 펼쳐보였다.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우? 돈이 없는데.》

《돈이 없다구?》

로친은 부채살처럼 주름이 가득한 눈살을 치켜올리고 덕준을 쳐다보다가 그의 주머니를 가리켰다.

《그건 돈이 아니고 뭔가?》

로친의 손길을 따라 자기 주머니를 내려다보던 덕준은 흠칫 놀랐다. 담배불구멍으로 돈이 들여다보이는것이였다. 아까 궁보아바이와 이야기하며 아무 생각없이 생활비를 주머니에 넣었던것이다. 덕준은 성급히 구멍을 손으로 막았다.

로친은 눈가에 야릇한 웃음을 담았다.

《뭘 그러나. 돈도 땔겠다, 해방도 땔은즉 때뻬이를 해야지. 줄창 탄먼지에 절여진 옷을 입고있겠나? 어서 사게.》

덕준의 얼굴이 이그러졌다.

《이건 돈이 아니요!》

《아니 돈이 아니면 그럼 뭔가?》

《이건... 예익 모르겠수다.》

덕준은 픽 돌아섰다. 뒤에서 로친이 불렀지만 그는 한손으로 주머니를 짊 거머쥔채 뿔쳐든 황소처럼 무엇인가 받아넘길듯이 씨익씨익 걸었다.

장거리를 빠져나온 덕준은 그중 한적해보이는 벽돌집 널바자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 집 마당에는 판자가 네귀를 맞춰 일매지게 키높이 쌓여있었다.

《뭘 돈이라구.》

덕준은 코웃음치듯 중얼거리며 굴안에 들어갈 때 옷을 싸던 보자기를 꺼내서 돈을 둘둘 감았다. 이것을 허리춤에 차고나서야 덕준은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다.

《이건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활비란 말이야.》

덕준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옷자락에 가리워진 돈을 손으로 톡톡 쳐보며 큰길에 다시 나섰다. 한참 걷는데 덕준이를 덽석 그러안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 너 성팔이로구나.》

《덕준형, 참 오래간만이예요.》

성큼한 목우의 길쭉한 얼굴로 하여 되병을 련상시키는 스무살전의 청년이 배시시한 눈에 반가움을 담고 덕준의 가슴에 얼굴을 비볐다. 그는 소매치기애들을 몇명 휘동해가지고 다니는 골목대장이었는데 덕준이와는 해방전부터 서로 도우며 의종게 지내었다.

성팔이도 부모를 다 잃은 고아였다. 아마 고아라는 처지의 공통성이 생활방식이 판이한 두 인간을 이어주는 인연이 되었는지 몰랐다.

《우리같이 의지할데 없는 애들에겐 돈과 인간의 정이 모든 사랑을 대신한다우. 그래서 난 남에게 남아가는 〈사랑〉을 조절하지요. ...》

이런 말로 성팔이는 자기의 뻔뻔치 못한 생활방식을 정당화하곤 했다.

《형님, 집에 가요?》

뭘 집이라구? 하긴 등대고 비밀 바닥과 하늘가리울 지붕이 있어 집이라면 집이지. 덕준은 다리 밑에 판자쪽으로 둘러막은 자기의 거처지를 생각하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너 요즘 어딜 갔겠니?》

《별이 좋은 시내에 〈원정〉 갔됐수다.》

덕준이는 얼굴을 찡그렸다.

《성팔이, 이제 해방도 땔는데 그렇게 너절하게 살지 말구 제힘으로 살아야지 않겠나?》

성팔이는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다.

《형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해방이 땔다구 찌진 입을 봉하구서 살수는 없잖아요. 헌데 배운건 이 재간밖에 없으니 어찌겠소.》

《이제부터 배워야지. 남들은 태여날 때부터 일을 배워가지고 나왔단가?! 해방된 세상은 로동자들이 주인된 세상이야.》

《로동자들이 주인이라구요? 그럼, 형님이 주인

이게요? 하, 주인이 돼서 꿀꿀이집같은데서 여직 살고 어느 장마철에 떠나려오는것을 건졌다는 그 누데기양복을 노상 입고 다니시우?)

덕준은 할말이 없어 입만 다셨다. 하긴 자기도 리해 못한 《주인》이란 소리를 성팔이가 알아들 올리는 만무한것이였다.

《그건 그렇고 형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냥 지나쳐서야 안되지요.》

성팔이는 한눈을 찡긋해보이며 덕준을 음식점으로 이끌었다.

《그래 돈이 있나?》

《돈? 내게야 없지요.》

《돈없이 어떻게 음식을 사겠나?》

《참, 있다가두 없어지구 없다가두 생기는게 돈이란 물건인데 뭘 쫓하게 그러시우. 후에 내 봉창하지 않을라구요.》

성팔이는 무작정 덕준을 잡아끌었다.

《이걸 놓게. 지금 내겐 돈이 없어.》

《없다구요?!》

쉽없이 뱅뱅 돌던 성팔이의 눈동자가 딱 멈춰섰다.

《이거 시시하우다. 내 오늘 형님이 간쵸란걸 모르는줄 아시우?》

《간쵸?...》

덕준은 저도 모르게 뒤통에 손이 갔다.

《이 이젠... 난 생활비를 탔네.》

《생활비?... 하여간 간쵸건 생활비건 다 돈이겠지요.》

(돈? 하긴 돈이지.)

덕준은 이를 부정할수 없었다. 하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활비를 음식이나 사서 배를 채우는것으로 값없이 쓰고싶지는 않았다.

《글쎄 돈은 돈이지만... 난 이 돈을 못쓰겠네.》

돌아서는 덕준이를 성팔이가 황급히 부어잡았다.

《형님, 이렇게 그냥 가겠소? 정말 섭섭해요. 그래 전에 내가 형님을 노엽힌 일이라도 있으시오?》

《없지.》

《그렇다면 그 돈 몇푼때문에 정을 끊자오?》

덕준은 자기의 속마음을 터쳐보일수가 없어 가슴을 빠질빠질 태웠다. 어떻게 말해야 성팔이를 리해시킬런지. ...

《알겠수다. 내 오늘 구두쇠형님을 다시 알았던 말이요.》

성팔이 잡았던 덕준의 팔을 껍 뿌리치고 돌아섰다.

《성팔이!》

《됐수다.》

그는 켄결음으로 덕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허, 거 꽤 노했는걸.)

덕준은 좀 안된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눈을 꼭

감고말았다.

정말이지 그에게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활비가 돈처럼 생각되지 않았고 할수만 있다면 고이 간수해두고만싶었다.

문득 돈때문에 비참하게 숨진 부모님과 생리별을 당한 덕이의 모습이 덕준의 눈앞에 떠올랐다. 바로 돈이 덕준에게서 소중한 모든것을 앗아갔다.

그래서 그는 돈이라는것을 끝없이 저주했다. 그렇게 저주를 했지만 돈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할 왜놈세상인지라 덕준은 그 돈을 벌기 위해 칠성판을 지고 굴안에서 고역을 치르어야 했던것이다.

...돈, 사랑도 모르고 정도 모르는 저주받을 돈...

그런데 해방된 오늘에 받은 생활비는 같은 돈이지만 어쩐지 잃어버렸던 그 무엇인가를 되찾은것처럼 느껴져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는것이다. 만약 그걸 써버리면 자기에겐 다가오던 귀중한것이 달아날것만 같았다. ...

덕준은 저절로 마음이 훈훈해올라 자연히 손을 허리춤에 가져갔다. 그러던 그의 동공이 대변에 화등잔만 해졌다. 생활비가 보자기채로 없어진것이다.

(아, 이게 무슨 변인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등골이 서늘해오더니만 뒤이어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났다. 휘청휘청 길넋에다가 풀썩 주저앉아 풀어진 눈으로 하늘만 멍청히 쳐다보던 덕준이가 급작스레 용수철에 튕기듯 몸을 일으켰다. 해쓱해졌던 그의 얼굴이 대변에 새파래지며 앞이마의 피줄이 불끈 도드라졌다.

《그놈이다. 그 개자식이...》

덕준은 장거리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사방을 살피며 헤뎀비는 그를 사람들은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물결을 헤집으며 나가던 덕준이가 한쪽에 풍막을 쳐놓고 지짐을 지저 파는 곳에서 무춤 멈춰섰다. 성팔이네 골목패들이 구석에 오구구 모여앉아 지짐을 먹어대고있었다.

이것을 보자 덕준의 판자노리의 피줄이 툭툭 튀고 가슴 또한 부글부글 끓었다.

《이놈들아!》

벼락같은 소리에 깜짝 놀란 골목패들은 벌떡벌떡 몸을 일으켰으나 당자인 성팔이만은 눈가에 비웃음을 띠고 태연스레 마주보았다.

《홍, 날 탓하지 마오. 형님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는 다치지 않는걸 알지요. 오늘 보니 형님은 변했수다. 돈에서 욕심이 생긴다더니 손에 돈을 쥐니 어제날의 정도 헌신짝버리듯 한단 말이요. 이게 부자나부랭이놈들과 다르게 뭐요?》

덕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네놈과는 말하고싶지 않아. 어서 내 생활비나 내놔라.》

《물론 돌려주려 했됐소. 다 쓰면 너무 량심이 없으니까요. 자요.》

덕준은 받아온 돈을 성급히 세어보았다.  
 《나머진 어쨌어?》  
 《하, 깨개 찾겠다는건데... 정 그러면 저 아주머니를 설복해보구려.》  
 덕준은 성팔이가 가리키는 지짐 파는 녀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생활비를 주오.》  
 기름을 태우며 노르스름하게 익어가는 지짐을 뒤적이면서 아닌보살하던 녀인은 대추알처럼 울퉁한 눈을 치켰다.  
 《생활비란게 뭐요?》  
 《이 나머지 돈 말ियो. 그건 내 생활비요.》  
 《못 주겠소. 내가 내 지짐을 팔아 번 돈인데 어째 준단 말ियो.》  
 녀인의 기상은 일점의 주눅도 들어보이지 않았다. 덕준의 가슴속에서 모닥불처럼 세차게 타오르던 열이 얼음처럼 싸늘한 녀인의 눈길앞에서 칙칙소리를 내며 식고만다.  
 《치치직-》  
 허나 그것은 뒤집어놓은 솔뚜껑우에서 타들어가는 지짐점에서 나는 소리였다.  
 덕준은 지짐처럼 타드는 가슴을 어떻게 진정시킬지 몰라 입을 하 벌린채 거친 숨만 쉼씩 몰아쉬었다.  
 이럴 때 뒤전에서 웬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왜들 그러십니까?》  
 온화하고도 저력있는 목소리가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만난듯 떼지어 몰려든 장군들의 웅성임을 누르며 무게있게 들려왔다. 덕준이가 머리를 돌려보니 단정한 군복차림의 젊은 사람이 서있었다.  
 《손님은 제 불일이나 보시구려.》  
 덕준은 곱지 않은 말로 툭 내쏘았다.  
 《허허.》  
 《손님》은 부자연스러운 자리를 너그러운 웃음으로 넘기며 지짐 파는 녀인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러자 녀인은 구세주라도 만난듯 샅대질까지 쉬어가며 목청을 돋구었다.  
 《이 나그네 계정에 머리털 세졌수다. 글썽 내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불쌍해서 덧지짐까지 놓아 먹여주었는데 제 돈 내놓으라니 이 무슨 일ियो, 예? 사내가 돈 몇푼 가지고 쩌쩌하다는건...》  
 《뭐 돈 몇푼이라구?! 이 돈이 어떤 돈인줄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요?》  
 머리끝까지 치당은 분노를 누르느라 덕준의 볼이 푸들푸들 떨렸다.  
 《마음을 자중하십시오. 돈은 내가 찾아올리겠습니다.》  
 《예예?》  
 덕준이가 놀라와 눈을 크게 뜨는데 손님은 주머니를 더듬어 만년필을 꺼냈다.  
 《아주머니, 이게 지짐값이 안되겠습니까?》  
 녀인은 의아한 눈으로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정말 손님이 지짐값대신 이걸 주신단 말ियो요?》  
 손님은 정겨운 미소를 짓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원, 세상에...》  
 녀인이 놀라와 중얼거리는데 장군들이 한마디씩 했다.  
 《어서 돌려주구레.》  
 《타산이 맞지 않아 그러겠지.》  
 녀인은 별상관 다한다는듯 눈길을 휘둘렀다.  
 《할일 없으면 송충 잡숫고 낮잠이나 잘게지. ... 이제 주려던 참이었어요.》  
 녀인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들었다.  
 이때 뜻밖에 궁보아바이가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며 나타났다.  
 《파견원어른, 이게 무슨 일ियो?》  
 (파견원?!)  
 덕준의 가슴이 서늘해왔다. 녀인도, 성팔이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거 우리 굴쟁이들이 무식하다보니 사람 불줄을 모릅니다. 여보게 덕준이, 이 무슨 망동인가?》  
 《아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파견원은 녀인에게서 받아온 돈을 덤덤히 내려다보았다.  
 《이 돈으로 말하면 탄부들이 어려운 생활형편 속에서도 아무 보수도 없이 새 나라를 위해 묵묵히 석탄을 캐고있는것이 못내 가슴아프시여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하시여 보내주신것입니다. 자신께선 싸움의 나날에 입으셨던 군복을 그대로 입으시고 잡곡밥을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이 돈을 어찌 일본놈들이 노동자들을 착취의 수단으로 리용하던 돈과 같이 보겠습니까.》  
 고요하던 숲속에 바람이 터진듯 사람들이 술렁이였다.  
 파견원은 덕준이의 마디 굳어진 손을 꼭 쥐고 그우에 돈을 놓아주었다.  
 《이 돈을 마음껏 쓰십시오. 그래야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돈을 받은 덕준이가 어찌할바를 모르는데 눈주위가 벌갠지언 지짐 파는 녀인이 파견원앞에 나섰다.  
 《내 돈에 환장을 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만년필을 내밀었다.  
 《아주머니, 집에 식구가 몇입니까?》  
 불쑥 녀인의 눈가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운신 못하는 시어머니와 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자식이 세명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없었습니까?》  
 《이 녀인의 남편은 재작년 감독놈들에게 몰려 물통구간을 복구하다 물통이 터져 생죽음을 당했습니다.》  
 궁보아바이의 말에 머리를 푹 수그린 녀인은 더



옥 세차게 어깨를 떨었다. 덕준은 녀인에게 한 자신의 행동이 못내 후회되어 머리를 떨구었다. 파견원도 아픈 가슴을 달래는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이제 멀지 않아 오늘을 옛말하며 행복하게 살 날이 꼭 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20성상 만주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안아오신 것도 여러분처럼 천대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모두가 잘사는 그런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파견원은 한동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떴다. 그때까지 덕준은 한마디 말도 없이 한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꿈같은 현실에 어안이 병병했던것이다. 이때 궁보아바이가 그의 등을 떠밀었다.

《자네 왜 멍청해있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말이야.》

덕준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덕준은 파견원이 사라진 역쪽으로 혈금씨금 달려갔다. 말이 역이지 일제놈들이 탄을 뽑아가자고 탄장옆에 대충 꾸러놓다니니 방 서너칸 덮어주는 양철지붕이 고작이었다. 그곳에는 증기기관차가 김을 내뿜으며 빈 화차들을 화차장에 들이대고있었다.

파견원어른이 어디 갔을가 하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다니는데 화차련결짊으로 파견원이 보였다.

그곳으로 다가간 덕준은 막아선 화차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기울였다.

《글쎄 난산 난삽니다. 일본놈들이 도망치며 콘베아전동기를 태워버렸으니 인력으로 상차해야 했는데 탄부들을 다 동원시킨대도 열차량이나 되는 탄을 하루에 다 싣는다는건 아무래도...》

목소리를 들으니 탄광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하긴 그의 걱정이 공연한것은 아니다. 원래 자연경사조구를 타고 쏘아진 석탄은 콘베아에 실리어 화차에 적재하게 되어있었다. 헌데 콘베아가 멎었으니 사오십메터의 거리를 이적해서 하루에 열차량을 채운다는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꼭 하루에 싣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김일성**장군님께서 당창건을 하루 앞두고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시여 부강조국건설을 호소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부름을 심장에 받아안고 강선을 비롯한 온 나라 로동계급은 일제가 파괴한 공장들을 복구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떨쳐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공장들에서 석탄이 없어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저희들을 탄광에 파견하여주시며 자신께서 탄부들의 애국심을 믿는다고, 이를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당부하셨습니다.》

파견원의 말은 덕준에게 강렬한 충동을 불러일

으키었다.

《실을수 있수다, 얼마든지 있수다!》

갑자기 울려오는 청높은 목소리에 덕준은 깜짝 놀랐다. 어느새 나타났는지 궁보아바이가 파견원앞으로 나서는것이 련결짊너머로 보였다.

《파견원어른, 죄많은 우리를 용서해주시우. 글쎄 해방을 위해 아무것도 한것이 없는 우린 눈썹만큼이나 탄을 캐놓구선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 생활비를 응당 받아야 하는것으로 여기였습니다. 헌데 이 땅에 해방을 안아오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니...》

궁보아바이의 목소리는 끝없는 감격에 젖어 떨리고있었다.

《아바이 말이 옳습니다. 장군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세상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오늘에도 그 로고는 더 해만 가니 곁에서 그이를 받드는 우리도 죄스런 마음 금할수가 없습니다.》

파견원의 말을 듣는 덕준의 목젓이 부지런히 오르내리었다.

비로소 덕준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활비를 어찌서 헐하게 쓸수 없었는지 깨달았다. 바로 생활비는 돈이 아니였기때문이다. 그럼 무엇인가? 새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아닐가? 어쩐지 덕준에게는 그렇게만 생각되었다.

《파견원동지, 실읍시다. **김일성**장군님의 뜻이라면 우리 탄부들모두가 떨쳐나설겁니다.》

뜨거운 걱정을 삼키느라 한동안 말이 없던 위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던 그가 벽을 다 뜯어낸 화차들을 띠여보고선 다시 근심에 싸인 목소리로 말했다.

《헌데 저 차량들은 어찌해야 할지...》

그 화차로 말하면 폐망직전에 일본놈들이 땅크나 포같은 중무기를 실어내느라 뜯어버린것이였다.

《거기에 든든한 동발기둥을 박고 판자를 쳐주면 되겠는데 지금 당장 판자를 어디서 얻겠소.》

《판자라...》

덕준의 뇌리에 장거리를 지날 때 벽돌집 마당에 판자무지가 쌓여있는것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 집은 해방전 목재상을 하던 집이였다.

목재상네 집 대문앞에 이르렀는데 안에서 개가 영악스럽게 짖어댔다.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리자 비단솜조끼를 든든히 받쳐입은 집주인이 얼굴을 쑥 내밀었다.

《왜 그러나?》

집주인이 덕준의 초라한 옷차림을 시답지 않게 쳐다보는데다 털부숭이개까지 사납게 짖어대며 달려들어 덕준의 부아를 더 두루어주었다.

《에익, 누구를 닮았는지...》

덕준의 발길에 채운 개가 짹짹대며 마당으로 사라지자 목재상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발을 탕 굴렀다.

《아니, 개보군 왜 해봐! 흥, 행인이 주인 구박한다더니... 내 아침부터 재수없어서.》

목재상은 대문을 탕 닫아버렸다.

(뭐 누가 주인이라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줄 모르는군.)

생각같아서는 침을 뱉고 돌아서고싶었지만 판자가 필요한지라 꼭 참는수밖에 없었다. 덕준은 닫힌 문을 다시 떠밀며 마당에 들어섰다.

《아니, 왜 그래? 우리 집엔 동냥줄게 없어.》

《뭐 동냥?! 여보시오, 주인은 동냥 안하오.》

《주인? 누가 주인이라는거야?》

《그만합시다. 그건 그렇고 저 판자를 날 주오.》

《뭐 판자? 흥 지금 판자값이 얼마줄 아나? 그런데 거저 달라.》

덕준의 목구멍으로 역겨움이 콧 치밀어올랐다. 돈 한푼을 위해서는 인정도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서 눈이 새빨개서 뛰던 그 본성은 해방이 되였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덕준이는 돈을 썬 보자기를 풀어들었다. 문득 애틋한 정이 살아올라 마음을 짜릿하게 해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어루쓸다 돈을 꺼내 쪽내밀었다.

《자, 받소!》

돈을 본 목재상의 입이 헤벌쭙해졌다.

《진작 이것부터 내놓을게지. 아, 로동자들이 임금을 댔다는 소리는 들었네. 허, 많이 댔구만.》 손끝에 침을 발라 재빠르게 돈을 세어보더니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새집이라도 지으려나?》

덕준은 쓰겁게 입을 다셨다.

《탄을 실을수 있게 화차벽을 막자는거요.》

《화차?! 누가 시키던가?》

《**김일성장군님**의 령을 받고 하는거요.》

《뭐, **김일성장군님**?!...》

목재상의 인상이 급작스레 굳어졌다.

덕준이가 판자를 지고 도착하니 역에는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척 보기도 수백명은 잘 되어보였다. 덕준은 이 좁은 골안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었나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화차를 향하여 걸싸게 삽질을 하는 탄부들과 호미를 들고 탄을 모아주는 늙은이, 소랭이며 바께 쓰에 석탄을 퍼담아 이고지고 달리는 아녀자들에

조무래기들까지 합세하여 오구작작 떠들어대니 그야말로 무슨 전장터를 방불케 한다. 덕준은 무작정 그 와중속에 뛰어들었다.

《아버지, 이 기차가 어딜 가나?》

자그마한 양철소랭이에 탄을 퍼담던 궁보아바이의 막내녀석이 한숨 돌리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녀석, 몇번을 말해야 알겠니? 이 기차는 **김일성장군님**께로 간다.》

《음, 나를 학교에 보내주신다는 **김일성장군님**?》

《그럼. 이제 장군님께서 칠림이를 학교에도 보내주시고 교복이랑, 운동화랑 그리고 공책이랑 많이 주신다.》

칠림이는 입술언저리까지 내리드리웠던 코물을 후룩 두 구멍에 쓸어넣으며 좋아라 손뼉을 쳤다.

《아버님, 이거 온 가족이 다 나온것 같습니다.》

군복상의를 벗어제긴 파견원이 칠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건넸다.

《뭐 제까짓것들이 무슨 맥을 쓰겠다고 부디부디 따라나서는지... 하긴 누가 막을수 있겠수. 온 탄광이 떨쳐나섰는데...》

이젠 이 골안 사람들도 뭔가 좀 깨달은것 같수다. 받는것보다 바치는것이 주인된 도리라는걸 말이다. 여보게들, 그렇지 않나?》

《웁수다.》

옆에서 탄을 싣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파견원은 궁보의 마디굵은 손을 뜨겁게 잡았다.

《원, 고맙다는 인사야 되려 우리가 **김일성장군님**께 드려야지요.》

(바치는것이 주인이란 말이지. 참 훌륭한 말이야.)

덕준은 후더워오는 눈시울을 감촉하며 옆에 세워놓았던 판자묶음을 다시 어깨에 댔다. 이때에 난데없이 녀자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아가는 참 미안했어요.》

돌아보니 장거리에서 다투었던 지짐 파는 녀인이었다.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난 뭐 이 탄광사람이 아니예요?》

대추알같은 그의 눈이 콧웃해졌다.

《아니, 그런데 아니구...》

녀인은 싱긋 미소했다.

《장거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여기 왔거든요. 저길 봐요.》

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본 덕준은 놀랐다.

장사군들이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쥐여주며 분주히 오가고있었다. 어디 그들뿐인가. 성팔이네 골목패들도 땀을 철철 흘리며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인다.

덕준이가 감동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있는데 녀인은 파견원에게 달려갔다.

《정말 달라졌어.》

덕준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화차가 서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화차결에는 덕준이가 가져온 판자외에도 각종 크기와 재질의 판자들이 한무지나 되게 쌓였다. 판자가 필요하다는 소문을 듣고 너도나도 들고온 것이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지. ...

덕준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성수가 나서 망치를 휘둘러대는데 목재상이 어정어정 다가와 그의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여보게, 나 좀 보자구.》

그를 보자 덕준의 속에서는 분기가 울컥울컥 치밀었다.

《왜 그러시우?》

노상 비양조의 미소를 짓군 하던 목재상은 보기에도 어색할 정도로 정색한 몸가짐을 하고는 덕준이가 주고간 돈을 두손에 받쳐들었다.

《여보게, 이 돈을 도루 받으라구.》

《아니 물리자는거요?》

《아, 아닐세. 나는 그 돈을 안 받고 거저 주겠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나머지 판자도 다 가져가게나.》

《그건 어째서...》

덕준의 눈이 켜해졌다.

《내가 김일성장군님의 령을 돈으로 흥정해서야 해방된 땅을 밟고 다닐수가 없지. 암, 장사를 해도 제 나라를 위해 해야 하구말구. 여보게, 내 해방전 후꾸다눔이 철도부설용 목재를 적재해둔델 아는데 그걸 통채루 탄광에 넘기겠네.》

《형님은 팬찮은 사람이요. 정말 고맙수다.》

《고맙긴. 세상이 달라졌는데 나도 그전처럼 살 수야 없지.》

덕준은 그가 한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을 곱씹어 새겨보았다.

그래, 세상이 달라졌지. 우리에게서 귀중한것을 빼앗아만 가던 저주로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롭고 귀중한것을 자꾸만 안겨주는 세상, 꿈같은 세상이 찾아왔어. 아! 세상이 달라지니 사람도 달라지는 것이다.

발차신호를 기다리는 기관차는 어서 떠나자고 독촉하듯 연방 기적소리를 울린다.

그래, 김일성장군님 계시는 평양으로 어서 가거라, 가거들랑 아뢰여주렴. 새 나라에 바치는 탄부들의 뜨거운 심정을...

이에 화답하듯 기관차는 출발선에 나선 룡상선 수마냥 씩씩 숨을 가다듬는다. 석탄이 그득그득 담긴 화차들을 끌고 단숨에 평양까지 가닿을듯...

수많은 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열차는 드디어 떠났다. 서서히 미끄러지는 열차우에서 파견원이 손을 저었다.

덕준은 화차를 따라 걸으며 소리쳤다.

《석탄은 걱정마십시오. 그리고 장군님께 우리의 인사를 꼭 전해주시시오.》

《덕준동무, 고맙소오-》

기운차게 달리는 열차의 음향에 실리어 파견원의 목소리는 길게 울렸다.

(잘 가시우.)

덕준은 해방된 조국땅우로 기운차게 달리는 석탄열차를 바래우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아마 성팔이네가 그의 손을 잡지 않았으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있을런지도 몰랐다.

《형님, 내가 잘못했수다.》

덕준은 얼굴이 석탄덩이 한가지로 되어버린 성팔이네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너희들도 여기 왔었구나.》

《형님, 우리도 탄을 캐겠수다.》

《암, 그래야지. 바치는것이 없으면 나라의 주인이 될수 없어. 자, 우리 탄광위원회에 찾아가자.》

덕준은 성팔이네 손을 잡고 씩씩 씩씩 걸음을 옮겼다. ...

그날 저녁 덕준은 아침에 받았던 생활비 전부를 탄광위원회에 바쳤다.

《이 돈을 탄광복구에 써주시오.》

《아니, 이걸 다 바치면 자넨 어떻게 하려나?》

위원장의 반문에 덕준은 호통치듯 말했다.

《아, 나한테야 장군님께서 계시구 나라가 있지 않소!》

《하지만 자기 생활도 좀 생각해야지 않나?》

《내 생활이 어렵다면 갓 해방된 나라만큼 어렵겠소. 가만보니 돈은 나라를 위해 바쳤을 때 가장 값이 있는것 같소.》

덕준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 세계유모아

### 까마귀고기

옛날에 까마귀고기를 먹으면 전망증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려판주인이 돈이 많아보이는 한 손님에게 까마귀를 잡아다가 먹이었다.

다음날 아침 하녀가 주인에게 알렸다.

《그 손님이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 잊어버리고 간것이 없드나? 좀 가보아라.》

하녀가 한참후에 와서 알렸다.

《네, 잊은것이 있습니다. 숙박비를...》

## 셸리와 그의 창작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떤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그의 성격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의 사회적성과 관련된다는 기본문제로서 사회제도와 계급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제기되고 해결되였다.》

셸리는 영국 진보적량만주의문학의 대표적인 한사람이다.

시극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를 창작한 퍼씨비쉬 셸리는 바이런과 함께 19세기 영국 진보적량만주의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시인이다. 1792년 남부영국의 한 부유한 귀족가문에서 태어난 셸리는 주로 귀족집자식들만이 다니던 이튼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자기 주위의 반동적인 영국사회에 대하여 그리고 귀족적인 자기 가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소년시기에 벌써 그는 학생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영국의 학교제도에 의견을 가지고 반항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미친 셸리》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이 시기 그는 급진적사회활동가이며 창작가였던 윌리엄 고드윈의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문학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다. 18살도 되기 전에 그는 폭정을 폭로하고 압박받는 인민들을 동정한 여러편의 시들과 두편의 소설을 창작하였다.

이튼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그는 1811년에 《무신론의 필요성》이라는 소책자를 써낸것으로 하여 《위험한 정치적 및 철학적견해》를 가지고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출학당하였으며 아버지에게서는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의절당하달일이 되었다. 그 다음해인 1812년에는 아일랜드로 건너가 영국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일랜드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셸리의 이러한 활동과 이 시기에 그가 쓴 작품들인 서사시 《뱀녀왕》(1813년)과 《이슬람의 봉기》(1818년)는 영국지배계층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셸리의 사생활을 들추어 외곡증상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를 무신론자이며 《비도덕적인 사나이》라는 이유로 결석재판에서 모욕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그를 영국에서 추방하는 음모를 꾸미었다.

이처럼 비열한 비방증상과 박해에 둘러싸인 셸리는 영원히 영국을 떠날것을 결심하고 1818년에 다시 도바해협을 건너 이탈리아로 갔다. 이탈리아 에로의 여행은 그의 창작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주었으며 셸리의 진보적량만주의시문학을 새로운 개화기로 끌어올렸다. 그가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에 창작한 서사시 《이슬람의 봉기》가 바로

그의 창작적개화의 서곡으로 되었다.

셸리가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던 1818년부터 1822년까지의 기간은 그의 시창작의 전성기였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체류하면서 바이런과 우의를 두터이 하였으며 그 과정에 급진적민주주의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에서의 노동운동의 장성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앙양은 시인의 사상에술적발전에서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1819년 영국의 피터스필드에서 선거법개정을 위한 집회를 가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는 소식은 영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시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대학살만행은 셸리에게 있어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폭력을 적용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견해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었다. 이전에 셸리는 폭압정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평화적방법과 무저항을 설교하는 고드윈과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1819년부터 리성에 대한 호소만으로는 사회개조가 이루어질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셸리는 영국의 인민들을 통치계급을 반대하는 대담한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시들을 수없이 창작하였다.

《줄리안 마달로우》, 《첸치일가》,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는 이 시기 창작된 작품들이다. 그는 또한 《1819년의 영국》, 《두 정치가》, 《영국인민들에게》와 같은 예리한 정치적서정시들도 창작하였다. 이 시들에서 셸리는 영국지배계급을 반대하는 폭동으로 인민들을 호소하였다. 이 시들은 영국로동계급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풍자시 《무정부의 가면》도 1819년에 창작된 작품이다.

셸리는 창작말기에 자유를 위한 그리스인민들의 투쟁을 보여주는 서정시극 《헬라스》와 산문작품들도 썼다. 《시의 옹호》와 《개혁에 대한 철학적견해》는 셸리가 창작한 산문으로 된 작품들이다. 여기서 그는 시인의 파업은 억압당하는 인민들에게 복무하는것이며 시인은 인민에게 자유에로의 길을 밝혀주며 인민의 가슴속에 자유의 사상을 고취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순수미》를 운운하면서 인민들을 현실에서 유리시키는 반동적량만주의자들의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배격하였다. 셸리는 사망직전에 영국 부르조아혁명시기를 취급한 《찰스 1세》에 다시 손을 대였으며 비록 이것이 완전한 형태로 남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당시 부르조아혁명전야의 영국사회를 진실감있게 보여주었다.

1822년 7월 8일 셸리는 리보르노로부터 페리치로 요트를 타고 친구와 함께 오다가 폭풍을 만나 피사근처의 스페찌아만에서 익사하였다. 셸리의

죽음은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반동통치배들은 《무신론자인 시인 셸리는 익사하였다. 그는 이제야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죽은것이 신에 대한 모독때문인것처럼 말하였다.

셸리의 친구들은 그의 시신을 이탈리아에 묻고 묘비에 《심장들의 심장》이라는 글을 새겨놓았다.

시인은 죽었지만 사회악이 만연하는 당대의 영국사회를 폭로하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호소한 그의 작품들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셸리의 진보적량만주의시문학은 19세기초 영국사회발전의 특징과 당시 영국로동운동의 미숙성으로 하여 제한성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하여 영국의 진보적문학

발전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19세기 영국의 프로테타리아문학인 차티즘문학은 셸리의 창작유산을 영국로동계급의 귀중한 문학적유산으로 인정하였으며 영국의 진보적문학의 우수한 전통에 포함시켰다. 하기에 맑스는 셸리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혁명가였기때문에, 따라서 그는 언제나 사회주의의 전위대에 속하였을것이기때문에 그가 죽은것을 그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퍼찌비쉬 셸리는 영국의 진보적량만주의 시인들중에서도 가장 재능있고 진보적인 시인의 한사람이었다.

정 광 철

## 내 각 지 시 문 제 183 호

### 김 총 기

하얀 사기단추며 꺼멓게 녹슨 족쇄며  
발굴된 유물들을 돌아보던 나의 발걸음  
문득 한곳에서 굳어졌으니  
그것은 전쟁시기 식량공급수량을 적은  
한장의 내각지시문 제183호

선뜻 눈길을 땔수 없구나  
전쟁의 가렬한 그날에  
우리 공화국이 실시한 식량공급제도  
오늘과 다름이 없었거니

저 소중한 문건을 지켜  
고마운 우리 제도를 지켜  
이름도 얼굴도 알수 없는 애국자

원췌놈들에게 잡혀 수직갱에 수장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았으리

설사 원췌들이  
그의 몸은 묶어 땅속에 묻을수 있었어도  
불길처럼 내려치는 신념의 넓은  
심장속에 간직한 진리의 글발은  
지울수도 물어버릴수도 없었거니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고마운 사회주의 이 제도를 지켜  
목숨바쳐 싸우라 끝까지 굴함없으라  
이 가슴에 피의 진리를 새겨주는  
오 내각지시문 제183호여